

중국선교전문지

1999/ 3 · 4 (통권 56호)

중국을 주께로

각월간 중국을 주께로/ 발행처, 시남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발행인, 이동화/ 발행일, 1999. 2. 20/ 등록일 1994. 2. 14일자 (등록번호/ 바-2078) 통권 56호

上海爱廷金融信托投资公司祝贺旅游节举行

특집/ 중국의 변화를 일차

기획/ 소수민족을 알자

- 마오(苗)족

중국의 관문도시와
선교적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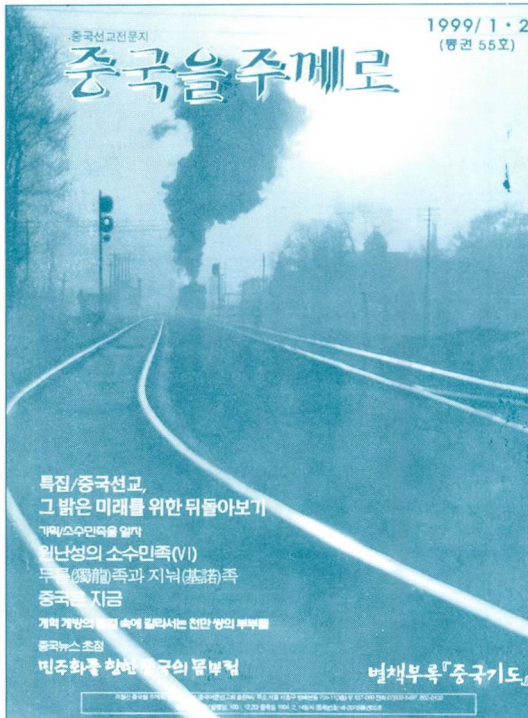
중국을 떠들썩하게 한
어느 지식청년의 외침

별채부록 중국지도

중 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선교 동역자를 찾습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읽혀지기 원합니다.

희어진 발, 중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중국교회의 외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눈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과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 평신도들에게는 선교의 불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30,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TEL: 02) 592-0132, 533-5497, 594-8038, 535-4255, FAX: 599-2786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우137-069

『중국을 주께로』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 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회지구독요금’이라 적어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안식년 정책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몇몇 미주 한인 교회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연변 지역을 오가며 사역하고 있었으나 극소수였고, 한중수교 후 비로소 다수의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가 거주사역을 시작하였다. 보통 5년에서 7년에 1년 안식년을 갖는다고 보면, 중국의 경우 제자년부터 안식년 선교사들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안식년을 갖는 선교사는 많지 않은 듯하다. 이것은 선교사는 물론 선교 사역 자체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여기에는 대개 두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다. 그 하나는 한국 교회의 안식년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또 하나는 선교사 본인의 안식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정서상 선교사는 파송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선교사 입장에서 교회에 대해 안식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이점을 고려할 때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차적 책임은 역시 교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안식년을 '형편이 되어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안 가져도 무방한' 그런 것쯤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는 선교사가 안식년을 말하는 것을 사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정도다. 실제로 한 중견 목사님이 공식석상에서 자기는 20여 년의 목회기간 동안 한번도 안식년을 갖지 못했는데, 젊은 선교사들이 안식년 타령을 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안식년을 챙기는 목회자가 극소수이고 사회적으로도 안식년 문화가 전무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인식의 한계가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교지 상황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영적 고갈상태는 정서적, 육체적 고갈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집안 일, 자녀 양육, 사역 뒷바라지 등으로 고생하는 사모님들의 심신은 고갈상태를 넘어 탈진 상태로 가기도 한다. 이들을 보는 것은 마치 여름 가뭄에 바닥이 찌익찌익 갈라진 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이것은 일부 선교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

아마도 갈라진 논바닥을 보며 태연자약할 농부는 없을 것이다. 선교사에게 안식년은 여름 가뭄의 단비와 같다. 특히 중국과 같은 폐쇄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그들에게 안식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사치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는 보다 적극적인 안식년 정책을 세워서 선교사들의 영적 고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중국을 주제로



특집/ 변모되는 중국교회



특집/ 달리는 중국, 변하는 사회

특집/중국의 변화를 읽자

- 8 변모되는 중국 교회/서청
- 13 달리는 중국, 변하는 사회/석은혜
- 20 최근 중국의 정치적 변화/박미진
- 26 중국 지식인들의 변화/한윤숙
- 30 중국 소수민족의 변화/김복중

중국선교 길라잡이

- 36 중국 교회 현주소
 -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사상(4)
 - 삼자교회의 신학/주피득
- 44 중국 교회를 찾아서(15)
 - 농민 저항의 역사가 살아 있는 마오쩌둥(毛澤東)의 고향
 - 후난(湖南)성의 교회
- 47 디아스포라 중국인(1)
 - 미국에 살고 있는 대만 노인들
- 50 선교나침반
 - 중국의 관문도시와 선교적 중요성/한수아
- 56 관문도시(7)
 -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
 - 정저우(鄭州), 웨이하이(威海)/연구부
- 60 중국 유학생 선교
 - 새벽이슬 같은 중국인 유학생을 잡아라/석은혜

헌신의 삶

- 62 중국사역 체험기
 - "이 곳에 나의 백성을 충만케 하라"/왕쓰웨이
- 66 현지에서 온 소식
 -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XII)/김재호
- 70 내가 만난 하나님
 -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한 지식인의 고백/샤오양(小羊)
- 76 이삼열의 중국 이야기(2)
 - 복음의 씨앗을 뿌린 영국 선교사들/이삼열
- 80 중국선교사 행전(10)
 -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삶을 드린 살로트(로티) 디스 문/루스터키

중국은 지금

- 85 중국은 지금
 - 중국을 떠들썩하게 한 어느 지식청년의 외침/장선(江迅)

90 중국뉴스 초점

중국 민주당 인사 구속사건을 보며/연구부

111 중국동향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연구부

기획/중국 소수민족을 알자(10)

98 윈난성의 소수민족(VII)

먀오(苗)족/허중선

선교중국어 코너

108 중국어 기도문/예배시의 기도(I)

109 선교중국어 회화/創造主神(창조의 주)

110 중국어 복음성가

无人能像祢(주님과 같이)

자료실

122 선교관련 사이트

기타 정보

1 발행인 칼럼/한국교회의 안식년 정책/이동화

4 선교일언

선교단체와 협력/김활영

93 목상의 샘

영적 씨름

94 궁금합니다

중국인을 한국에 유학생으로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적은혜

96 시사만평

끝없는 부정부패와의 전쟁

117 선교복덕방

새 일꾼을 찾습니다

118 선교 다이제스트

『중국 교회와 선교(제5호)』 외 1권

119 신간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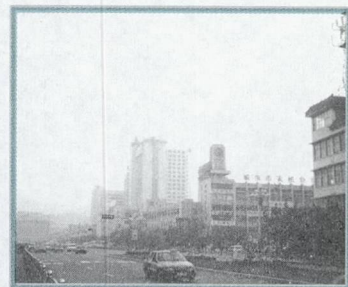
『중국을 알면 읽는다』 외 2권

120 선교게시판

해외 선교단체 정보



특집/ 중국 소수민족의 변화



관문도시/ 웨이하이



기획/ 소수민족을 알자 - 먀오족

선교단체와 협력

김활영

교회 일치의 원리를 좇아서 교회의 모든 사역 원리에서 협력을 요구한다. 교회의 보편성(catholicity, 갈 3:28, 골 1:19~20, 엡 1:10)이나, 통일성 (unity, 롬 12:5, 고전 12: 12~13, 엡 4:4~16)에 근거하여 본다면 각종 사역에서 협력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사역을 언급할 때에 성경은 자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삼겹줄, 두세 사람의 합심기도,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전쟁(출 17), 모두가 협력을 강조하는 예들이다. 이런 협력을 위해서는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적절한 관계 정립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기대할 수 있다.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어야 한다(딤후 2:3). 군사는 군대(軍隊)일 때 힘이 있다. 즉 단수가 아닌 복수이며 대장(隊長)이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들이다. 조직이 필요하고, 임무의 분담이 군대에서는 생명 같은 요소이다. 군사인 선교사를 적절한 훈련이 없이 영적 전쟁터로 파견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 홀로 전쟁터로 보내서도 아니 되며, 그리스도를 대신할 지휘관이 없는 곳으로 보내는 일은 현명한 파송 원리가 아니다. 더욱이 동료와 협력함이 없이는 전쟁터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군사는 군인이 아니다. 군대 조직이란 점잖은 사람들이(gentlemen) 모인 하나의 사회단체 같아서는 아니 되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명령체계가 서있는 강력한 조직을 이루어야 한다. 선교는 적진 안에서의 벌리는 작전(operation in the enemy's territories)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교단체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군대 조직과 같아야 한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가 보여주는 대로 선교에서는 선교사와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하는 선교단체는 서로가 밀접한 관계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 이들의 관계는 군대와 같이 교회론의 원리나, 관리론의 실제적인 이론에 따라서 조직되고 운영이 되어야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협력하여야만이 주어진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선교 단체들의 협력에 대하여 실제적인 방안들을 생각하여 보려고 한다. 먼저 후방의 선교 본부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바람직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여 보려고 한다.

국내에서 선교단체들간의 협력은, 우선 공동소유를 들 수 있겠다. 정보와 전략을 위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단체들은 정보와 전략을 위시하여 선교에 관련된 자료와 방안 등을 함께 나누며 협력해야만 한다.



시하여 선교에 관련된 자료와 방안 등을 함께 나누고 같이 소유하는 방안이다. 직접적인 나눔을 통해서나, 회의, 선교대회와 같은 행사를 통하여 나눌 수 있다. 독점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전선과는 전혀 달리 선교전선에서는 좋은 것일수록 나누고 함께 함으로 개 선교단체들 모두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협력을 위하여 상시로 선교단체 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사역을 개발하기도 하고, 사안별로, 혹은 선교단체별로 필요시에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전우간에 함께 나누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윤리요, 결과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장으로 가보자. 전통적으로 현장에서 선교 대상을 두고 사역지 분할(mission comity) 같은 방법으로 협력하여 왔다. 군대의 배치 전략에서 배워 온 협력의 모습이다. 선교단체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다른 선교 팀들과 힘을 합하여 빠른 시간 안에 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자연스런 이 전략은, 서구 선교 단체들이 애용하여 온 방안이다. 일찍이 서구의 장로교 선교사들이(미국의 남북, 호주 및 캐나다 장로교회) 한국에서, 그리고 근래에 한국 선교 팀들이(합동, 통합, 고신) 필리핀에서 실험하여 재미를 보았던 전략이다. 최근의 미전도종족 입양 운동도 이와 유사한 일종의 사역지 분담(mission comity)이며,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 과업완수를 목표한 최적의 전략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 사회구조에서 사역 대상이 단순한 지리적인 구별에서 사회 계층이나 종류에 따라 삶의 장이 나뉘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사역을 분담하는 협력 또한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즉 도시화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같은 도시 안에서의 다양한 계층과 계도지구, 동일 종교권, 이주 집단 등등, 여러 사역 대상의 분할과 분담이 효율적이다. 이 방안은 한국 선교 단체들이 주목하여야 할 방안이다.

다음으로 공동 목표를 정하는 협력의 방안을 생각해보자. 선교의 과실을 소담스럽게 한 바구니에 담아내는 방법이다. 즉 여러 선교단체가 선교의 결과를 하나의 교회(교단)로 묶어내는 전략 같은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서구 선교단체들의 이런 협력의 산물이며, 이를 모방하여 한국 선교 팀들의 필리핀 장로교회 설립을 하였다. 일찍이 세기 초에 조직된 中華 基督敎會(The Church of Christ in China)는 장로교가 선두에 서서, 감리교, 회중교회, 및 침례교 계통의 여러 나라에서 온 각종 선교 단체들과 함께 공동 목표를 정하고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파송된 장로교 산둥(山東) 선교부도 참여하였다. 오늘날도 공산주의가 휩쓸고 지난 지역에서 새로이 사역을 시작하는 선교 팀들은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주의 깊게 생각하여야 한다. 때가 늦어지면 협력하여 하나의 교회로 조직하려고 하여도 거추장스러운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협력을 방해할 것이다.

세 번째는 위탁 선교사(loan system) 제도다. 이는 동일 사역지에 타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아예 적을 옮겨서 배속하여 한 팀으로 가입하는 방안이다. 즉 갑 선교단체는 을 선교단체가 사역하는 지역(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을 선교단체에다 선교사를 위탁하는 제도다. 이런 협력체제는 일찍부터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다.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회는 현재 아프리카와 남미지역에 활동하는 SIM을 위시한 국제적인 선교 단체와 PWM과 같은 국내 초교파 선교단체 등 25개의 선교 단체(기관)에 약 200명의 선교사를 위탁하고 있다. 즉 소속 선교사를 선교 사역지에서 타선교단체에 배속시켜 사역을 하게 하고있다. 성경번역과 같은 특수 사역을 위해서는 사역지와 상관없이 전문 성경 번역 선교단체에다 아예 선교사를 위탁하여 버리기도 한다. 이 방안은 현대 한국선교가 새롭게 일어날 때에 좋은 안배가 되었던 방안이다. 그러나 이제 성숙하여가는 한국 교회는 현실에 맞는 위탁 선교사 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공동 및 분담 사역을 들 수 있고 전문 사역 단체도 들 수 있다. 이는 여러 팀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같은 사역을 함께 한다던가, 같은 사역을 나누어서 한다던가하는 방안이다. 특수 사역을 통하여 타 선교단체를 돕는 방안이다. 이 전략은 주로 지원 사역(supporting ministry)에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마닐라의 한국 아카데미는 여러 선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선교지원 사역이다. 또 미국의 OC Ministry 같은 단체는 다른 선교단체를 돕는 사역만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로써 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선교 현장에서 찾으면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도 협력을 위한 선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선교단체가 앞장을 서야할 때가 된 것이다. 협력에 앞서는 단체가 선진 선교 기구가 될 것이다.



특집

중국의 변화를 읽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늘이라면 중국의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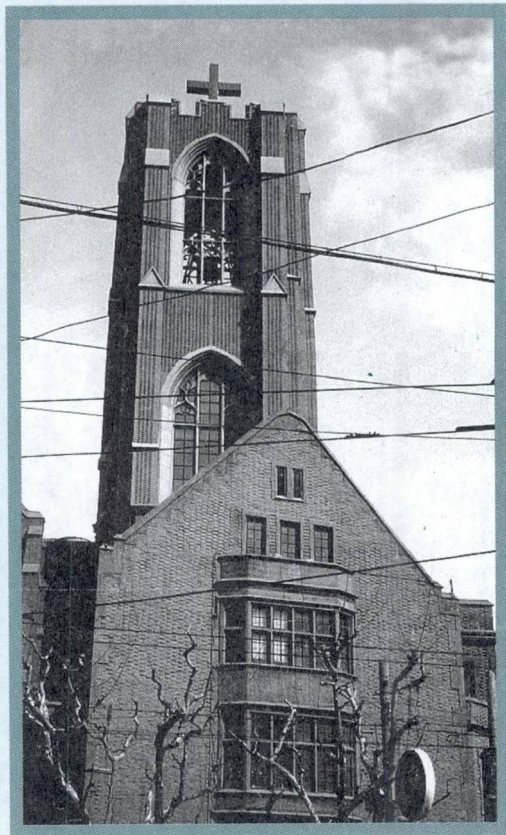
개혁개방 이래 20여 년 동안 변모를 거듭한 중국. 오늘날 중국은, 자의든 타의든, 변화의 속도에 가속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선교를 함에 있어 중국의 변화에 주목해야 함은 당연하다. 선교 자체가 다양한 삶의 상황과 연관되어진 까닭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이 변화의 거센 바람 속에 있는 중국 교회의 움직임, 소수민족의 동향 그리고 이 변화에 몸부림치는 지식인들의 모습들을 중국의 사회·정치적 변화와 함께 살펴 봄으로써 선교적 안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변모되는 중국교회

서정



중국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금같이 연단을 받았고, 80년대 들어 개방의 물결을 타고 중국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사진은 상하이의 목은당교회)

금세기 80년대에 들어서 중국이 개방되면서 중국 교회는, 마치 불탄 초원이 새봄을 맞아 다시 새싹이 움터 오르듯이 놀라운 생명력을 과시하기 시작하였다. 50년대의 반우파 투쟁과 그 이후 곧 이어진 문화대혁명의 혹심한 핍박 속에서 깨끗이 숙청된 듯이 느껴졌던 교회는,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 놀라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나는 때때로 시골 지역의 교회들을 순방하곤 하였다. 이러한 순방과정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 도시에는 물론 작은 시골마을에까지 교회가 없는 곳은 거의 없는 듯했다. 비록 그들의 신앙지식은 미약했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공산주의 운동이 상식의 선을 뛰어넘어 거의 광적으로 열렬했던 시절의 그 혹심한 핍박과 환난도 중국 교회를 말살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교회를 정금 같이 연단시켜 주었고, 이제는 교회가 날개 돋친 듯 중국전역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중국 교회는 여태껏 통합되지 못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것은 곧 삼자교회(三自教會)와 가정교회(家庭教會)(일명 지하교회)의 대립과 반목인 것이다. 이러한 대립과 반목은 중국 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하였고,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사이에 높은 벽을 쌓아놓았다.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반목

가정교회는 삼자교회를 '영적 간음죄를 짓고 있는, 진정한 구원이 없는 교회'라고 정죄한다. 반대로 삼자교회는 가정교회를 '이단성을 띤 불법교회'라고 비난한다. 과연 어느 쪽의 말이 옳을까?

일반적인 신자의 경우 이러한 것에 대해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쪽의 말을 들어봐도 다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 쪽의 말만 듣고 한 쪽이 당하는 경우만 접한 사람들은 쉽게 그쪽 편에 서서 선입견을 갖고 다른 쪽에 대해 비난하거나 정죄하게 된다.

가정교회가 삼자교회를 '영적 간음죄'를 짓고 있다고 비난하는 이유는, 삼자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정부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바알신을 섬긴 것과 꼭 같은 영적 간음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교회에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반대로 삼자교회가 가정교회를 일컬어 '이단성을 띤 불법교회'라고 비난하는 이유는 가정교회의 체계적이지 못한 교리와 아울러 그들이 신비스런 체험들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이다. 정규적인 신학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지도자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교회를 볼 때, 삼자교회는 자연히 가정교회의 무지함을 문제삼고 나온다. 또한 이러한 무지 때문에 적지 않은 가정교회가 실제로 해외의 이단들의 교리에 미혹되어 분별력 없이 빠져들고 말았다. 게다가 가정교회들이 무작정 무정부주의적인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삼자교회는 이러한 가정교회를 '이단성을 띤 불법교회'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과연 가정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투'이며, 또한 삼자교회가 주

장하는 것처럼 '필요한 제재'인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대학시절 나도 가정교회를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주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관점을 가지고 삼자교회를 비난하고 또한 삼자교회와의 교제를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되어 예배공간의 협소로 더 이상 가정집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삼자교회의 예배당을 빌려 예배드리기에 이르렀다. 물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삼자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선택하였고,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신 그 목사님도 흔쾌히 이를 승낙해주었다. 그것은 분명 주님의 은혜였다.

그 때 우리 교회는 50여 명의 교포들이 가정집에 모여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였다. 모든 가정교회들이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없이 모두가 평신도들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가정교회였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었기에 설교는 대학생인 내가 담당했었다. 500석이 넘는 삼자교회의 예배당에서 오전 시간에는 한족(漢族)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우리들이 우리의 말로 예배드렸다. 널찍한 예배공간이 확보되자 교회는 빠른 속도로 부흥되기 시작하였다. 5년 뒤에 교회는 3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되었다.

그러나 교회성장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삼자교회의 외적인 형태를 갖춘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2중적인 핍박을 함께 당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가 커지자 여러 면에서 원하지 않는 규제를 받게 되었고, 교회운영 면에서도 뜻대로 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대하여 저항하자 곧 종교국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한 혹심한 핍박으로 교회가 몇 차례나 해산의 위기를 넘겨야 했다. 그 와중에 나는 비로소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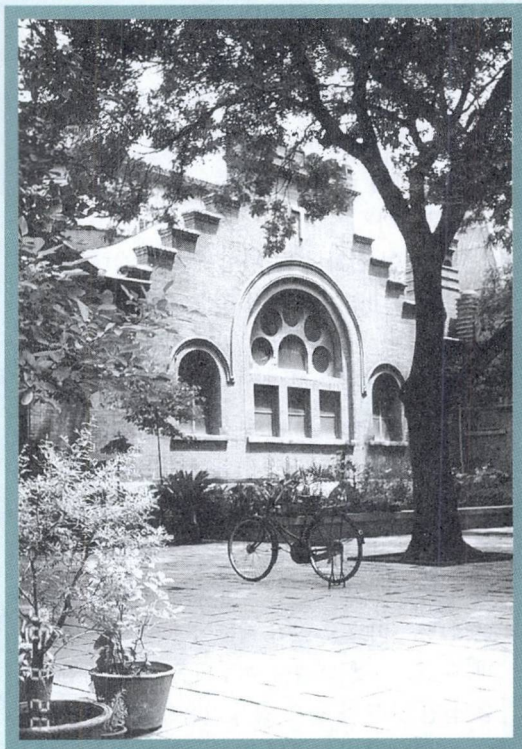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었다.

삼자교회의 고통

표면상으로 볼 때 삼자교회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삼자교회는 교회 운영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면이 매우 많다.

삼자(三自)는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을 일컫는 말인데, 이것은 과거 서구열강들에 의해 억압받던 시기를 상기시켜 자주 독립적인 신앙을 원하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삼자는 하나의 조직체가 되었는데, 그 전칭은 삼자애국운동회(三自愛國運動會)이다. 문화대혁명의 와중에 삼자조직은 한때 교회를 탄압하고 개조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이 조직은 정부관할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삼자교회는 인사권, 섭외권, 헌금 관리 등이 개교회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이 중국국과 삼자조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때문에 지도자를 성도들의 뜻대로 선택하기 어렵고, 해외의 기독교단체들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다. 헌금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재정은 매우 어렵다. 또한 교회에는 늘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이 따라다닌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성경에 따라 성례식이 거행되고 선포되는 말씀은 대체적으로 복음적이며 체계적이다. 삼자조직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들을 통해 일꾼들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나마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일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특별히 덕망이 있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다. 대다수 삼자교회의 신자들은 순수하고 신앙심이 깊다. 그리고 교회들이 체계적인 조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단들이 발붙이기 어렵다. 따라서 삼자교회의 교리는 대체적으로 건전하고 보수적이다.



삼자교회는 체계적인 조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단들이 발붙이기 어렵다.
(사진은 베이징의 숭문문교회)

가정교회의 맹점

삼자교회에 비해 가정교회는 비록 교회당을 마음대로 세울 수는 없지만 인사, 교육, 관리, 섭외 등 여러 면에서 보다 자유롭다. 따라서 가정교회들은 일반적으로 뜨겁고 순수하다. 대체적으로 삼자교회가 말씀중심의 신앙인 것에 비해, 가정교회는 체험중심의 신앙이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은 것이 가정교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그러나 가정교회에도 역시 보이지 않는 감시가 따라 다닌다.

가정교회도 나름대로의 약점들을 갖고 있다. 가정교회는 대체적으로 말씀이 빈약하고 교리가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가 서로 유대감이 없이 분산적이다. 가장 뚜렷한 문제는 훈련된 일꾼의 부족이다. 따라서 개인 또는 가족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사람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분별력 있는 튼튼한 일꾼이 결여된 가정교회는 이단이 쉽게 침투될 수 있다.

이렇듯 삼자교회나 가정교회 모두가 피치 못할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두 여러 모양의 핍박과 환난 속에 처해 있다. 가정교회가 당하고 있는 핍박은 직선적이고 선명한 물리적인 것이라면, 삼자교회가 당하고 있는 핍박은 우회적이고 교묘한 것들이다. 때문에 가정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마음만은 후련하지만, 삼자교회가 당하는 핍박은 늘 사람을 불안하고 답답하게 만든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를 모두 들어 쓰시며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일하시며 또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는 모두 중국성도들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훈련시키고 계신다.

따라서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대립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포용하며 또한 서로 돕고 서로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모두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는 복음 안에서 화합하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고 어려움을 함께 분담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처소교회의 악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교회 발전의 특별한 현상 중의 하나는 아마도 처소교회의 광범위한 형성과 부흥일 것이다.

90년대 초부터 중국 정부는 폭발적인 부흥을 거둬하며 분산적으로 전국에 깔려 있는 가정교회들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등록(登記)'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가정교회들을 일일이 조사하여 종교집회 허가조건에 부합되는 교회는 등록시켜주고, 나머지 교회는 폐쇄시킨다는 강압적인 조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가정교회들이 평화적인 생존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등록정책에 지혜롭게 순응하였다. 이렇게 등록된 가정교회들은 일단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도시의 삼자교회들도 도시주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예배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도시주변에 교구형식의 집회장소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도시주변의 신자들은 필요시에는 도시의 중심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에



가정교회는 비록 교회당을 마음대로 세울 수는 없지만 인사, 교육, 관리, 섬외 등이 자유롭고, 신앙이 뜨겁고 순수하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늘 보이지 않는 감시가 따라 다닌다.

(사진은 광저우의 따마잔교회)

서 가까운 집회장소에서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다. 도시의 중심교회에서도 때때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어 이러한 집회장소를 돌아보곤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처소교회(聚會點)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처소교회들은 가정교회에 비해 많은 유리한 점들을 갖고 있다. 우선 과거에 받았던 무리한 물리적인 압박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력에 따라 합법적인 교회건물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처소교회들간의 유대관계도 전보다 밀접해지게 되었고 필요한 신앙교육도 협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처소교회는 가정교회의 일반적인 맹



90년대들어 중국 정부는 가정교회들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 정책을 실시하였다. 가정교회는 평화적인 생존보장을 위해 이에 순응, 많은 처소교회가 만들어졌다.

점들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우선 처소교회에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안수받은 교역자들이 없는 것이며, 필요한 일꾼들도 공급받을 길이 없다. 따라서 성례식을 거행할 수 없다. 교회운영도 특정 개인이나 그 가족들에 의해 좌우되는 가부장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여하튼 처소교회는 삼자교회나 가정교회와도 분명히 구별되는 또 다른 형태의 교회인 것이다.

결언

이상에서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갈등과 특징, 그리고 처소교회의 형성과 부흥에 관하여 잠깐 살펴보았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교회는 지금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자교회도 전보다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가정교회도 더이상 과거의 모습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소교회의 형성과 발전도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색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형태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 영혼들을 부르시고 품으시는 도구와 방패라는 사실이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서서 다른 형태의 교회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이 모든 형태의 교회들이 제각기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중국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를 면밀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앞서 먼저 행하시기 때문이다.

서 청/중국 현지인

달리는 중국, 변하는 사회

석은혜

경제발전을 향해 달리는 중국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IMF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의 국내의 환경은 복잡했었다. 밖으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았고, 안으로는 대홍수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지난해 7.8%의 경제성장, 물가안정 및 인민폐 환율안정을 실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본래 중국 정부가 계획했던 8% 성장목표에 약간 미달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난한 나라로 알려졌던 중국이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개혁개방 정책 덕분이다. 1978년 12월 18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中全会)'에서 경제건설 위주의 정책으로 전향할 것을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개혁개방 정책을 제정하였다. 그 후 중국은 개혁을 향한 발걸음을 크게 내딛는 동시에 단호하고도 대담한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발전을 향해 20여 년의 세월을 정신없이 달려왔다. 1978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고작 1억6천7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8년 가을 1천4백억 달러를 돌파,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다. 또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인들은 여전히 중국을 제1의 투자 대상국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금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기초시설 건설투자를 증가하고 국가의 투입 증대를 기초로, 기업과 집단 및 개인 등의 사회투자를 통한 경제를 자극할 방침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탈공산화의 현상을 보이면서 중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필자는 지면관계상 중국 사회에 나타난 많은 변화 중 대표적인 몇 가지와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사회 들여다보기

중국인들의 가치관 변화

경제가 발전하면 사회가 변하고, 그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따라 자연히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한다. 중국인들의 가치관 변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경제발전의 속도와 폭 만큼 정치체제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중국의 개혁정책은 강력한 공산당의 통제력에 의하여 "정치안정 없이 경제성장 없다"는 논리를 통해 전개해 왔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경직성은 대중의 탈정치화 현상을 가져다주었고, 공산주의 사상은 신념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배금주의 사상과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인들은 '상채관(尙錢觀; 돈만 본다)' 의식이 팽배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이면 어떤 일이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식인들과 정부관료들은 본연의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일을 하면서 개인 수입을 챙기는 '샤하이(下海)' 현상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관료들의 부정 부패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졸업 후 외국회사나 합자회사 등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학교 공부보다는 영어 토플(TOEFL)이나 컴퓨터 배우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인주의적이고 배금주의적인 사상은 특권 남용, 각종 범죄, 부정과 비리, 성적 타락 등 자본주의 사회보다 훨씬 심각하게 중국전역에 퍼져가고 있어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장쩌민(江澤民) 주

석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조하면서 배금주의적인 요소들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시화와 인구이동의 봄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도시화는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혁 이전에는 비교적 정제된 도시화와 내륙지방의 도시건설이 특징이라면, 개혁 이후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연해지방 중심의 도시발전 현상이 주된 특징이 되고 있다.

중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 666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는 80년대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대도시의 규모와 숫자를 제한하고 중·소도시 발전에 주력한다."는 것을 도시화 추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 건설부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666개 도시는 대도시 75개, 중도시 192개, 소도시 399개 등으로 분류된다. 주로 중국의 중서부 지역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는 2000년에는 8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이징저널 40호).

또한 1980년대 중국의 도시인구는 연 10.9%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949년~1980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의 거의 3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2000년까지 중국 도시인구 비율은 전인구의 40%선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유동인구의 증가가 계속된다면 이것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아, 1996).

현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 중국의 대도시들은 인구과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부(富)에 현혹된 농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꿈을 쫓아 부나비처럼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은 '민공(民工)', '유민(流民)', '맹류(盲流)인구', '외지인' 등으로 부른다. 현재 유동인구의 규모는 1억~1억 5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로운 부(富)에 현혹된 농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꿈을 쫓아 부나비처럼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사진은 직업을 찾지 못하고 카드놀이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주민들).

그러나 대도시가 그들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주민 아이들은 소아마비와 결핵 예방접종도 받지 못하며, 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다. 상하이의 홍등가는 농촌 처녀들로 득실거린다. 이주민들을 향한 도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 출신의 이주민들은 나름대로 그런 적대감에 대응,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들이 집단을 형성해가고 있다. 중국 속의 차이나타운인 쎬이다. 베이징시에는 저장(浙江)성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저장촌'을 만들어 살고 있고, 위구르족들로 구성된 '신장(新疆)촌'도 있다.

이주민들의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주민들은 해안도시나 대도시에서 도시인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들에게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사회분화와 새로운 계층의 증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금 중국은 새로운 사회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 관료 및 당 간부층 외에도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힘입어 성장한 신진 중산계층인 개체상인, 사영기업주, 기업가와 유동인구로 구성된 하류계층 등이 그것이다.

또한 경제 소득의 수준의 변화에서 비롯된 사회구조 분화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이라는 상반되는 두

계층이 출현하게 되었다. 관련부문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연 수입이 인민폐 100만 위안(한화 약 3억 원 정도) 이상 되는 신흥 부유층이 최소 100만 가구에 달한다. 한편 농촌에는 기본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6천만 명의 절대빈곤 인구가 있고, 도시에도 1,200만 명 정도가 최저생활 수준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현재 중국 사회에 공존하며 사회계급, 사회계층 구조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일찍이 이같은 규모의 부유층이 없었기 때문에 부유층의 출현은 일반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다. 오늘날 중국 사회에는 빈부격차로 인한 차이, 직업이나 직능의 차이가 계급이나 계층으로 고정화되는데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 마오(毛) 시대는 비록 가난했지만 '평등' 했으며 그 때를 그리워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제 중국 사회는 사회계급, 계층의 분화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사회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정보,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 열풍

시장 경제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경제발전에 필요한 많은 정보가 요구되고 있고, 경제에 유익을 줄 모든 수단이 상업화되고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언론 매체가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는 사회이지만, 각종 일간지와 간행물이 범람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만 7,800여 종이 중국 전역에서 발행되고 있다. 중국 도시민들은 대부분 가정에 TV와 전화를 가지고 있고, 호출기, 핸드폰, 컴퓨터 역시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중국에서 컴퓨터는 이제 지식인들과 새로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도 인터넷 사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 말 현재 인터넷 가입자 수는 210만 명이나 1개정을 평균 3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6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2001년이 되면 인터넷 사용자는 천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문

가들은 보고 있다. 베이징의 칭화(淸華)대학 정책연구실이 최근 칭화대학 재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넷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88.1%가 인터넷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의 대학생들은 일자리도 인터넷을 통해 찾는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인터넷을 통해 취업정책, 구인, 구직정보뿐만 아니라 세계정보를 단 한번의 클릭으로 다 알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사용자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입자 중 92%가 남성, 83%가 35세 이하, 59%가 대학 학사 학위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중국에서도 해커, 음란물 유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해결해야 될 사회의 현안 문제

국유기업 정리와 늘어나는 실업자

현재 중국의 실업증가는 당국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최근 국유기업 개혁문제가 등장하면서 공장에 필요한 인원만 남겨놓고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샤강(下崗;퇴직)' 인구에서 기인한 것이다. 1997년 제15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장쩌민은 노동자들의 자기 책임에 대해 강조하면서, 고용과 복지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시대는 지났으며, 국영기업개혁과 기술발전, 경제구조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도 불가피하다고 공개선언을 한 바 있다.

1997년 중국의 도시지역 실제 실업률은 무려 9.36%에 달했으며, 국유기업 정리실업자 중 비공식 음성취업자를 제외한 하도 8% 이상이 실제 실업률을 나타냈다(中國證券報 98. 6.23).

중국 노동 사회보장부와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7년 말 현재 중국 전역의 노동력자원은 모두 8억 4천5백70만 명이며, 이 중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그 83.3%인 6억 9천6백만 명으로 집계됐다. 17.7%에 해당하는 나머지 1억 5천만 명이 현재 중국의 무직자이나 농촌 잉여노동력을 제외하면 실제 실업자 수는 1천2백만 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잡지들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취업 대기 또는 실질적인 실업자는 2천6백만에서 3천 8백만 명에 달하며, 현재 농촌의 잉여노동력은 1억 5천만 내지 2억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따라서 중국의 총 실업인구(잠재실업+실제실업)는 1억 8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김인, 1998.) 1999년도 중국에 새로 증가하는 노동연령의 취업인원 수는 914만 명으로, 금년도 취업 정세는 더욱 냉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자 증가로 도시 빈민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최저 소득층과 최고 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1991년에는 1대 2.69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는 1대 3.88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부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박미진, 1998). 또한 실업자들은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시위, 파업, 지방 당정기관 포위 등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1996년에는 120여 개의 도시에서 1,500여 차례의 시위행진과 청원사건이 발생했고, 참가자가 180여만 명에 달했다. 1997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230여 도시에서 235만 명이 참가하여 가두시위, 행진 집회, 청원사건을 벌였다(김인, 1998). 중국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제경제의 어려움과 물가 안정의 여건 부족으로 실업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혼하는 부부들, 흔들리는 가정

개혁개방과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최근 20년 간 중국의 가정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급격한 개방의 물결은 중국에 성 개방 풍조를 가져다주었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결혼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 베이징의 국무원 민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996년 중국에서 113만 쌍의 부부가 이혼해 2분당 한 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무려 천만 쌍이 이혼하여 가정이 파괴되었다.

이혼 사유는 주로 경제문제와 혼외 성관계, 제3자의 개입 등에 의한 것이다. 그 중 개인 욕망추구로 인한 혼외 성관계로 이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로 인해 매년 수십만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

다. 베이징의 한 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1997년 각 법원에서 심의처리된 민사 소송 중에 이혼관련 소송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중국 사회의 변화와 인구 유동의 가속화는 혼외 정사와 이혼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개혁개방의 바람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취업 붐, 지식청년들의 도시진입, 외국 비즈니스 맨들의 중국진출 등이 일어났고, 이와 같은 상황이 모두 이혼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대도시의 바람난 유부남과 유부녀들은 흔히 댄스 홀에서 사랑을 찾고 있고, 이런 시설은 상하이에만 해도 1백 개가 넘는다.

현재 중국에서는 혼인법을 제정하여 이혼풍조를 막아보려고 법률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 초안에서 쌍방 부부간에 "서로에게 충절을 다한다."는 의무조항을 삽입해 놓았고, 혼외 성관계가 발생했을 경우 과오를 범한 쪽이 이혼 시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동시에 부부가 3년 간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마약, 성병, 먼저 가는 에이즈 환자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80년대 초부터 중국에 마약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1993년 중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마약 소탕령을 내려 마약 판매, 재배, 제조, 복용 등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였었다. 그러나 마약 복용자와 운반, 판매는 중국 전역에 걸쳐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마약중독자가 많은 곳은 주로 윈난(雲南)성, 쓰촨(四川)성, 구이저우(貴州)성, 간쑤(甘肅)성 등이며, 그 영향이 아주 심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마약 중독자는 30만 명이라고 하나 실제 숫자는 최소 3~4배 이상이고, 마약 복용자가 3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 전역에 성병이 성행하고 있는데, 전국 성병통제센터가 최근 보고에 따르면 1998년 중국 전역에서 보고된 임질, 매독 등의 성병 환자 수가 46만 1,510명이라고 밝혔다. 중국 위생부는 성병환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개인 및 불

범 진료소를 찾아가 치료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성병 환자 수는 보고된 숫자보다 6~11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성병 발병률이 높은 지역은 광둥(廣東), 장쑤(江蘇), 저장(浙江), 상하이(上海), 쓰촨(四川) 등으로 이들 지역의 환자수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위생부의 98년 11월에 발표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 에이즈 환자는 1만 1천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매춘, 호색꾼, 마약 복용자 등은 에이즈 검사를 거의 안 받고 있어 실제 감염자 수는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이동이 심하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매춘과 마약이 단시간 내에 근절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에이즈 확산은 가속화되고 있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2000년에는 중국의 에이즈 실제 감염자 수가 120만 명, 2010년에는 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윈난(雲南)성, 신장(新疆)성, 허난(河南)성, 광시(廣西)성 등이다(亞洲週刊 98.12.7-13).

1997년 푸젠(福建)성의 푸톈시(莆田市) 지방세무국은 그 시의 고소비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가수와 접대부, 안마, 창기 등에게 개인세금을 징수할 것을 발표했다. 선양(沈陽)시에는 3천 개의 오락장소에 약 10만 명의 '접대부'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합법적인 직장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현재 선양시에 약 만 명이 세금납부증서를 가지고 있다. 산둥(山東)성, 안후이(安徽)성, 후베이(湖北)성, 산시(山西)성에서도 이것을 본받아 세금을 받기 시작했다. 창기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그들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사회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믿는 주룽지 총리는 최근 부정부패 척결에 여념이 없다.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

중국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 사상은 당정(黨政) 관리들을 부정부패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들은 특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정책과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 부정부패는 단순히 고위층 간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층 당 간부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중국 사직당국이 1998년에 적발한 뇌물 수수, 독직 등 직무 관련 부패 사건은 약 10만 건이다. 한 검찰청장에 따르면 검찰기관이 입건 처리한 5만 위안(元) 이상의 뇌물수수, 공금 유용액 10만 위안 되는 부패사건은 총 9,400여 건, 이들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간부가 약 2천여 명이나 된다.

현재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부정부패를 막느라 여념이 없다. 중국의 부패척결 운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주(朱)의 단속에는 새로운 긴박감이 배어 있다. 무엇보다 그는 체제의 부패를 척결하고 정부규모를 줄이며 공직자 외 군인이 사업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주(朱)는 지난 여름 중국 북부를 휩쓴 홍수를 계기로 대대적 국가개혁에 나서게 됐다. 홍수 피해지역의 시찰에 나선 그는 '두부처럼' 썰려간 제방을 목격했다. 그는 댐 구조물에서

보강재 강철봉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다. 부패한 관리들이 건축비를 빼먹은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런 말이 널리 퍼져있다. “부패척결은 당을 파괴하는 것. 부패 용인은 나라를 망치는 것.” 이 말은 부패의 암이 얼마나 뿌리깊이 내렸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날은 요원하기만 하다.

어떻게 선교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상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과 거기에 따른 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회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중국 사회변화에 따른 선교적 접근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개별도시를 연구, 도시선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 도시선교는 연구의 부재 가운데서 지역적으로 사역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내에서 하는’ 선교였지, 전략적으로 ‘도시를 향한’ 선교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도시선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선교현장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선교사들은 보통 자신이 정착한 곳에서 전체 중국인들을 상대로 무작위적, 임기응변식으로 선교대상을 선택하여 사역을 했지, 어떤 도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사역 목표를 세분화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한수아, 1996). 우리는 중국의 관문도시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도시에 맞는 전략을 세워 ‘도시를 향한 선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선교와 문서선교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이제 중국도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었고, 인터넷 사용자가 해마다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컴퓨터는 주로 도시의 직장인이나 지식인·대학생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교매체로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선교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에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베이징(北京) 당국은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

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유민이나 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역 근처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마작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전도지와 신앙서적을 발간하여 전달하는 문서선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물론 전도지를 전달할 때 지혜롭게 해야 한다.

셋째, 기술교육과 전문기능인 양성을 통한 선교를 할 수 있다.

중국정부도 실업대책 중 하나로 전문기술 학습을 제기 했지만, 정리하고 된 공인들은 인원제한과 재정적인 부담으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연안을 중심으로 발달된 지역에서는 사회에 필요한 기술이나 문화가 다양하게 발달되고, 해외 문물전달에도 용이하지만 내륙 산간지역은 문화수준과 기술수준이 매우 낙후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화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 중국의 내륙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실업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박미진, 1998). 계속해서 중국 국유기업은 사영화 되어가고 있어 실업자들은 계속 늘어갈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술교육을 시켜주고 전문기능인을 양성해 준다면, 중국 정부도 크게 환영할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구제사업 및 사회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다.

직업을 찾아 도시로 올라왔으나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다니는 유민이나 실업자들을 돕는 구제사업을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또한 고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선교를 할 수 있다. 소외된 자들을 실제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등을 설립하고 그 일에 종사할 사람을 한국에서 파견하여 협력할 수 있다. 현재 중국도 자체 예산 부족으로 사회복지에 주력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일을 위해 투자하고자 한다면 대환영을 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사역자를 세워 가정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정에 대한 관심이 변하여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심지어 교회 내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가정사역은 중국 선교사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가정 사역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현직인 가정사역자들을 양성시키는 사역을 해야 한다.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가정을 통한 성숙한 인격형성, 기독교인의 결혼관을 정립시키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부부간의 상호 인격존중, 갈등해소법,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는 등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여섯째, 상담, 치유사역을 해야 한다.

중국에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자들이 많이 있다. 아직까지 치유 받지 못해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는 사람, 실업자, 유민, 이혼당한 사람, 마약 중독자, 매춘업 종사자,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된 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상담과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도 인간의 심리에 관한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것만 보아도 이들이 이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 치유사역은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영적인 것까지 포함한 전인격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상담, 치유사역을 통해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자들에게 사회와 화해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실패, 불안, 실망, 상처의 멍에로부터 해방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의 변화와 현재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

게 선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경제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국민들의 필요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선교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 안에서 장기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비자, 거주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는 '전문인선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직 중국은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중국인들이 실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혼, 매춘, 부정부패로 사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때야말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호기이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에게 복음은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회를 선용하여 중국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여 중국에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하며, 중국 사회를 변화시킬 성숙한 크리스천 지도자를 길러내야 한다.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 전파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 하는 전인격적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 1:18)

<참고문헌>

한수아, "중국 도시선교의 필요성과 전망",

"중국을 주제로-제42호", 1996년 11,12월호

김 인, "중국의 실업사태와 노동자 시위",

"월간 아태지역동향", 1998년 3월호

박미진, "중국경제의 전개와 실업문제", 『중국교회와 선교-제5호』, 1998년 12월

정병관, "최근 미전도종족과 도시선교의 세계적 동향과 그에 따른 전략적 대안", 『종족과 도시선교저널-제2호』, 1998년 겨울호.

"賣淫 娼優禁不止", 『鏡報』, 1998. 8.

"中藥治愛滋神州驚夢"(98.12.7), "黃色娘子軍震動中國"(98.5.18),

『亞洲週刊』.

紀頌鳴,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갈라서는 천만 쌍의 부부들",

『亞洲週刊-35期』 (중국을 주제로 1999년 12월호의 번역물)

『News week 한국판』, 중앙일보, 1998.12.16

『메이징저널』, 40호, 79~84호

중국 최근의 정치적 변화

박미진



중국정부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국을 전망해보고, 보다 깊은 중국 이해와 선교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의 동향

당중심의 정책회의

중국은 제15차「당대회」와 제3차 전체회의(이하「3중전회」)를 1998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했다. 회의 개최 전 후진타오(胡

들어가는말

중국은 1997년 9월 제15차 공산당대회(이하「당대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받들어 21세기를 향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했다. 이것은 다시 1998년 3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이하「전인대」)를 통해 중국 전역에 공포되었다. 경제통인 주룽지(朱鎔基) 총리를 중심으로 제3세대의 전문관료가 대거 등용되면서 장쩌민(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신진세력들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장쩌민의 성공적인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야심작은 1998년 갑자기 몰아닥친 아시아 금융위기, 일본 엔화 폭락, 중국의 대량 실업 및 홍수 등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부득불 경제정책에 수정을 필요로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 4개의 기본원칙이 준수되고 경제발전을 진행하기 위해 1998년 하반기에 몇몇 정책들을 수립한다. 본 글에서

錦濤)가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이 되면서 장쩌민 주석의 후계자로서 지위를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했던 보도와는 달리 인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오강촨(曹剛川) 인민해방군 총장비무부장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데 그쳤다. 이 외「전인대」상무위원회는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고령 법관들을 경질하고 장쑤(張軍)를 형사 제1재판장으로 선임하는 등, 젊은 법관들을 새로 임명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역시 최근 7명의 고위직 가운데 리우지(劉吉)를 포함한 4명의 부원장을 고령이라는 이유로 퇴직시키고 장란성(江藍生) 어언연구소장(54세), 천자꾸이(陳佳桂·55세), 리선명(李愼明·49세) 인민해방군 소장 등 3명으로 교체했다. 지방의 경우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시에서 올해 60세인 량광따(梁廣大)가 고령으로 시위원회 서기직에서 퇴임하고 현 시장인 황윈(黃雲·47세)이 이를 겸임하게 되

었다. 황윈은 지난 1996년 량광파로부터 시장 직위를 물려받은 바 있다. 공직자의 세대교체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3중 전회」는 '중국 농촌의 발전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농업과 농촌공작에 관한 중대 결정'을 통과시켰고, 앞으로 30년 간 토지에 관한 정부 책임제를 계속 실시하기로 결의했으며, 잉여 농산물의 임의처분 등도 보장했다. 또한 1999년부터는 이와같은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4중 전회」가 12월 18일에 소집됐다. 통상 연 1회 개최되는 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은 「4중전회」를 통해 주룽지 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개혁개방 20년 평가담'을 결성하여 21세기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먼저 개혁개방을 시작했던 제11차 3중전회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중국 경제개혁의 중간평가에 대해 상당한 점수를 주었고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9.8%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경제 정책

중국 공산당은 1998년 6월 22일, 금융기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시키는 한편 각 금융기관 계통에 당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서기인 중앙정치국원 겸 국무원 부총리 원자바오(溫家寶)는 금융기관 지도자대회의 개최를 통해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시했다. 즉 금융계통의 당 건설을 강화하고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며, 현대적인 금융체제 건

립의 완벽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의 설립은 금융기관의 수직적인 지도체제 수립과 금융의 안전, 고효율, 건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당 중앙의 파출기구라고 밝혔다. 원자바오는 위원회의 책무가 첫째, 금융계통의 당건설 지도. 둘째, 당노선, 방침, 정책, 당중앙 및 정부의 관련 지시 관철 보장. 셋째, 중앙조직부의 금융계통 중앙관리간부 관리협조. 넷째, 금융계통 각급 지도부의 철저한 당노선, 방침, 정책 집행과 기율준수, 청렴도 감독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의 위원회 이외에도 중앙금융기율검사위원회의 파출기구인 중앙금융기율공작위원회와 금융기관 기율위원회도 설립되었다.

또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30여 개의 지점을 9개로 축소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지점 책임자로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한다. 중국 국무원은 1998년 11월 17일 "중앙은행에 대한 관리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인민은행 지방지점을 폐쇄하는 대신 단일 지역이 아닌 복수 지역을 관리하는 9개 지점을 새로 설립한다"고 밝혔다.¹⁾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중국국무원은 중국 금융체제의 중대개혁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현재 통화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금융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8월 25일 "통일계약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인대 측은 "기존의 계약 관련규정들이 20여 년 전 계획경제체제 때 만들어진 것이어서 요즘 일어나는 각종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 새로 생기는 지점은 天津分行: 天津, 河北, 山西, 內蒙古; 瀋陽分行: 遼寧, 吉林, 黑龍江; 上海分行: 上海, 浙江, 福建; 南京分行: 江蘇, 安徽; 濟南分行: 山東, 河南; 武漢分行: 江西, 湖北, 湖南; 廣州分行: 廣東, 廣西, 海南; 成都分行: 四川, 貴州, 雲南, 西藏; 西安分行: 陝西, 甘肅, 青海, 寧夏, 新疆이다. 이들 지점은 인근 4~7개 지방의 중앙은행 업무를 맡게 된다. 베이징(北京)과 충칭(重慶)은 중앙은행의 본점 영업관리부가 맡기로 했다.

다. 이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소속의 법제공작위원회 왕성밍(王生明) 민법실장은 “경제가 글로벌화하는 데 맞추어 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국 최초의 통일된 계약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계약법은 중국 내의 기업과 중국 기업과 외국기업들의 금융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계속되자 중국정부는 외국인 주택 구입에 대한 특혜정책을 공고했다. 11월 19일 인민일보 해외판에 의하면, 상하이(上海)시는 최근 주택 판매 부양책으로 내·외국인이 상하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특혜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특혜정책은 금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상하이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상하이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혜택은 월급소득, 회계소득, 노무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은행이자, 주식배당금, 보너스 등의 개인소득세 감면이다. 한편 소득세 감면의 최고한도는 구입하거나 차익을 주고 구입한 주택의 가격과 주택융자 이자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중국지도부의 부정부패 척결

주룽지 총리는 식량관리 부문의 부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뤼즈링(羅植齡) 국가식량 국장을 면직처분했으며, 가오테성(高鐵生) 국가발전 계획위원회 스창쓰(市場司) 사장을 후임자로 내정했다. 이는 주룽지가 국무원 총리로 취임한 이래 첫 번째 부부장급 문책인사였다. 그리고 9기「전인대」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최고

인민검찰원 반독직뇌물총국(反貪污賄賂總局)의 뤼지(羅輯) 국장과 황리지(黃立志) 부국장을 ‘기율 위반’ 이유로 경질했다. 허베이(湖北)성 부성장을 지낸 명칭핑(孟慶平)이 부패죄목으로 당에서 축출, 체포되었다. 독직사건으로 기소된 전 베이징시장 천시통(陳希同)에게 16년형이 선고되었다. 천시통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책으로 인사이동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치민주화와 인권사상 신장

1998년 11월 19일 개최된 따론펬(大連) 시 상무위원회 제7차회의에 공민신분의 대표 12명이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이 허용됐다. 따론펬 시는 지난 달부터 일반 공민 방청석을 설치하고 공민권이 있는 모든 공민은 방청할 권리가 있으며, 상무회의뿐만 아니라 인사 임면(任免)과 같은 중요회의도 방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 같은 방청제도는 현재 랴오닝(遼寧)성과 광저우(廣州) 등지에서 실시돼 현지 인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따론펬시의 방청 허용 조치는 중국의 정치민주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진보이며, 나아가 공민들의 공공업무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같은 해 10월 5일 주연합국 중국 대표 친화쑤(秦華孫)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치권리와 공민권리국제 공약(政治權利與公民權利國際公約)》에 서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은 창당하고자 하는 반체제 인사 쉬원리(徐文立), 왕요우차이(王有才), 친용민(秦永敏)에게 국가정권 전복기도죄를 적용하여 12월 21일 각각 13년, 12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중국 내 214명 민주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단식할 것을 결의하며, 국제사회에 기본적인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촉구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중국의 실행정책에 대한 분석 지도자 인선문제

중국의《경제안전론》은 장쩌민과 주룽지 체제를 더욱 굳건히 했다. 87년부터 리펑(李鵬)은 줄곧 당내 서열 2위 총리직을 수행했고, 지금은 전인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인대가 최고 권력기구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다. 1998년 제15차 2중 전회 때까지는 주룽지가 정식 총리에 오른 것이 아니어서 당 서열 3위에 놓였지만, 장쩌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중국의 국정인 경제중심은 주룽지를 당서열 2회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제15차 3중 전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후진타오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승계는 불발탄으로 끝났다. 후진타오는 50세라는 젊은 나이에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서기처에 진출했고, 제4대 지도자로 면모를 갖췄으며, 제15차 당대회에서는 서열 5위의 상무위원으로 다시 승격되어 차세대 지도자 자리를 확고히 했다. 게다가 중국은 당이 군대를 이끄는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최고지도자가 당연히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그러나 군 경력이 전무한 후진타오에게 있어서 군에 진출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제15차 당대회 이후 불과 1년 남짓의 시간에 인사이동은 부적합하고, 만약 후진타오가 군에 진출할 경우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필요로 한다. 현 중공중앙군사위 제1부주석 장완넨(張萬年)이 물러나지 않는 한 후진타오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은 7월 27일 국무원에서 발행하는 국방백서를 통해 3년 내 50만 군 감축과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법집행기관의 경영활동 금지를 지시했다. 현재 군 내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장완넨이다. 그가 만약 퇴임한다면 50만 군 감축계획과 군대의 경제활동 금지에 큰 영향을 주고, 심하면 군 내부의 심적 동요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새롭게 시도되는 정책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결국 후진타오가 언제 중앙군사위에 진출하느냐 하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이다.

경제정책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계속 평가절하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분야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중국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용하여 거시 경제조절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거시 조절 체계는 주로 경제총량의 균형을 유지하고, 통화팽창을 억제하며, 중요 경제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체계는 주로 경제적인 수단과 법률적 수단을 함께 사용하며, 금융과 재정 구조의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거시조절 수단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금융기관의 당위원회 설치와 인민은행을 9개 지점으로 정리함으로써 적당한 긴축 재정과 화폐정책을 실시, 거시적 통제를 조정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 중국정부는 금융 메커니즘과 증권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합법적으로 강화하며, 금융질서를 규범화하고 보호하여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또한 중국은 대중국투자가 지난 수년 간 매년 400억 달러의 직접투자 외자액의 80%를 차지하던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로 협의의 외자액을 완전히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1998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주식투자 허용과 '통일계약법' 및 상하이 외국인 주택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내부세력 개혁

중국 도시거주자 대부분이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80%의 시민은 부패 관료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1998년 9월 2일 홍콩명보의 조사결과 나왔다. 이에 8월 베이따이허(北戴河) 중앙공작회의에서는 금년 말부터 2년 동안 현금 이상 간부들에 대한 '정화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업무회의에서 장쩌민 주석, 주룽지 총리 등을 포함한 고위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관료의 부정부패 퇴치를 강조하면서 체제, 메커니즘 차원에서 부패방지 생겨날 소지를 없애고 부패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주목적으로 하

는 당 정화운동을 전개하였고, 현금 이상 관료들의 이동이 눈에 띄었다.

정치민주화와 인권의식

인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전인대의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미약하나마 점진적인 정치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대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방청 등이 실제로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정책적인 부분에 인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과거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연합국의《정치권리와 공민권리의 국제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인권존중에 있어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고자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중국 내 인권존중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21세기 중국의 방향

1998년 12월 18일 중국공산당은 제11기 3중 전회 20주년을 맞이하여 20년 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9.8%의 경이적인 수준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국내총생산(GDP)이 1조 5백53억 달러



로 세계 7위, 무역규모가 3천2백50억 달러로 세계 7위, 외환보유고가 1천6백70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12억의 인구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8백 달러 선에 머물고 있지만 과거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성과이다. 중국정부는 계속해서 2000년까지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1인당 국민소득을 1천 달러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에 산적한 난제들이 무리 없이 해결 되어야 한다. 국유기업, 정부조직 및 금융부문 등 3대 부문의 개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실업대책과 정부조직의 재편성 및 금융위기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밖에도 작년에 발생했던 양쯔강을 비롯한 쑹화강(松花江), 년강(嫩江) 홍수피해를 수습해야 하고, 갈수록 확대되는 계층간의 빈부격차 해소,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 및 티벳 중심의 독립 움직임과 지역치안도 잘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국외적으로도 아시아 통화위기로 대중국 직접투자가 증가추세에서 주춤한 상태이고, 해외환경도 악화되었고, 동남아 각국의 평가절하로 중국의 위엔(元)화 역시 평가절하의 압력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극적인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난관을 잘 극복했다. 장쩌민은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당 지도하의 다당협력제, 정치협상제, 소수민족지역 자치제 등이 동요되거나 약화 내지는 포기되어서는 안 되며, 서방식 정치제도를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므로써 계속 당지도하의 정치적 안정을 강조하며, 서방민주세력의 영향을 반대했다. 그는 계속해서 “정치개혁은 활발하게 추진하되 경제, 문화개혁 및 경제발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개혁 목표로 ‘인민민주주의’의 발전, 공산당 지도하의 법률제도 개선, 정부기구 구

조조정을 제시했다. 또한 개혁·개방 문제에 있어 장쩌민은 중국이 세계와 접촉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개방은 중국 현대화와 국가정책을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즉 최근 중국은 정화운동을 통해 기강을 세우며, 경제개혁으로 인한 공권력 유실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이 있는 젊은 관료를 등용하여 계속 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자 한다.

향후 기독교적인 접근

중국은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주도해 나가고자 제15차 당대회의 전격세대 교체를 시행했으며, 경제 중심적인 지도방침을 제시했고, 그에 따른 조직개편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비록 국내·외 환경적인 어려움을 안고는 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방향을 견지할 것이며, 개혁개방 이후부터 활발했던 외국자본 유치와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전문가 초빙은 계속될 것이다. 중국은 최근 2년 동안 연인원 17만 명의 외국 전문가를 초빙했다. 외국전문가들의 중국 담당분야는 공업, 농업, 과학연구원 등에서 금융, 보험,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농업의 기초기반, 농업 현대화 실현, 국유기업 개혁 심화와 기업기술 개선, 과학입국 전략 실현, 중서부지역 발전 및 지속적인 발전가능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외국 전문가들을 초빙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중국은 물질보다는 기술을 통한 전문인 선교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月刊《亞太地域動向》, 1998년 12월 호.

《開放》1998년 11월號.

江氏〈「經濟安全論」與「江朱體制」〉, 爭鳴, 1998년 10월 호.

박미진/중국복음선교회〈중국 교회와 선교〉연구원

중국 지식인들의 변화

한운숙



서 중국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계층으로 존재하면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책임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를 모색, 실천했던 자들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耶賓, 1998). 특별히 현재와 같이 중국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 중국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바라는 방향으로 이끄는 자들이 이대이기 때문이다.

왜 중국 지식인들을 주목해야 하는가

현재 중국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별히 농촌에서는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생겨나 중국 정부를 당혹시키고 있다. 한편 중국의 도시에서는 어떠한가? 중국의 도시는 기본적으로 일반 도시들이 갖는 정치적인 환경으로 인한 영향이,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더욱 강력하여 전반적으로 농촌에 비해 잘 통제, 관리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종교정책 자료나 기독교 관련 자료 대부분이 중국의 농촌지역과 이들 지역에 산재하는 중국 전체 기독교인의 약 80%를 구성하는 가정교회에 대한 것이란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지식인에 대한 선교와 현재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중국 지식인들의 변화를 주목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중국의 지식인 계층은 사대부(士大夫)로

중국지식인들의 변화—「중체서용(中體西用)」에서 「진리추구(尋道)」로

전통적으로 중국의 지식인들은 민족주의의 정서가 강한 가운데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로 배척해왔다. 이들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의 관점에서 서방의 과학기술, 철학, 정치체제, 종교 등을 어떻게 중국에 잘 이용, 활용할 것인가로 고민하였으며, 서양의 문화, 문명이 중국의 본체(本體)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고 여겼다(張伯笠, 1998). 이는 중국역사 속에서 양무운동, 변법운동으로 표현되었으며, '5·4 시기'에 이르면 서양의 "민주"와 "과학"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지식인들이 해외로 유학을 하고 돌아온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현대 중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6·4 천안문 사태' 이전까지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들의 사상저변에는 이와 같은 사상체계가 지배하고 있었다(張伯笠, 1998).

그러나 1989년 '6·4 천안문 사태'는 중국 지식인들의 중국사회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소실시켜버렸다. 이들은 '문화대혁명'과 '6·4 천안문 사태'로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완전히 실망하였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허구성을 몸소 체험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서구의 발전된 민주정치, 경제,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중국이 부강해지고 세계강국의 대열에 오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자각하게 되었다. 6·4 이후 중국지식인들에게 가장 공통적인 현상은 바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에 대한 회의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장보리(張伯笠)같은 저명한 중국 지식인 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 중국 지식인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현재 중국지식인들의 가치관 및 태도

한편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 중국지식인들은 더 이상 공산당이나 관료로 진출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지난 20년의 개혁개방은 「관본위(官本位)」적인 중국지식인들의 사고를 확대시켜, 다양한 출로를 모색케 하였다. 현재 이들은 사업, 상업, 과학 기술계, 학계 등으로 다양하게 진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또 하나 대표적인 현상으로 대대적인 해외로의 유학과 출국 붐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중국지식인들은 과거와는 달리 여론의 천편일률적인 어조와 통제에 대해 반기를 들고, 현재 중국 공산당의 부정부패 및 정책에 대한 비판도 그 강도를 드높이고 있어 주목이 된다. '94, '95년에 대륙을 떠들썩하게 한 왕쑤(王朔), 자오핑야오(賈平凹), 쉬량잉(許良英), 장강강(張抗抗) 등 지식인들은 공산당의 여론통제 및 정책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였는데, 쉬량잉과 장강강은 심지어 정치범 석방,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도전장을 던

지기도 하였다(艾眞, 1994).

세 번째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인한 물질만능주의, 금전지상주의의 심리가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원래 중국의 지식인 계층은 사대부로서 과거 제도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기득권을 누리는데 반해, 개혁개방 시대에 들어서는 돈바람이 중국 지식인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의사, 선생, 교수로 만족하지 않는다. 지금 중국사회에는 모든 가치의 척도를 물질과 금전으로 삼고 자기 전문 분야를 버리고 "상업 세계에 뛰어드는(下海)" 중국 지식인들이 늘고 있어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 중국사회의 미래 건설에 대한 비전 제시 부분이 취약하여 중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중국지식인에 대한 선교전략적 대응

— 서양과 기독교에 대한 관심의 확대국면을 선용하자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 지식인들은 전체적으로 양극단으로 가치관과 그 의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바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자 하는 한 부류와 물질만능주의로 대표되는 또 다른 부류이다. 이 가운데 기독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선교적인 기회에 대한 포착과 기회의 선용에 대한 것이다.

특별히 '6·4'는 장보리 자신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중국의 지식인들을 깨우고 겸손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이후 중국 내부의 지식인들은 물론이요, 기타 해외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도 더이상 중국이 아닌 서구, 더 나아가 오늘날 서구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

면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지식인들은 선교적 열매와 효과가 가장 큰 사람들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영국 외에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지식인은 대부분 한두 번 교회에 나가 보았으며, 복음에 대하여 들어보았다고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도 중국 지식인 사회에 최근에 “문화 그리스도인(文化基督徒)”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문화 그리스도인”이란 한 마디로 아직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믿음의 고백과 회개를 체험하지 못했으며, 직접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기독교를 연구하는 중국 지식인들을 일컫는다(耶賓, 1998). 이에 따라 기존에 중국사역 경험이 풍부한 사역자와 단체들은 점증하는 중국지식인들의 기독교에 대해 오픈(OPEN)된 관심과 연구의 증가 국면을 선용하고, 또 해외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중국유학생이란 황금어장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러한 사역에 협력할 것을 여러 글이나 강연을 통해 부탁하고 있다(趙天恩, 1998).

중국 지식인에 대한 선교전략적 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지식인들이 어떠한 변화의 국면을 겪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있는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중국지식인들을 위해 어떠한 선교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하는지 다음 몇 가지 면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 지식인계층 중에서도 대상(TARGET)집단을 정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마민호 교수가 분류한 당적보유 여부에 따른 공산당원과 비공산당원지식인, 민족에 따라 한족과 소수민족 지식인, 출신지역에 따라 도시와 농촌지식인, 직업에 따라 대학생, 당간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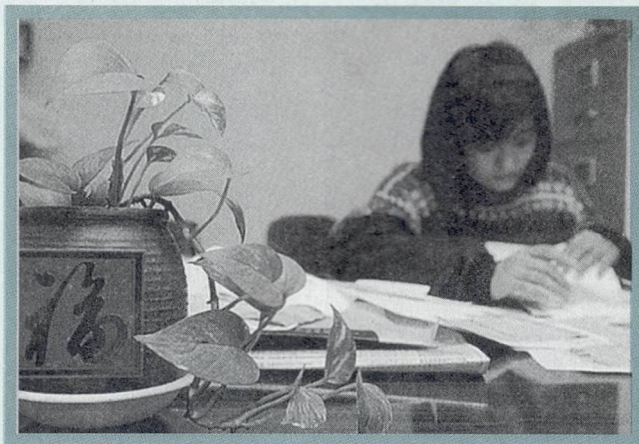
부 관료, 교수, 연구원, 기업인, 과학자 등이다(마민호, 1998). 또한 위에서 언급한 해외의 중국 유학생 집단도 이에 해당한다. 선교현장이 중국이든 아니면 서구나 국내이든 자기가 사는 집, 다니는 학교에서 그냥 알게 된 이웃과 학생을 대상으로 막연하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역대상과 사역의 내용을 분명히 정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국지식인 사역을 전개할 수 있다. 실제 국내에서 중국유학생들과 교수들을 전도하고 이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하는 일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둘째, 중국사회에서의 지식인들의 역할과 현재 이들이 어떤 변화 가운데 살고 있는지 현장에 입각한 중국지식인들의 필요와 이들의 FELT NEED를 잘 파악하여 이를 채워주는 선교의 방향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중국과 중국 교회의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의 출현과 양성을 목표로 하여 중국 지식인 사역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및 중국 교회와 유리된 채 한국 내에서의 신학훈련과 지도자 양성은 자칫하면 이들 중국 지식인들에게 사변적인 신학과 교만한 마음만을 심어주어 결국 중국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자생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이동화, 1998).

셋째, 중국 지식인들을 위한 사역의 내용을 지도자 훈련, 문서 출판, 중국문화를 기독교화하는 부분, 인터넷사이버 선교사로의 네트워크 감당 등 다양하게 전문화,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미래의 중국사회가 진정으로 복음화되고 기독교 문화화하려면 중국 지식인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는 사역자와 기관이 있어야 한다.

넷째, 중국 지식인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모델을 수립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 내에 부는 “문화 기독교인” 현상이 단순한 바람, 일시적인 붐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성육신 모델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 선교사나 사역자들은 한국의 중산층의 삶을 계속 선교현장에서 영위하면서, 개혁개방 시대



력의 사역정신과 그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여건상 정치적인 통제와 제한으로 이들에

더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 살고 있는 중국 지식인들에게 헌신과 지불해야 할 희생,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다섯째,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경우에는 이미 중국 내에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실행되고 있는 도시 가정교회의 '세포 소그룹 가정교회 모델'을 성공적인 사역 모델로 참고할 것을 권한다. 이 소그룹 가정교회는 전체 이들 소그룹 가정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팀과 각 소그룹의 핵심인물로 구성된 핵심팀 등 두 개의 지도자층이 있어 중국 도시와 캠퍼스 내에서의 새로운 교회모델로 정립되고있다(徐愛華 외, 1998). 이를 쉽게 설명하면 한국의 CCC를 예로 들어 각 캠퍼스 전임 간사와 각 순장에 비교할 수 있겠다. 물론 한국은 복음전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서 오는 많은 이점상 구체적인 운영이나 스타일은 중국과 많이 다르다. 이는 중국의 가정교회가 농촌뿐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지식인들 중 중국 지식인들의 사역에 비전이 있는 이들이 소규모 세포 분열 방식으로 중국의 도시가 갖는 특성에 맞게 그 안의 기회를 활용하는 선교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국선교 기관과 사역자, 현장의 중국 선교사, 기타 해외의 중국 관련 기관과 사람들 간에 진정한 연합과 분담, 협

계 사역을 전개하는 것이 힘든 실정이다. 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역을 전개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선교기관과 사역자들 간에 신중한 연합과 분담,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중국복음화와 선교방향에 대한 공동된 그림과 비전을 가지고 서로 중복 투자하지 않으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小羊, "位知識分子歸神的經歷", 『中國與福音』, 1998, 7~8.
 耶賓, "大陸城市的福音工作", 『守望中華』, 1998, 7~8.
 宇恩, "從共產黨員到基督徒", 『中國與福音』, 1997, 1~2.
 艾眞, "中國知識分子心理五大變化", 『中國與福音』, 1994, 3~4.
 張伯笠, "六四—中國知識分子的覺悟", 『中國與福音』, 1998, 5~6.
 趙天恩, "儲備中國教會未來的人才", 『中國與福音』, 1998, 3~4.
 마민호, "지식인 선교—캠퍼스 사역의 실제", 『중국을 주께로』, 1998, 11~12.
 메이펑즈, "공산당원도 예수를 믿는다", 『중국을 주께로』, 1997, 5~6.
 徐愛華 외, "중국 도시 가정교회의 새 모델과 교회발전—도시 세포 소그룹 가정교회 지도자와의 대화", 『중국 교회와 선교』, 1998, 6.
 이동화, "자생적 지도력 개발", 『중국을 주께로』, 1998, 11~12.
 쉬에콩치, "중국선교 문서사역 활성화 방안", 『중국을 주께로』, 1997, 3~4.
 타이더, "젊은 지식인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중국을 주께로』, 1997, 3~4.

중국 소수민족의 변화

김복중



1. 들어가는 말

단일국가로 지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나 거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세계를 이끌어갈 중심국가로의 기상을 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56개의 다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은,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이 전 중국 국토의 64.3%에 달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전 중국에 소수민족이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 13억 인구의 8%에 해당하는 1억 여 명에 달하는 중국의 소수

민족과 그들이 주거하는 소수민족지역은, 잠재하고 있는 경제적 효용가치¹⁾가 높아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와 문화의 특성 외에도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민족”이라는 사실이다. 단일국가에 1억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전세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막중한 복음전파의 책임감을 더하고 있다. 인구가 수천 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는 중

1) 김복중, 〈중국소수민족 경제와 선교적접근〉, 〈중국 교회와 선교〉제5호, 1998년 12월, pp. 225~235.

국의 소수민족은 비단 미전도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복음전파의 일반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교의 주요계획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서진선교²⁾의 중요질목에 있어 중국 선교의 한 부분인 소수민족선교가 하나님 선교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볼 수 있다. 소수민족과 소수민족 지역은 역사적, 지리적인 열세로 인하여 그간 내지의 한족지역에 비해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크게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전파 역시 미비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바람 속에 소수민족지역도 발전의 바람이 불어 더이상의 접근 불능의 신비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급변하는 소수민족지역으로의 복음전파의 기회와 환경이 주어짐에 따라 세계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복음전파의 자세로 중국선교 속의 소수민족선교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측면에서 변화하는 소수민족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살펴보기로 하자.

II. 소수민족의 변화

소수민족의 변화는 중국의 개혁, 개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간 죽(竹)의 장막 속에 가리워졌다가 개혁, 개방의 물결 속에 점차 외부세계로 노출되면서, 그간 다방면에 걸쳐서 내지의 한족지구와 한족에 비해서 낙후되었던 소수민족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하여 급속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

1. 정치적 변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소수민족의 개별 민족적 특성과 역사적 인수는 56개의 민족이 중화공동체라는 정체성의 범주 안에서 개별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자극하여 일부 민족에게 정치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티베트의 장족(藏族)과 신장의 위구르족(維吾爾族) 등은 분리, 독립³⁾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망명정부⁴⁾를 수립하여 활발히 중국정부에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당근과 채찍으로 분리와 독립을 “영토보존과 국가통일 유지”⁵⁾ 차원하에 한치의 양보없이 소수민족의 정치적 움직임을 허용치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에 한족화로의 과정을 밟고 있는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을 제외한 일부의 소수민족들은, 외부의 협력과 자체 민족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분리, 독립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이며 이에 중국정부는 자체의 큰 변화가 없는 한, 한족화 추진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강력한 “무력”으로 소수민족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치하리라 전망한다.

2. 경제적 변화

소수민족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 변화이다. 개혁, 개방의 가장 큰 변화가 경제적 변화이기에, 이에 영향을 받은 소수민족의 경제적 변화는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다. 소수민족의 경제적 상황은 크게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순농업경제, 2)수렵과 목축 경영, 3)농업경제위주, 4)목축업경제위주, 5)농업과 목축업

2) 김복중, <소수민족선교의 필요성과 선교전략>, <중국을 주께로> 1998년 7~8월호, pp.84~85.

3) 김복중, <신장위구르자치구지역의 제반환경과 주변국가>, <중국 교회와 선교> 제2호, 1997년 4월, p. 250.

4) 중국 내,외에서 위구르족은 분리, 독립을 위하여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하여 중국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의 반체제인사들은 13일 터키 앙카라에서 민족대회를 열고 사실상의 신장 망명정부를 세웠다고 홍콩신문들이 14일 보도했다. 11개국에서 모인 신장 반체제세력 대표 3백여 명은 신장을 독립시켜 동(東)투르크스탄을 건설하기 위해 터키에 ‘동투르크스탄 민족센터’의 수립을 선포했다. 이 회의의 한 참석자는 이 민족센터는 사실상 망명정부”라며 다만 시기가 성숙되지 않은 데다 터키 당국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망명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동아일보 98년 12월 14일) 티베트의 장족은 달라이 라미를 수반으로 한 망명정부를 인도에 수립한 바 있다.

5) 이성국,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중국 교회와 선교> 창간호, 1996년 8월, p.180.

경영, 6)농업과 임업 경영, 7)상업을 위주로 한 농업 경영, 8)상업, 농업, 수공업 경영으로서 소수민족의 경제가 농업위주임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은 소수민족의 경제를 농업에서 농공업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로서 허베이성은 스투자족 먀오족 자치주(湖北省恩施土家族苗族自治州)의 경제사회발전론을 살펴보자.

1)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1983년에서 1993년 간에 본 자치주의 국민 생산액의 변화를 보면, 1983년에 17.67억 인민폐에서 1993년에는 33억 인민폐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이 되고 있다.

2) 기초산업과 기술의 발전

본 자치주 내의 도로 개설거리가 1992년 말까지 8100km가 되어, 10년 전보다 무려 3414km가 증가되었으며, 기본적으로 318호, 209호 국도를 중심으로 현(縣), 구(區), 향(鄉)에 이르는 교통망이 형성되었다. 통신에 있어서도 본 자치주 내의 현급 이상의 도시에 국제, 국내자동 전화를 할 수 있는 통신망이 구축되었다. 따라서 에너지, 교통 등 기초산업이 발전하여 본 자치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3)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비수준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

1983년에서 1993년 동안 농민의 평균수입이 256원 인민폐에서 479원 인민폐로 증가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주민의 평균저축이 20원에서 250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도시, 농촌주민의 평균주택면적이 14평방미터에서 62평방미터로 증가하였다.

4) 농촌의 경제개혁과 개방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지역인 소수민족지역에 35개 소의 농촌종합개발시험구를 운영하여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켰다. 1993년 본 주의 일인

당 평균수입이 479원 인민폐이었지만, 개발시험구는 530위안(元)에 달하고 있다. 대외경제 교류도 활발하여 은스홍마오 경제개발구(恩施紅廟經濟開發區)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등 농촌경제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 과학기술과 교육, 사회사업의 발전

10여 년 간 367개 항목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으며, 그 중 25개 항목은 성급 수준이며 2개 항목은 국가급 수준의 과학기술이었다. 300여 개의 공업신상품이 개발되었다. 기초교육, 성인교육, 직업교육 등 고등교육이 발전하였으며, 가족계획의 실시로 본자치주의 인구출생률이 감소하였다.⁶⁾

이와 같이 소수민족의 경제적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소수민족을 문명의 사회로 이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사회적 변화

소수민족의 사회적 변화는 시대의 영향하에 다방면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공업화, 관광지의 개발 등으로 민족지역의 도시화 현상은 소수민족사회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회적 변화의 시기와 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공산화 이전(1949년)

중국의 근대화 시기에 있어서의 소수민족의 사회적 상태는 전근대적인 원시사회의 모습이 다분한 봉건사회로서, 소수민족의 사회는 봉건사회의 영향으로 한족지역과는 다른 고유문화와 전통이 존재하는 사회구조를 이루었다. 봉건통치제도인 토사제도, 씨족공동체제도, 산관제도, 봉건영주제 등 다양한 통치제도와 각종 원시종교와 풍습 등은 소수민족들을 외부세계의 문화 접근을 차단하여 중국 내에 근·현대가 동시 존재하게 되었다.

6) 平措汪傑主編,《中國民族自治州投資指南》, (北京:中國藏學出版社, 1995), pp. 24~26.

2) 문화혁명(1964~1976)

공산화 이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중국정부는 계급과 봉건, 미신 등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 등 심지어는 민족복장을 입는 것조차 금지함으로써, 철저하게 소수민족의 전통문화와 풍속 등을 파괴하였다. 10여 년의 기간 동안 소수민족의 전통문화와 풍속 등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으며, 이는 소수민족들의 삶의 터전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심지어는 민족 동질성의 상실을 가져왔다. 이 시기는 소수민족사회를 근대에서 현대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기도 하였다.

3) 개혁개방 이후(1978)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의 전통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소수민족 문화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전통문화 등을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소수민족 사회는 급속히 현대화 사회구조로 발전하여 지금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사회양태로 존재하고 있다. 계속적인 현대화로 인하여 소수민족지역은 내지, 한족화 성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소수민족 사회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4. 종교적 변화

일반적으로 이슬람교, 라마교, 샤머니즘 등 전통종교에 강한 소수민족들의 종교양태 역시 공산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전과 쇠퇴를 거쳐 오늘날의 소수민족 종교는 민족과 지역별로 정착을 하여 교세확장을 꾀하고 있다. 유물사관과 물질주의는 이들 기존 종교계에 영향을 미

쳐 신분과 연령⁷⁾에 따라 본 민족의 종교로부터 이탈을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압박을 받았던 제종교들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인정하는 일정 범위 안에서 보호와 통제를 받으면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교⁸⁾, 라마교 등은 민족적, 지역적 특색을 이용하여 자기 기반의 공고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는 진입역사가 짧지만, 동북, 서남, 중남지역의 일부 민족들에게 전하여져 발전하였다. 그러나 기존 종교의 강세와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간신히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교인마저 세속화와 계속적인 양육부족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III. 전략적 대응

다가오는 21세기 안으로 소수민족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서진선교가 중앙아시아로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전제로, 우리는 중국의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제자삼아 하나님의 서진선교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전략⁹⁾ 이외에 창의적이며, 현실적인 전략들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역전략을 도출하여 봄으로써 변화하는 소수민족지구와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인적(人的), 경제적(經濟的), 사역적(使役的) 대응을 통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적 대응

어느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한지역에서의 사역은 먼저 제한된 지역에 적합한 준비된 사역자가 필요하다. 중국의 소수민족 사역

7) 김복중, 〈칭하이성의 제반환경과 미전도민족〉, 《중국 교회와 선교》제3호, 1997년 10월, pp. 208~209.

8) 신장위구르자치구, 칭하이성, 간쑤성 등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슬람교도들은 간쑤성의 린사후이족자치주(臨夏回族自治州)의 린사(臨夏)를 중국의 메카로 선포하고 중국의 이슬람화를 위해 그 세력을 활발히 확장하고 있다.

9) 위의 글 주2) pp. 86-87.

김복중, 〈중국소수민족선교전략〉, 《미션저널》통권25호, 1998년 봄, pp. 39~40.

은 중국 내에서도 제한된 사역지이기에 좀더 준비된 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현지인에게서 나온 것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선교사로부터 파생되고 있음을 볼 때에, 선교사의 자질이 현지 복음화와 나아가 하나님나라 확장에 중요 인수가 되고 있음을 본다. 바라기는 다음과 같은 준비된 사역자가 제한지역 사역을 감당하였으면 한다. (1)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자. (2)기초훈련 및 언어훈련을 충실히 받은 자. (3)건강하고, 성격이 원만하며 인내력과 친화력을 겸비한 자. (4)지혜롭고, 현장적응과 신뢰가 있는 자, (5)영웅심리가 없고, 영적 능력을 가진 자.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사역자들이 민족지역에 들어가 사역을 한다면, 변화하는 소수민족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리라 본다.

2. 경제적 대응

소수민족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가 급속히 전통, 보수에서 세속, 개방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복음전략 역시 변화하는 소수민족의 사회와 생활양태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중국의 개혁, 개방의 여파가 오지의 소수민족에 까지 밀려옴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각급의 소수민족의 변화에 있어서 경제적 변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장접근과 정착에 있어서 경제적 접근은 사역의 안전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 방법¹⁰⁾을 통한 접근은 효율적인 선교에 기여할 수 있다.

3. 사역적 대응

1) 선교사 사역의 변화

지금까지의 소수민족에 대한 사역은 선교사가

직접 소수민족지역의 대도시에서 도시 내 지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학습과 이들을 통하여 연결된 현지 교회의 지원 등이었다. 한족지역도 마찬가지로 현지 교회와 현지 복음화에 필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할 사역자이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자신의 환경으로 인하여 말씀 공급보다는 물질공급에 주력함으로써, 더이상의 사역의 진전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능한 한 제한지역에 준비된 사역자가 말씀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개인의 자질향상을 피하여야 하며, 훈련 역시 사역지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지역 훈련과 아울러 사역언어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어 사역자들이 현지 교회 내로 들어가 현지 교회 지도자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비전제시 및 실질적인 지원

중국의 기독교인 대부분이 한족이며 소수민족지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한족임을 고려한다면, 한족 교회와 성도를 통한 소수민족선교를 추진하여야 한다. 실제로 한족에 의하여 소수민족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기존 교회(삼자, 가정포함)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계선교와 소수민족선교에 대한 비전제시를 통해 이 사역을 위하여 헌신자를 배출하며, 소수민족지역에 사역하기를 원하는 현지 사역자를 지원하여 준다. 한족사역자 역시 소수민족지역에서는 이방인이기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¹¹⁾을 개발하여야 한다. 최소의 지원기금을 통하여 현지 사역자가 생활과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민족지구의

10) 위의글 주1) pp. 244-251.

11) 위의글 주2) p. 86.



중요 지점에 적합한 사업을 통하여 신분확보와 함께 재정자립을 가져올 수 있는 기금조성을 하여야 한다. 이는 현지 교회와 사역자가 더 이상의 외부의 물질지원이 없어도 그들의 복음전파 전략대로 소신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V. 맺는 말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정책은 민족의식, 지역적 환경, 각종 종교, 풍습에 의해 단혀진 소수민족들의 빗장을 풀어놓음으로써 복음전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이에 우리는 변화된 소수민족의 제환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현재의 소수민족 환경 속에서 복음의 접촉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제한지역 사역자의 훈련과 파송, 현지 교회와의 협력, 사역자에게 장기사역 기반 제공과 현지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방식¹²⁾ 등은 소수민족선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인수이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소수민족사역에 참여하여야 비로소 변화하는 소수민족에게 “천국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복중/선교사 · 중국소수민족연구소

12) 위의글 주1) pp. 244~251.

삼자교회의 신학

주피득

II. 중국 삼자교회의 신학사상

공산당이 들어선 초기에 공개적으로 출현한 신학은 서구열방의 제국주의적 기독교를 축출하고, 오직 공산당을 중국사회 전면(全面)의 절대 지도사상으로 받아들이는 데 공헌하는 정치적인 신학사상으로 여겼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은 공산당 치하의 새로운 현실을 무조건 지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황화(contextualization)와 토착화(indigenization)라는 개념을 이용하기 시작한 신학(물론 상황화나 토착화 자체는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이 그 중심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상황화된 신학사상이 실제로 중국의 삼자교회의 모든 부분과 지도자들 및 성도들의 생각을 모두 사로잡거나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에 그들의 신학 자체를 논할 때 다루겠지만, 이것은 또다른 문제이다.

여하간 1950년대의 소위 삼자교회의 기독교 혁신운동은, 오요종을 비롯한 친공산당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치적 기독교운동이다. 이 운동은 공산당 치하에서 공산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만, 당시의 기존 교회와 신학에 큰 충격과 함께 새롭게 바뀐 현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던 운동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서명운동, 공소운동, 사회주의식 개조운동, 삼자조직 가입운동, 교회연합운동 등은 중국 전국의 기독교인과 교회에 어떠한 동기와 모습 속에 서건 소위 거듭남과 새로운 빛을 받고 체험하

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거듭남'이란 사회주의 정치현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각함으로써 얻게되는 사상적 각성을 의미한다. 거듭남의 참 결과는 모든 제국주의와 장개석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배척과 척결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 의한 인민의 입장과 애국주의의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빛'이란 사회주의 정치현실의 상황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갖게 되는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말한다. 그러므로, 오요종을 비롯한 삼자운동 즉 기독교혁신운동(삼자교회 초기)의 인물들은 곧 삼자교회 신학사상의 특성과 기초를 세운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신학은 사회주의 정치현실의 관점에서 모든 전통적 신앙과 신앙을 재해석한 새로운 신학을 강조하였다. 결국 중국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공산당이 공인하는 삼자교회신학은, 중국의 정치적인 신학의 기초를 세웠다(왕쓰웨이:1996, P.73).

A. 신학의 개념

삼자교회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신학은 기독교인의 영성체험의 총결이라고 정의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은 기독교인의 영성체험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 교회의 신학이란 중국기독교인의 영성체험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신학의 정의에 대한 근래 삼자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이 표현한 정의를 살펴보면, '역대의 많

은 문화배경이 다른 기독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영성체험의 총결, '교회와 사고하고 있다', '교회 영성체험의 총결', '교회신도의 신앙실천 혹은 영성 실천에 근원을 두는 동시에 역시 그것을 지도하는 기독교이론', '교회 혹은 크리스천 개인이 교회와 자기 민족(인민대중)에 대한 관심과 양들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종의 숙고', '상황화의 사고' 등으로 표현한다(왕쓰웨이:1996, P.102~106).

B. 신학의 임무 및 주요 과제

중국 공산당정부의 수립으로 달라진 중국사회의 정치현실은,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영성체험을 갖게 되거나 갖도록 요구받게 되었고, 특히 정통신앙과 신학에 대한 재고 내지는 회의를 하도록 강요받게 되었다. 삼자교회 신학자들은 모두 신학사상의 재사고와 새로운 신학사상의 수립이 시대적 요청에 의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삼자신학자들은 이렇게 달라진 그들의 현실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주어진 신학연구의 주제와 임무가 화해라는 것에 있다고 본다(딩광산:1984, P.10, 1986, P.6). 그리고 이 화해란 이전에 인민과 떠나 있던 그리스도인이 다시 많은 인민과 하나가 되고 화해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통해, 기독교가 인민과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때 즉 인민의 편에 설 때 비로소 화해의 기초가 형성된다고 한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의 주제와 임무를 화해에 두고 한 쪽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한편으로는 인민과의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그래야만 기독교와 그 메시지는 존속이 되기 때문이다(왕쓰웨이:1996, PP.106~109).

여기서 인민의 편에 선다는 말은 바로 마오쩌둥이 규정한 인민 즉 노동자, 농민, 도시

소자본가와 민족자본계급을 말한다. 즉 삼자교회 신학의 출발점은 곧 노동자 농민의 신학이고, 따라서 자본주의 계급의 신학과는 반대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삼자교회의 신학도 역시 계급투쟁의 신학 즉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신학으로 하락하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신학사상이 어떻게 현대중국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거대한 변혁에 대하여 응답하느냐가 현재 중국신학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하면서 「신학적 대답이 요구되는 9가지 질문」과 「신학적 재고가 요구되는 4가지 내용」과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沈以藩: 1985).

1. 「신학적 대답이 요구되는 9가지 질문」

- (1)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그가 구원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모든 인민에게도 베풀어지는지?
- (2)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를 통해서만 그의 사랑을 표현하시는지 아니면 모든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의 사랑을 표현하시는지?
- (3) 인간의 본성이 모두 죄악으로 타락하여 어떠한 문화창조와 사회의 발전도 불가능한지, 아니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여전히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지?
- (4) 모든 물질적 발전과 성취는 사탄의 일이며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려는 노력인지, 아니면 이러한 성취나 발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구현으로 보아도 되는지?
- (5) 인간은 마땅히 현실세계와 모든 물질 세계를 버리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노력도 포기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인간의 현실생활 속으로 들어가 물질과 문화생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하나



어느 삼자교회 예배드리는 모습

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6) 사람이 재난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재난과 고통은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재난과 고통의 제거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기도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인지?

(7) 하나님과 죄악세력의 충돌 가운데서 오늘날의 세계가 모두 다 죄악의 세력에 의해 통치되었기에 반드시 전세계를 멸망시켜야 천국이 강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최고 높은 분으로서 시종(始終) 역사의 발전을 주관하시고 계신지?

(8)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만의 화해인지 아니면 전 인류사회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인지?

성육신은 단지 개인의 영혼구원에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삶과 교회생활에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

(9) 믿음과 사랑 신앙과 행위 구원과 도덕 신 인간관계와 인간관계는 절대적으로 대립되는 것인지 아니면 융화되어 일치를 이루어야 하

는지?

2. 「신학적 재고가 요구되는 4가지 내용과 과제」

(1) 신(新) 중국 수립 후 나타난 사회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사회 출현 이 새로운 인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이 공산당원이라는 사실 등을 신학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2) 소수의 교회 목사와 사역자들이 여전히 이러한 사회변화가 신학에 가져다 준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친미반공(親美反共)적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민주의적 잔재는 반드시 그리고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될 것이다.

(3) 1950년 가을에 일어난 삼자운동에서 제기한 소위 '자전(自傳)'은 누가 전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전하느냐의 문제로서, 이전의 중국기독교의 현실 도피적인 사상을 재고해보아야 한다. 또한 중국 기독교인에 의한 신학사고의 길을 개척하여야 한다.

(4) 기독교인의 윤리문제로 세상을 초월하고

정치를 초월하는 사상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등의 문제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C. 신학의 방법론

삼자교회가 그들의 신학연구의 방법론으로 이미 공식 발표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 간접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분명한 신학방법론과 틀을 가지고 있다(왕쓰웨이:1996, PP. 108~113 & 金陵神學文選:1992).

1. 그 출발점으로서,
 - (1) 중국기독교인의 영성체험 특히 일반적이고 대중성 있는 영성체험으로부터 시작하라.
 - (2) 서재에서 시작하지 말고 역사실천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라.
 - (3) 인민의 입장에서 시작하라.
2. 중국공산당의 노선과 국가의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3. 사회주의라는 새 환경에서 얻어진 '새로운 빛(新的陽光)' 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4. 상황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5. 서양신학의 틀을 벗어버리고 중국대륙의 성도들이 해야 하며, 기성교회의 현실 도피적인 이원론적 사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학 체계(즉 사회 혹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D. 그들의 신학

1. 삼자(三自)사상

1980년 10월에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중국공산당과 인민정부의 영도 아래 전국의 기독교 신도들은 단결하여 조국을 사랑하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치, 자양, 자전의 삼자를 지지해 나가자”고 하는 주요 취지를 발표하였다.

삼자(三自)란, 중국 교회 관리에 있어서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철저히 차단하고 중국인이 직접 중국 교회를 관리해 나가는 자치(自治)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하고 중국인이 직접 중국교회의 경제를 담당하는 자양(自養), 복음전파의 면에 있어서 제국주의와의 관계와 제국주의의 잔재적인 사상을 철저히 제거하며 복음을 중국인이 스스로 전하려는 자전(自傳)을 말한다.

그들은 애국애교(愛國愛教)를 항상 강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애국(愛國)이란 공산주의 정권을 지지하며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적극 건설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사랑하자는 것이다. 애교(愛教)는 그들이 원하는 바 삼자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중국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산당과 공산당 정부의 종교정책을 철저히 시행해나가는 방법을 통한 애교(愛教)를 의미한다.

평가: 삼자운동의 사상은 공산당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적 환경 속에서 나온 정치운동적 성격이다. 겉으로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을 일관성있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위에 언급한 삼자의 주요 취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중국 성도들이 일치단결해야 할 환경에서 영도자는 중국공산당과 인민정부의 신복일 뿐,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 기독교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적 환경과 성향 속에 일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할 지라도 공산당의 정책과 관점에 의해서 모든 사실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중국 교회는 스스로 관리하고 재정을 스스로 책임지며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수준 정도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런

게 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선 과거 선교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과거를 반성하고 토착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중국 교회와 외국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 세계의 보편적 교회 내의 순수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바울과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구체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스스로 장로를 안수(물론 장로의회에서) 하고, 그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사역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던 많은 사실들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그들의 신학표현 즉, 상황화 신학의 예

(1) 성경관

딩광선(金陵神學文選:1992)은 삼자교회의 성경관과 관련된 그들의 신학적 전제를 대략 아래의 7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 ㄱ. 공자사상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인본주의적 윤리문화의 전통과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긴 하면서도 종교란 별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사상.
- ㄴ. 이전의 서구선교사들과 근본주의들과 복음주의자들은 특별히 성경을 중시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ㄷ. 과거 몇 년 간 특히 문화혁명 기간 중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현재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 ㄹ. 중국 교회는 현 교회구조상 종파관념을 이미 없애버렸다. 광범위한 연합이 형성되었지만 동시에 신학의 창조성을 연합하고 또 제한한다.
- ㅁ.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종교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있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중국 종교가 상당히 많

은 부분에서 사회주의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ㄴ. 또 그동안 중국 내의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성경에 대한 그들의 관념이 새롭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성령께서 항상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조명을 강조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경본문 이해의 어떤 특정한 면만을 강조하는 선을 넘어서 이제 참으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존중하며 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도 이제는 적극적이다.

ㄷ. 성경 전체가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의 특정 부분이 특정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난 40년 간 중국 기독교인들은 특히 아래 네 가지 종류의 성경구절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고 본다.

첫째. 고난 중에서의 구원에 관련된 구절들(마 5:11-12, 시 23). 문화혁명 때 혹은 그 후의 시기에 큰 은혜를 받음.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들(오랫동안 중국 교회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 하나는 개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 또다른 하나는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개인영혼 구원보다는 산상보훈과 같은 교훈은 가르치시는 교사이신 예수를 경배하는 것(산상보훈 골 1:16-17, 히 1:3, 요 1:9).

셋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들(요 3:16, 요일 4:16, 마 6:26-29). 지나치게 죄와 타락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아직도 지니고 있으며 그래서 범죄는 은혜를 초월하지 못한다(롬 5:15-20).

넷째.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관한 구절들(요 17, 고전1, 엡4:1-4. 중국인은 종파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연합을 원한다).

평가: 덩 주교가 표현한 성경관을 보면 상당히 교묘한 방법으로 공산당을 지지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애쓴 흔적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중국 내 복음주의자들(그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는)의 성경관 중에서 새로운 조명 마저도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한다. 물론 그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근본주의자들이 의미하고 설명하는 바와 같은 새로운 조명이 실제로 신앙의 타협을 보이는 복음주의자 혹은 근본주의자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위의 성경관과 관련된 덩 주교의 표현 이외에 중국 교회와 신학적 입장과 관련된 13인의 글을 모은 「기독교와 중국현대화」(殷琦, 1995)라는 책에 나타난 삼자교회의 신학을 대략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2) 신론

전 인류의 신관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신학사상은, 하나님을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으로 보는 편협한 관념에 반대한다. 종파주의적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 신도와 비신도, 영적 신도와 비영적 신도로 사람을 구분하여 하나님을 영적 신도의 하나님으로만 묶어두던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교회지도자들은 신도들이 교회 밖의 모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물을 보고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도록 해야 한다.

평가: 온 세계의 정통적 기독교회는 하나님을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으로만 보지 않는다. 실제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을 그것이 성경

에서 분명히 언급하는 죄악된 행동이나 사고가 아닌 한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이 받아야 할 참 사랑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구속사역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참으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사랑을 맛볼 수 없다. 더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공해주시지 않았다. 물론 중국 전통적 기독교회가 어느 정도 이원론적 피안적인 천국만을 소망하는 듯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적인 성격을 다분히 나타낸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교회지도자들은 신도들이 교회 밖의 모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물을 보고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의 동기 배후에는 잘못된 이원론을 고치려는 뜻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그 목적보다는 오히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을 간파하고, 단지 보편 구원설과 자연신론적 구원관이나 종교 다원주의적 구원관적인 결과를 연결시키려는 목적의 신관으로 여겨진다.

(3) 기독교론

우주적 그리스도의 사상은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구원한 것이지만 단지 신자만을 구원한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 택자(擇者)에 대한 관심으로 제한된 그리스도의 관심을 우주적인 그리스도관으로 확대해서 보아야 한다.

중국신학은 특별히 기독교론 중심의 신학이다. 즉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계시로부터 출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면에 치중해 있다. 이러한



기독론은 형제 사랑을 만인사랑으로 확대하고 예수의 형상이 신도들과 사회와 국가인민을 위해 공헌하도록 고무시킨다.

(4) 인간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범죄(원죄)를 초월하며, 인성이 결코 완전히 몰락해버리지 않았다. 본래 중국 전통문화에는 원죄라는 개념이 없으며, 오히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중국 교회는 지난 30~40년간 원죄론을 강조하지 않았다. 중국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죄를 강조하는 대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진 존재로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현재 중국의 이러한 인간론은 중국 전통문화의 인성론과 부합될 뿐 아니라 중국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소극적이며 염세적, 비관적 정서를 벗어나고 적극적인 인생관을 갖게 하며 자발적으로 현실 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고무해 준다.

평가: 적극적 인생관과 적극적 사회관을 가

지고 사는 것은 성경적이고 지금까지 정통적 복음주의적 기독교회들이 믿어왔으며, 동시에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죄를 거론치 않고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수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치 않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할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났고, 그것으로 인해 범죄하였으며 그 결과 사망이 생겼다.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한다.

(5) 구원론

사람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인간의 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 달린 것이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 중국 교회는 복음의 기초를 죄악에 두고 교회의 앞길을 인류의 절망 위에 둔 구원론을 반대한다. 오히려 인간이 완전히 손상되어야 하나님을 찾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의 면류관이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으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이 구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

(6) 종말론

전천년설에서 후천년설로 바뀌어야 하는데, 후천년설이 더욱 중국상황에 맞는 이론이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져 갈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958년부터 중국 교회의 각과는 연합예배를 실시함으로써 교파후 시대에 들어섰는데, 이는 세계 초유의 일이다. 장래에 우리 주님의 양들이 한 무리로 모이는 것은 아마도 중국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고, 중국기독교회가 연합의 발단이 될 것이다(家玉明). 중국 교회

가 순조롭게 교파후시대로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중국 교회가 비교적 젊은 교회로서, 서구의 배타주의적이고 교파주의적인 영향을 덜 받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 교회의 연합원칙은 중국문화가 구대동존소이(求大同存小異: 큰 공통점을 추구하면서 작은 차이점도 보존한다.)의 사상을 주창하는 것에 기초한다. 교회가 내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에게 유익이라는 내용의 구호는, 중국기독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영성과 경건을 배양하도록 고무한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도와 요구이며 사회주의는 바로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성경정신에 위배되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히 부합된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사회주의를 옹호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가난함과 부족함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적이지 아니다. 가난과 고행, 가난할수록 영성이 강하다는 신조는 해롭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진정한 기독교란 생산과 경영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지 빈곤함으로 신앙이 완성 되는 것은 아니다.

평가: 후천년설은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신학계에서 가장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회주의 이론과 너무나 흡사하므로 그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교회의 연합이 아무리 중요해도 기본적으로 사도적 신앙의 공통적 고백이 없으면 무조건 연합이 될 수 없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데도, 사회주의에서의 인민을 위하는 일과 성경에서의 이웃사랑이 모든 면에서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황화는 필요한 것이고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이지만, 성경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저 하나의 이데올로기 정도로 전락시키는 것은 큰 범죄

이다. 이미 언급된 삼자교회 신학은 정치적 혼합주의적 신학이지 제대로 된 상황화 신학이 아니다.

(7) 교회론

중국 교회는 최근 10년 간 신학사상이나 교회 조직에 있어서 그 초점을 사회참여의 방향으로 대폭 조정하여 시대조류에 적응하고 사회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상황화 방면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중국 교회에 있어서 남은 문제는, 현재 갖추어 놓은 기초 위에 어떻게 하면 남미의 해방신학과 한국의 민중신학처럼 완전하고 국정에도 적합한 신학체계를 세우느냐, 어떻게 하면 중국정세에 알맞은 교회체제를 창출해 낼 것이냐 하는 것이다.

평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도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신학과 실제 조직 행정에서 공산당의 종교정책과 통일전선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시너 역할을 하려는 것이다. 아니면 그 분위기 속에서 그저 목숨이나 유지하려는 정도의 사상이다.

앞으로의 그들의 방향은 성령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다면 더욱 그런 생각을 확실한 이론으로서 공고히 하는 과정을 견게 될 것이다. 복음의 핵심을 빼고 사회참여를 말한다든지, 사랑과 구원 평화와 화해를 말하는 것은, 성경의 절대영감과 권위를 믿지 않는 인본주의적 신학에서 나온 결과이며, 사회주의와 성경교훈을 무조건적으로 융합시키려는 잘못된 시도이다.

(다음호에 계속)

주피득/중국선교사

농민 저항의 역사가 살아 있는 마오쩌둥의 고향-후난(湖南)성의 교회

약함과 가난을 넘어서 세상의 소금 되어



현대사를 이끈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낸 지역인 후난성을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이란 평을 듣고 있다. (사진은 어느 삼자교회의 예배드리는 모습)

당은 후난의 가난한 농민과, 후난과 장시(江西)접경 지대의 난민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다.

한편, 중국현대사의 굵직한 지도자들이 이 후난지역에서 배출되었는데, 마오쩌둥(毛澤東), 리우샤오치(劉少奇), 펑더후아이(彭德懷), 후야오방(胡耀邦)(후야오방은 산시(陝西)성 출신이나 이후 후난의 중요 지도자가 되었다.) 등을 비롯해 최근 중국 개방의 신 기수로 총리에 기용된 주룽지(朱鎔基)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후난인들의 자랑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강한 농민 저항운동과 현대사를 이끈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낸

동정호(洞庭湖)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후난(湖南)이란 지명을 갖게 된 후난성은 인구 6천 3백만 명으로, 쌀과 생선, 천연광물 등이 풍부한 중국내륙의 가장 비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명조와 청조 시기 곡창지대였던 후난성은 풍부한 농업생산력에 주력하여 많은 이주민을 불러들였으나, 19세기에 이르러 인구과밀로 인한 토지 부족을 겪게 되었고, 더욱이 가혹한 지주제는 광범한 중국 농민과 산지 소수민족들의 항거를 낳게 되었다. 계속된 절망적인 경제사정은 급기야 19세기 중엽 태평천국의 난을 야기하였고 (청말 홍수전(洪秀全)이 이끈 중국역사상 최대의 농민혁명 '태평천국의 난'은 1864년 중국번(曾國藩)에 의해 후난성에서 막을 내렸다-편집자 주), 이후 1920년대 중국 공산당 운동을 이끌었다. 중국 공산

지역인 만큼 후난인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복음 전파가 늦어 폐쇄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오늘날 이곳에는 중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5대 종교(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도교)가 모두 있고, 특히 기독교가 농촌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후난성 기독교협회와 신덕기금회

후난성에는 등록된 신자 20여만 명이 800여 군데의 교회와 처소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곳의 대부분이 산간, 농촌지역이라, 신자들도 젊은 층의 남녀신자보다 노인신자가 주를 이룬다. 성내에는 32명

의 목회자와 37명의 신학교 졸업생 그리고 천여 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후난성 기독교협회 회장이자 성경학교 교장인 야오 쩡이(姚增誼) 목사는 문화대혁명 이후 〈남경신학교〉가 다시 열렸을 때 신학수업을 받은 중국 교회 신세대지도자이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후난성 기독교협회는 복음전파와 사회봉사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일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위해 1990년 〈신덕기금회(信德基金會)〉를 설립했다. 이는 다른 성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가난한 농촌이 대부분인 후난성의 실정에 기초하여 교회는 적극적으로 사회개발을 돕고자 조직한 기독교 재단이다. 그러나 의욕만큼 일을 추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 말대로 “말이 기금회일 뿐 사실상 기금도 충분치 않고 단지 기독교인들이 사회개발과 봉사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들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주로 가난 퇴치,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어린이 학교에 돌려보내기, 농아학교 지원과 전 성에 38개나 되는 나환자촌을 돕는 일 등이다. 신덕기금회 회장 자오위안하오(趙元灝) 목사는 후난성에 유달리 나병환자들이 많은 이유로 가난을 우선 꼽았다. 위생관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만큼 가난하고, 게다가 습한 기후는 나병을 쉽게 전파시킨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후난성의 지도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환자촌은 사람 얼굴로 치면 코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즉, 중서부의 산간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여 외부에서도 자주 접촉하기가 힘든 곳이기도 하다. 정부는 20위안(元)에서 150위안(元)에 이르는 보조금과 음식 및 의료품을 지원하지만, 일반적으로 나병환자를 꺼리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이들은 외부에 나가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을에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덕기금회〉는 일 년에 한 번씩 이들이 각 마을에 음식과 의약품을 제공하고 이동진료를 행한다.

후난성 〈청력언어회복연구센터〉(이하 회복센터)의 청력장애아동 훈련교육 또한 신덕기금회의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현재 후난성에는 7세 이하의 청각장애 아동수가 4만에서 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후난성 장애인 연합회 소속의 이 회복센터는 1988년에 설립되어 97년까지 400명의 어린이들에게 청력과 언어를 찾아주었으며, 현재는 15명의 어린이가 훈련 중에 있다. 이 청력장애 아동들은 완전히 농아가 아니기에 3세 이전에 훈련을 시작하면 청력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센터에서는 수화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 10명 중 9명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곳 교육의 특징을 잘 드러내준다. 이 회복센터에는 현재 6명의 전문교사와 14명의 보조교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1994년부터 신덕기금회의 도움으로 천주교회 부속 건물에 자리잡은 회복센터는, 처음에는 한 해에 두 번씩 옮겨야 했을 정도로 장소문제로 많은 고생을 했다. 회복센터 샤오리신(肖立新) 주임은 정부의 도움을 얻어 후난 성경학교 근처에 새로 건물을 마련, 훈련을 마치고도 정상적으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한 학교로 쓰려고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후난 성경학교

후난 성경학교는 191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바이올라(BIOLA) 대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시작, 후에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폐쇄되었다가 1990년에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 때 이미 이전의 땅과 건물은 성 정부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백만 위안(元)을 보상받아 현재의 건물을 마련하였다. 현 교사(敎舍)가 비좁아 성경학교는 바로 옆에 5층 짜리 신 교사를 건축 중이며, 여름에 완공되는 대로 9월에 새 학생들을 맞을 예정이다. 신 교사는 예배실과 강의실, 교사 및 학생 기숙사, 도서관, 교육자료실 등을 갖추고 120~16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성경학교에는 〈난징신학교〉와 우한의 〈중난신학교〉를 졸업한 교사들과 지역 목회자 14명이 함께 강의를 맡고 있다. 현재 설치된 과정은 1년제로서 두 학기로 나뉘어, 신학연구보다는 실제적인 교회사역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위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경학교를 마친 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기본적인 목회와 교회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 교과과정의 80퍼센트는 성경학습에 치중된다. 신구약 통독, 교회역사에 대

한 기본 이해와 실제 사역에 필요한 설교, 집회 인도, 기도 외에 나머지 20%는 어학, 찬송, 교회 행정과 재정 관리 등과 종교 정책, 종교 관련법률 등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진다. 정규과정인 1년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고, 중학교 졸업자를 위해서는 '문화과'라 불리는 과정이 있다. 성경학교는 신 교사 건축과 함께 학습 과정도 2년제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평신도 지도자반인 3개월짜리 단기 학습반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창사기독교회북당(長沙基督教會北堂)

창사(長沙) 시에는 약 1만여 명의 기독교인과 2개의 교회당이 있다. 북당과 남당이 그 두 교회인데, 남당은 1907년에 독립교회에 의해 세워진 후 '문화혁명'을 거쳐 1980년 다시 열렸으며 현재 세례교인 860명이 있다. 북당은 1917년 미국장로교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일천여 명의 신도가 있고 이번 부활절에 140명이 세례를 받았다.

현재 북당에는 교회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회시설이 있는데, 하나는 양로원이고 다른 하나는 유치원이다. 양로원은 원래 1988년에 남당에서 12명의 노인들과 더불어 시작했다가 1991년에 이곳 북당으로 옮겨왔다. 현재 양로원은 3층짜리 건물 세 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간호사가 한 명씩 배치되어 특별간호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140여 명의 노인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75세로, 90세 이상도 5~6명되고, 가장 연로한 이는 97세이다. 양로원 회비는 월 2백8십 위안(元)으로 식비와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교회에서 돕고 있다. 양로원 입주자격은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 가운데 비신자였다가 나중에 신도가 된 경우도 많다. 이들의 하루는 아침 기도회로 시작해서 간단한 산보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60세 정도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은 주로 교회 일을 많이 돕고 있다. 이들의 취미활동은 주로 장기 등이고 여흥을 위한 악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숙소 맞은편에는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곳의 대부분의 책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기증한 것이다.

신화기독교회(新化基督教會)

아침 8시, 창사에서 출발한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는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4시에 신화 현에 도착하였다. 신화 현은 국가가 인정하는 절대빈곤 현으로(중국정부 기준 절대빈곤의 기준은 연수입 5백 위안(元) 미만이거나 연간 곡물 생산량이 일인당 3백 킬로그램 미만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후난성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인구 125만 명 중 91%가 농부이다. 이곳은 산이 많은 지역이어서 농지가 절대 부족하다. 이 지역의 약 66퍼센트가 산악지역이고, 21퍼센트가 구릉지대, 나머지 13퍼센트가 농지이다. 인구의 절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농지부족으로 인해 1996년 통계상 이들의 일인당 곡물생산량은 278 킬로그램에 불과하였다.

신화에 도착하여 바로 신화교회로 안내된 우리는, 교회 정문 옆에 큼직하게 붙은 환영글귀와 하루종일 우리를 기다렸을 사역자들과 신도들을 보자 길에서 쌓인 피로가 어느덧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신화에는 노르웨이 교회가 최초로 복음을 전했다. 1905년 설립되어 1949년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당시의 신도수는 8명이었으나, 지금은 2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주일예배 외에,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교회의 담임인 천아이광(陳愛光) 목사는 1947년부터 49년까지 웨양(岳陽)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1987년에 이곳으로 부임해왔다. 천 목사 외에 신화 현에는 후난 성경학교를 졸업한 일곱 명의 전도인들이 사역하고 있으며, 농촌인구가 절대다수인 탓에 이들은 일 주일의 절반 가량을 대부분 농촌에 가서 설교하고, 신도들을 돌보는 데 보내고 있다. 농촌신도들은 대부분 예배드릴 장소가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다른 특별한 장소 없이 신도들의 집을 빌려 예배드리기 때문에 신도수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고민도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신화 현 내에는 두 군데의 교회당과 처소교회 열다섯 군데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출처/중국교회 제17호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대만 노인들



오래 해 전에 수천의 타이완 노인들이, 그들 노후를 친척들과 보내기 위해 광활한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들의 경험이 타이완의 노장층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타이완의 한잡지인 Sinorama (光華)가 조사한 바를 들어 보자.

샌프란시스코 만 남쪽의 포스터 시(市)의 외곽, 101번 고속도로를 벗어난 곳에 작은 쇼핑 센터가 있다. 그곳에는 중국인 슈퍼마켓, 광둥인 레스토랑 여럿과 타이완인 '성즈' 빵집 한 곳이 입주해 있다. 매일 아침 8시를 막 넘길 때면, 천 노인이 걸어 30분 거리인 자기 집에서 이 곳에 도착하고,

곧이어 류씨가 빨간 색 리무진을 타고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노인사들은 은퇴한 군인들로서, 수년 동안 미국에 살아오면서도, 타이완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그들은 매일 커피를 마시러 쇼핑 센터에 와서 만나, 월드 저널지의 머릿면 기사를 가지고 토론을 벌인다. 이것이 그들의 일과가 되 버린 한 가지 활동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외국에 사는 타이완 노인들의 특별한 생활은 아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뉴욕 등지에는 타이완 노인층이, 학위를 딴 후 체류하는 졸업생과, 유학 중인 학생에 이어 타이완인 이민의 3번째 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 생활이란 상당한 적응력이 요구된다. 타이완 노인 이민자들이, 노년을 친척들과 보내기 위해 미국에 올 때, 그 적응 과정이 눈물나고 힘들거울 뿐 아니라, 상당한 적응지해를 깨우치게도 한다.

이들 노인들이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반드시 넘어야 할 첫 장벽이 언어이다. “우리의 교육 배경이 아무리 좋다 해도, 미국에 왔을 때, 우리 모두는 귀머거리요, 병어리요, 장님일 뿐입니다.” 타이완에서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의 중국인 노인 연합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루광화 씨가 말했다. “미국의 대다수 타이완 노인들은 그들의 장성한 자녀들과 살려고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란 많은 수가 석·박사 소지자들로서, 교외거주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들 자녀들의 집이 중상류층 거주지역에 흠어져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노인들은 다른 도시 지역의 독립적인 차이나타운과는 달리, 영어를 못할 경우 모든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주립대 교무처 공동 부처장 피터 리가 지적했다. 이 사실에 상당히 용기를 잃기 쉽다. 그렇지만 끝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에는 무료로 영어를 교습

해 주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휴스턴에 있는 중국문화원에서는 매주 다양한 영어 수업을 행하고 있다. 라이 씨는 중국계 미국인 교사로서 이런 타이완 노인 학생들에게 큰 관심이 있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실제적인 필요,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주소를 쓰고 편지를 부치는가를 알고, 또 자신의 은행일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라이 씨는 말한다. 미국정부가 이민자들의 상당수에 대한 복지 혜택을 삭감하려는 데 따라, 영어를 배우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70세가 넘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고자 할 경우, 번역요원을 대동하거나, 심지어 대리시험을 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권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엄격해졌습니다.” 라며 한 타이완 노인이 불평을 터뜨렸다.

사실 시민권 획득을 위한 대규모 영어교실들은 항상 인원초과 상태이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은, 그들 자녀들이 그들 부모를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서 기회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여전히 가능한 일이다.

미국과 같이 개인주의가 최고인 나라에서, 그 누가 ‘노년에 당신을 돌 볼 아이들을 기르라’는 격언을 들어보거나 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오래 살다 보니, 그들의 가치관도 자연히 우리들과 다르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중국노인연합회 회장인 창더포 씨는 지적합니다.

미국은 자주, 자립, 개인의 자유존중의 가치에 기초한 나라이다. 자녀들은 개인적으로 그들의 늙은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느끼지 않으며, 반면 부모들 또한 그들 자녀의 짐이 되길 원치 않는다.

더욱 난처한 일은 이민 과정이 수년이 걸리게 되어서 그들 타이완 노인들이 미국에 도착해 보면, 손주들이 거의 다 자라버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조부모가 잡자기 나

타나게 되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얼마나 오래 머무실 건가요?” “왜, 집에 가지 않으세요?” 하고 묻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런 말은 그 노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과 함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 온 초기의 타이완 노인들로서는 그들 자녀와 함께 머무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너무 오래 같이 살면서, 이사할 때마다 그들이 불평의 대상이 됨을 깨닫고 나서는, 많은 노인들이 어렵사리 얻은 노동허가증을 포기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타이완으로 귀국해 버리고 만다. 한편 그 나머지 노인들도 한낱 손님으로서 그들 자녀의 집에 머문다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못 되며, 결국 독립적인 삶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데 아직도 이방인처럼 떠도는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창터푸 씨의 예를 들어보자. 10년 전에 산호세 남쪽 언덕에 있는 한 평화로운 은퇴자의 마을에 10만 불 넘게 주고 집을 한 채 샀다. 그와 그의 부인은 이 배타적인 마을에 최초의 중국인 부부 거주자가 된 것이다. 이처럼 주위환경에 익숙해져 가는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들이 자녀의 집을 나와 그 근처에 집을 사기 시작했다. 개인주택을 사는 이외에, 은퇴자 아파트가 타이완 노인들의 또다른 가능한 선택이 되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사려고 목놓아 기다린다. “내가 문제를 회피해서, 내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요양원에 두게끔 하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불효자라는 짐을 그들 어깨 위에 지우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아직 능력있을 때, 은퇴자 아파트에 들어가고, 스스로를 돌보고 여생을 계획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내 자녀를 배려해 주는 일이 될 겁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단계에 직면해서, 내가 공감하고 독립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내 마음이 편합니다. 한 타이완 여인이 말했다. 싫든 좋든, 찬 부인의 다음과 같은 말이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다. “노인들이 손에 짐을 싸

들고, 은퇴자 아파트에 눈물을 흘리며 들어설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위로하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것은 유치원의 첫날과도 같은 거랍니다. 그 일은 거쳐야겠지만, 일단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훨씬 좋아진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는 많은 타이완 노인들이 은퇴자 마을에 이사할 수 있고,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은 SSI프로그램의 도움 때문이다. SSI는 미국정부가 중저소득자 노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생활 보조금이다. 예금충액이 일정액(캘리포니아에서 2000불, 텍사스주에서는 1500불) 이하로서, 다른 아무 소득원이 없는 모든 노인에게 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보조금 총액은 주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인이 한 달에 받는 액수가 500~600불에 이르지만, 텍사스주에서는 300~400불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저소득 기준치에 머무는 노인만은 은퇴자 마을 입주 신청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SI의 기준치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허가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SSI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에서의 최초 거주가 3년에서 5년은 되어야 하고, 그나마 이런 복지혜택이 완전한 시민권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 노령의 부모들의 이민을 돕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타이완 노인들의 미국행 대량 은퇴는 곧 과거의 일이 될 전망이다. 타이완 이민자들이 항상 말하는 바와 같이 말이다. “우리가 행복하든 슬프든, 우리의 문제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노년에 이르면, 그들은 은퇴기를 미국식대로 보내게 될 테니까요. 그때쯤이면, 언어장벽, 문화충돌, 사회복지상의 의존, 심지어 중국노인연합회 따위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타이완 노인들의 이민 이야기는 끝이 없지만, 그들 경험의 실상을 말로써 다 엮어 낼 수는 없다.

중국의 관문도시와 선교적 중요성

한수아

들어가면서

요즘 미전도종족 선교와 함께 관문도시에 대한 선교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비브 그릭은 미전도종족선교 운동에 뒤이은 선교의 제4운동은 도시복음전도(선교)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¹⁾ 아무튼 간과되고 있었던 도시의 선교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관문도시의 개념은 사실 선교전략적 요소를 담고 있다. 즉, 미전도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주요 관문도시를 일차적으로 공략하자는 것이다. 지금 미전도지역이 대부분 접근제한 지역이고,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략은 보다 현실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교사들이 몇몇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며, 그나마 도시에 대한 선교적 안목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 관문도시 개념과 그 선교적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관문도시를 통한 중국 복음화 과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의 도시발전 역사와 관문도시

역사상 중국은 도시가 일찍부터 건설되어 융성했던 곳이었다. 예를 들어 당의 수도였던 시안(西安)이나 남송의 수도였던 항저우(杭州) 그리고 원대 이래로 중국의 수도가 되었던 베이징(北京)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그 도시들이 지니고 있었던 중국문명의 수준은 그만큼 세계적이었다. 지금 세계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뉴욕이 미국 문명의 지배력을 대변하는 것과 흡사하다. 이러한 전통 도시 이외에 근대적인 의미의 산업도시의 출현은民国 시기에 이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에 많이 나타났다. 제국주의 세력의 진출에 따른 개방 항구로써 도시들의 발전, 그리고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에는 내륙도시들의 산업이전과 건설이 이러한 도시들의 출현에 기여한 요인이었다.民国 시기의 도시건설이 다소 종속적이었던 반면 공산화 이후는 매우 폐쇄적인 형태의 도시건설이 이루어졌다.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도시발전의 새

로운 면모가 나타났다. 이제는 주로 시장의 논리를 중심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상품생산의 기지로서, 그리고 상품시장으로서, 각종 서어비스의 제공지로서 도시의 변모와 성장이 재촉되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그리고 도시와 외국 간의 교류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과 통신체계의 발달은 그 촉매역할을 하였다. 이제 자본과 상품 및 노동력이 보다 쉽고 원활하게 도시와 농촌, 그리고 중국도시와 외국 간을 왕래하고 있다. 그 속도나 규모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현재 중국 도시는 정치나 문명의 중심지라는 성격이외에도 점점 지역간 관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관문도시의 의미

‘관문’이라는 개념은 영어의 ‘Gateway’를 번역한 것으로서 입구 혹은 통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즉,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지역적 의미를 넘어서서 선교전략적 의미를 가미

1. 여기서 제4운동이란 해안선교, 내지선교, 미전도종족선교시대 이후에 전개될 새로운 주도적 선교운동이라는 의미이다.

한다면 관문도시는 미전도지역에 선교적인 접근을 하는 데 통로가 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²⁾ 그 도시가 어떤 지역의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이나 경제인 면에서 영향력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관문도시에 관한 명확한 자격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관문도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하비 킨 박사의 말처럼 “모든 도시는 관문도시이다”라고 할 수도 있으며 그야말로 주요 대륙과 국가의 관문이 되는 세계도시(World-class city)급에만 관문이라는 의미를 부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도시지리학적인 관점에서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를 그 위계상으로 분류해 본다면, 세계(급)도시(world city)와 국가도시(country city), 그리고 지역도시(regional city) 및 지방도시(local city)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세계급 도시는 국제적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외국과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세계급 도시는 전세계 각 국으로 향하는 국제적 항공노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금융기관 및 기업지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중국에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上海), 더 나아가 광저우(廣州) 쪽이 이러한 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급 도시는 국가의 주요산업이나 행정, 교육, 서비스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들 수 있다. 이 도시에서는 전국 각 지역도시와 연결되는 항공노선 및 교통,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직할시 및 주요 성도, 그리고 일부 해안 경제특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도시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로서 그 지역의 교통, 경제, 중심지에 해당된다. 중국에서는 다수의 성도를 포함한 지급시가 이에 해당된다. 지방도시는 지역도시보다 작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이

다. 중국의 현급시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³⁾

중국의 관문도시들

그렇다면 중국에서 선교적으로 중요한 관문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이를 위해서 우선 세계 선교계에서 선교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는 중국 내 도시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하자. 우선 기독교21세기운동본부는 10/40장 지역 복음화에 중요한 관문도시 1백 개를 지정하였다. 그중 중국의 도시는 17개가 지정되었다. 이 도시들은 4개의 직할시, 그리고 주요 성도들이다. 이는 위에서 사용한 분류법에 의하면 세계급 도시와 국가도시에 해당되는 도시들이다.

한편 비거주 선교전략의 창시자인 데이빗 게리슨은 관문도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거주선교사들이 시급하게 배치되어야 할 세계에서 가장 미복음화된 대도시 50 개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는 중국의 도시가 무려 40개나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의 80%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도시의 인구규모가 큰 데에도 기인하지만 그만큼 복음화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리스트에는 각성의 수도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성도 외에도 비교적 미복음화 인구가 많은 지방도시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도시위계상 주요 지역도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⁴⁾

중국어문선교회 총무인 이요한 목사는 중국 내에서만 1백 개의 관문도시를 지정하여

2. 이런 의미에서 선교계에서는 관문중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변지역의 미전도중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통로가 되는 영향력 있는 주요 중족을 의미한다.

3. 지급시는 지구에 상당한 행정등급을 지닌 도시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지구에는 지급시가 존재할 수 없다.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지린(吉林) 성을 예로 든다면 성도의 장춘(長春) 및 통화(通化) 같은 도시가 지급시에 해당된다. 현급시는 현에 해당되는 행정등급을 가진 도시로서 우리에게 친숙한 연지(延吉)나 투먼(圖們)이 이에 해당된다.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는 지구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으로서 그 지구의 수도가 현급시인 연지인 것이다. 1996년말 현재 중국에는 218개의 지급시와 445개의 현급시가 있다.

4. 서구선교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주요 미전도 도시리스트 중 가장 자세한 것은 미남 침례교 선교부가 지니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 있다. 이 리스트는 인구 20만 이상의 3% 미만의 복음화율을 지닌 1천 개의 미전도된 도시를 제시하였다. 이 중 중국의 도시는 238개가 나타나 있다. 이 도시들은 도시위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지방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관문도시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인구규모나 영향력이 적은 도시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중국 도시는 정치나 문명의 중심지라는 성격이외에도 점점 지역간 관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진은 인파를 이루고 있는 정저우(鄭州)지역 앞 전경)

선교하자고 제안하면서, 그 도시들로서 위에서 제시된 직할시나, 각 성의 수도, 주요 소수 민족지역의 도시들 외에도 그 범위를 넓혀 해안 개방도시 및 경제특구⁵⁾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도시들은 그 자체가 미전도지역이라기 보다는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에는 외국기업체 등이나 지사 등이 쉽게 진출함으로써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그리고 중국 내 다른 지역이나 종족을 대상으로 비거주선교가 가능하다. 게다가 취업 등의 이유로 그 도시로 온 미전도종족 및 지역인구를 대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관문도시에는 미전도된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 선교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주요 거점도시, 그리고 중요 미전도종족을 타겟팅할 수 있는 도시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부표 p.55>에는 필자가 선정한 중국의 77개 관문도시 리스트가 제시되

어 있다. 필자는 위에서 제시된 도시들에다 위 리스트에 빠져 있는 몇몇 성도와⁶⁾추가되어야 할 미전도종족 지역 주요도시 및 몇몇 주요 지급도시⁷⁾들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북한선교를 위해 거점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추가하였다.

관문도시 선교의 중요성

1. 복음을 들어야 하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구의 전망에 의하면 21세기부터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농촌인구보다 많아지게 된다. 인구통계 전망은 또한 앞으로 수십 년 간 세계인구의 증가는 도시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농촌인구 증가는 정지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경우는 도시에서의 '한 자녀 갖기 정책'에 의해서 자연증가가 억제되어 있는 반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 인구학자는 매년 1000~1400만 명의 농촌인구가 향후 50년 간 도시로 이주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1세기의 첫 사반세기 안에 중국의 농촌과 도시인구 비중은 역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5. 1984년에 14개의 해안 개방도시와 4개의 경제특구가 지정되었다. 그 도시들은 따론펬(大連), 칭왕다오(秦皇島), 톈진(天津), 옌타이(煙台), 칭다오(靑島) 연윈강(連雲港), 난통(南通), 상하이(上海), 닝보(寧波), 윈저우(溫州), 푸저우(福州), 사먼(廈門), 산토우(汕頭),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광저우(廣州), 잔장(湛江), 베이하이(北海) 등이다.
6. 성도로서 포함되지 않은 곳은 사닝, 항저우, 푸저우, 인촨(銀川) 등 네 곳이다.
7. 추가된 지급도시들은 지정된 관문도시가 성도 외에는 없는 성의 주요도시로서 인구규모와 지역적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쉽게 마음을 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관문도시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위치한 곳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지로서 관문도시를 주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2. 선교사가 비교적 쉽게 접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같은 접근제한 지역에서 선교사들의 정착과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사실 중국의 많은 농촌과 소도시들은 외국인의 통행마저도 허가가 필요한 미개방지역이다. 선교사들이 정착을 하려면 학교나 기업체, 혹은 거주지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바로 위에서 제시된 관문도시들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농촌과 소도시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면 불가피하게 이곳에 기반을 둔 비거주선교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관문도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 외에도 도시와 그 변화를 잘 살펴보면 많은 선교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도시선교의 중요한 문제점은 선교사들이 도시에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그들에게 단지 주거지거나 비자를 연장해 줄 근거지로 생각할 뿐, 도시를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선교사는 한 도시에 살면서 우연히(?) 연결되는 선교의 기회를 포착하여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나 어떤 선교사들은 아이템을 발견해내지 못하여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문제는 그 아이템이라는 것에 중복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게다가 심각한 경우는 선교사들이 서로 경쟁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도시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전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표적도 없이 여기저기에 총을 쏘는 식의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양한 표적을 발견하는 한 방법은 각 도시 내에서 종족집단의 분포를 발견하는 것이다. 도시 내 종족집단에는 민족

뿐만 아니라 계급, 계층 및 여러 형태의 직업 및 사회집단이 있다. 도시 내 이러한 종족집단의 다양성은 사역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우리는 학교나 병원, 제자훈련 등과 같은 선교프로젝트나 도구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들 가운데 있는 선교적 기회를 가능하고 한 두개의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

3. 동원 가능한 선교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승패는 아군의 전력을 어떻게 총동원하는냐에 상당히 좌우된다. 관문도시에는 현지 조달가능한 선교자원이 존재한다. 우선 일정규모의 도시에는 전체적으로 공식 교회이든 가정교회이든 간에 교회가 존재한다. 필자는 카자크스탄과의 국경지역에서 가까운 한 도시를 여행하면서 그곳에도 강력한 가정교회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교회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된 미전도종족 지역에 헌신된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과 협력하여 그 지역 선교에 드러진다면 보다 빠른 성취를 경험할 것이다.

그 외에도 크리스천 유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있다. 또한 동료 선교사들이 존재한다. 선교사는 현지 교회와의 협력과 평신도 및 사역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선교자원의 동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사역의 착수와 효과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많은 선교사들이 이러한 사역에 드러지고 있다. 어떤 분들은 현지교인들을 양육하고 도전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돕고 있다. 또한 어떤 사역자들은 유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선교사로서의 비전과 사명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어

면 목적으로 그곳에 왔는지 전문인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전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선교자원과 선교의 대상 및 기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가 이다. 우리는 막연한 선교동원이 아니라 타겟트가 분명한 동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사 자신의 대상과 목표, 그리고 전략이 분명해야 한다.



도시에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데, 사단의 견고한 진이 도시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사진은 상하이시 전경).

4. 도시를 통해 주변지역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선교전략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도시를 주요 선교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그는 바라보았다. 결과적으로 에베소에서의 선교는 아시아지방 전체의 복음화와 연결되었다. 도시가 그 주변지역, 그리고 도시주민이 농촌지역의 주민과 지니고 있는 관계의 망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시는 주변지역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스프링보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바울처럼 도시 내에서 이주민들의 일부를 제자화시켜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주변지역에 대한 교회개척사역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5.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기 때문이다.

비브 그릭은 인구통계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투쟁의 최종 대결장은 도시 내의 전쟁이라고 말한다. 도시에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오히려 사단의 견고한 진이 도시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켈커타와 베나레스는 힌두교의 요새이며, 라시는 라마교 세력의 중심이고, 매일 세계인구 1/5이 그곳

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메카는 이슬람교의 중심이다. 이러한 도시들은 침투하기가 어렵고 박해가 심하며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많은 어두움의 세력들은 관문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영향력은 도시에 질게 깔린 구조적인 악과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만연된 물질주의(맘몬)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주거와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해서 그 선교적 성과가 쉽게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의 관문도시들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주의의 영향력에 의해 전통종교의 힘은 줄어든 상태이지만,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새롭게 퍼지고 있는 물질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도교, 불교, 혹은 민족종교들의 부활로 인해 도시는 사단의 활동에 보다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기회만큼이나 도시에서의 전투는 치열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사역자들은 더욱 무장을 해야 한다 (엡6:10-17). 그리고 이교적이고 반역적인 도시를 향해 나아갔던 사도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중보기도의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엡6:19). 우리가 도시에서의 전쟁을 도외시한다면 이기는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관문도시는 아군도 적군도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거점인 것이다.

맺음말

이 글에서 필자는 관문도시의 의미를 제시하고 중국의 관문도시들이 어느 곳인지를 설명하였으며, 관문도시에 대한 선교적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도시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도시를 향해’ 더 나아가 ‘도시를 통해’ 선교를 하는 사역자는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의 중국선교가 일천함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에 대한 선교적 안목과 전략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중국의 관문도시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일으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언급된 관문도시에 골고루 선교사들이 배치되고 교회가 개척되어 관문도시를 통한 중국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린다.

〈부표〉

성	기독교21세기 리스트	게리슨리스트	해안개방도시및 경제특구	추가도시들	관문도시들
성급도시	베이징,상하이, 톈진,충칭	톈진,충칭	상하이,톈진		베이징,상하이,톈진,충 칭
허베이		스지아장,탕산	친황다오		스좌장,탕산,친황다오
산시(山西)	타이위엔	타이위엔,타통			타이위엔,따통
네이멍구	후허호터	후허호터,바오토 우			후허호터,바오토우
랴오닝	선양	선양,따렌,안산, 푸순, 번시	따렌	단둥	선양,따렌,안산,푸순,번 시,단둥
지린	창춘	창춘, 지린		옌지	창춘,지린,옌지
헤이룽장		하얼빈,치치하얼, 지시,다칭,이춘			하얼빈,치치하얼,지시, 이춘
장쑤	난징	난징	난통,렌윈강		난징,난통,렌윈강
저장			닝보,원저우	항저우	항저우,닝보,원저우
안후이		허베이,화이난			허베이,화이난
푸젠			푸저우,샤먼		푸저우,샤먼
장시		난창,핑샹			난창,핑샹
산둥	지난	지난,칭다오,즈 보,자오좡	칭다오,옌타이		지난,칭다오,즈보,옌타 이,자오좡
허난		정저우,뤄양			정저우,뤄양
후베이	우한	우한		이창	우한,이창
후난		창사		형양	창사,형양
광둥	광저우		광저우,선전,주하 이,산토우,잔장		광저우,선전,주하이,산 토우,잔장
광시		난닝	베이하이	리우저우	난닝,리우저우,베이하이
하이난					하이커우
쓰촨	청두	청두,쑹공		하이커우	청두,쑹공,판즈화
꾸이저우		꾸이양,리우반수 이		판즈화	꾸이양,리우반수이
윈난		쿤밍		거저우,파리,징 홍	쿤밍,거저우,파리,징홍
시장	라사				라사
산시(陝西)	시안	시안		바오지	시안,바오지
간수	란저우			톈수이	란저우,톈수이
칭하이				시닝	시닝
닝샤				인촨,스주이산	인촨,스주이산
신장	우루무치	우루무치		카슈,이닝,알타 이	우루무치,카슈,이닝,알 타이
도시수	17	40	18	19	77

한수아/선교사, IMPAC 총무, 본지 편집위원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사진은 정저우대학(鄭州大學) 전경

역사의 古都 정저우 시는 허난(河南)성의 성도(省都)로서, 황허(黃河)의 남쪽 허난성의 전체로 볼 때,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3천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정저우는 중국에서 가장 유서깊은 도시 중 하나이지만, 오늘날 과거 역사의 유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곳은 또 내륙의 중요한 개방도시로서 남북을 횡단하는 경관선(京廣線)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우해선(滬海線)의 교차점으로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교통, 상업의 중심도시이다. 근래 교통의 발달로 인해 상업과 무역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에선 정저우를 전국 상업무역 시범 도시로 육성하고 있다.

허난성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으로서 9천만이 넘으며 전국에서 땅콩, 참깨, 유채기름, 대추 등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황하의 잉어와 수박, 녹용 등은 허난성의 특산물이기도 하다.

정저우의 본명은 "정야(鄭邑)"이었다. 신 중국이 세워진 1949년 이후, 공업이 신속하게 발달했으며, 오늘날 방직, 인쇄, 기계, 화공, 경공업, 건축자재, 전자, 담배의 생산활동이 현저하게 발달하고 있다. 정저우에는 정저우대학(鄭州大學), 허난이커대학(河南醫科大學)을 비롯해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있으며, 장구한 역사에 비해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지 못함이 아쉽다. 인접한 황하로 인하여 먼지가 많은 편이며, 특히 봄에는 그 유명한 "황사(黃沙)"의 발원지이다. 그래서 옛날엔 "바람과 모래의 도시(風沙之城)"이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시내에 많은 나무를 심어 늘 푸르름을 나타낸다고 하여 "푸른 섬(綠城)"이라고 부른다.

행정구역

정저우 시의 행정구역은 5개의 직할시와 1개의 현으로 구성되어있다.

면적과 인구

총면적은 7,446.2km²이고, 직할시를 포함한 총인구는 614.8만, 시내지역 인구는 213만이다.

기후

정저우와 그 밖의 허난성은 온난대에 속하나, 아열대성 기후와 중첩되어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무덥고(최고36~39도) 습기가 많으며, 겨울에는 눈은 별로 내리지 않지만 날씨는 매우 춥고(최고 영하 10-15도), 봄에는 인접한 황하로 인하여 먼지가 많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은 편이다. 우기는 7~9월이며, 년 평균 강수량은 500~900mm 9월부터는 강우량이 적으며 평균기온

이 21℃ 정도이다. 정저우의 특징은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우며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러 먼지가 많고 건조하다.

교통

정저우 시는 철도교통의 요충지이다. 중국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京廣線(베이징-광저우, 전체길이 2302km)과 海線(상하이-우루무치, 전체길이 4077km)의 교차로에 있다. 정저우에서 베이징(北京)까지는 689km(8~10시간 소요), 정저우에서 광저우(廣州)까지는 1605km(21~23시간 소요), 정저우에서 상하이(上海)까지는 998km(15~16시간 소요), 정저우에서 칭다오(靑島)까지는 1059km(15~16시간 소요), 정저우에서 시안(西安)까지는 511km(8~10시간 소요)이다. 그 밖에 항공노선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등 전국 주요도시를 연결하고 있으며 육로도 발달되어 있다.

역사

정저우 시는 원래 정이(鄭邑)이라 불리우다가 1949년 市로 승격되었으며, 카이펑(開封)에 있던 성(成) 정부가 1954년 정저우로 옮겨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해가 55주년이 되는 해이다. 1923년 경한(京漢)철도 건설단 파업의 기수가 되기도 했었던 정저우 사람들은 의외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정저우에는 상(商)(BC3000)시대의 유적과 신석기 시대의 대사촌(大泗村)유적 및 황허의 유적이 약간 있다. 정저우에서 2~3시간 소요되는 곳에 중국의 오악(五岳) 중 하나인 숭산(嵩山)이 있는데, 그 곳에 유명한 소림사(少林寺)도 있다.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송나라의 수도였던 開封이 있고, 3시간 거리에 진, 북위, 수, 당, 후당 등 9왕조의 수도였던 洛陽(洛陽)이 있다. 이 일대는 대부분이 불교 유적지이다.

사회 및 경제

푸른 성 정저우는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상업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 전국에서 종합실력 50위, 투자환경 40위의 우수한 도시로서 정저우에는 이미 5만 4천여 개의 기업과 100여 개의 공장이 있으며, 전국의 주요 합금(冶金), 건축자재, 방직공장이 있다. 근래에 정부에서는 전국 상업무역 중점도시로 육성하고 있다. 철도, 도로, 항공 등 주요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하였

고, 상업의 발달 외에도 위생적이며 개방된 도시이다.

요즘 정저우의 경제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초대형 백화점이 도산하고 수많은 국영기업들이 도산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가 불안하고 범죄율이 높으며 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

종교 및 기독교 상황

정저우에는 3개의 삼자교회가 있고, 2개의 천주교회가 있다. 그 밖에 불교, 이슬람교, 무속신앙이 분포하고 있다. 정저우의 가정교회나, 삼자교회 모두 부흥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각종 이단이 난무하고 있어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신자들의 열심은 대단하지만, 각종 이단이 성행하여 정부에서는 정통 기독교 신자들에 게도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정규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정교회의 사역자는 그 교육수준이 중졸 정도로 무학인 경우가 많고, 고졸자 조차도 희박하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교회의 경우 더 심하다.

정저우 사람들은 스스로 정저우는 신(神)이 보살피주는 도시라고 믿고 있다. 물론 불교와 다른 종교의 영향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능자의 사랑이 많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기도제목

1. 요즘 허난성엔 많은 부흥이 있는데,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라 그들은 장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다. 이 정저우시에 기독교의 부흥이 지속되며, 전도의 열정이 더 하여지도록.
2. 정저우시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견고해 지도록.
3. 주님의 교회에 훈련된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도록.
4. 성도들의 열심을 가리어 정부의 압박을 받게 하는 마귀의 계계를 파하며, 이단으로 영혼들을 미혹하는 사단에 게 말씀의 진리가 비추도록.
5. 희어져 무르익은 밭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웨이하이는 한국과의 무역 통상 증대로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받았다.
(사진은 웨이하이 시의 가장 큰 도로)

웨이하이 시는 아름다운 해변도시이다. 공기도 신선하고 풍경도 아름다워 유명한 피서지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도교인 '전진파(全真派)'의 본산지로서 많은 도교 유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산둥반도의 동쪽 해안인 항구도시로 칭다오(靑島), 옌타이(煙台)등과 함께 인천과의 주요 무역 통로이기도 하다.

웨이하이 시는 중국 개혁개방 정책으로 해안 지역 특별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1987년 9월 시로 승급되었다. 또한 한국과 무역 통상 증대로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받았다. 웨이하이 지구시에 있는 외곽도시 잉청(英城), 윈덩(文登), 루산(乳山)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많이 있어 산둥(山東)반도의 상업, 무역, 공업, 첨단 기술산업이 발달한 종합 공업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행정구역 및 위치

산둥성 산둥반도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 1987년, 옌타이에서 독립하여 지구급 시(市)로 승격하였다. 웨이하이는 시구(市區)인 후안추이구(環翠區)를 비롯해서 윈덩시, 잉청시 및 루산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과 인구

5436km², 좁은 의미의 웨이하이인 후안추이구는 731km², 총인구는 244만 명, 후안추이구는 46만 명.

기후

해양성 기후이고, 4계절이分明하다. 연간 평균기온은 12℃, 무상기일 143일, 연간 강우량 800mm, 총 일조시간은 2,516시간이다.

역사

웨이하이 시는 춘추시대(BC770-475) 제(齊)나라에 속한 뒤부터 2천 5백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1398년 명나라 때 일본해적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웨이하이위(威海衛)를 설립하여 군사요충지로 발전하

였다. 청나라 때 웨이하이만에 있는 리우공다오(劉公島)에 북양함대 해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청일전쟁시 해상작전에 패배한 정여창(丁汝昌) 제독이 1895년 2월 11일 밤 이곳에서 자결하였다.

1992년 중국정부는 옛 해군 사령부 건물을 재건축하여 청일전쟁 전시관(甲午戰爭展覽室)을 만들고, 이를 역사교육의 장으로 삼았다. 1894년 갑오전쟁의 패배로 일본의 지배를 잠시 받다가, 1898년 영국이 웨이하이를 다시 식민지로 점령하였다. 1930년 10월 국민당 정부가 수복하고 자유무역항을 취소하였으나, 1938년 일본이 다시금 점령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 웨이하이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을 겪으면서 개발된 도시이다. 1949년 10월 공산당이 해방한 이후, 1987년 9월 옌타이에서 독립하여 지구급 시로 승격하면서 중국최초의 "국가급위생도시(國家級衛生都市)"로 지정되었다.

사회 및 경제

국가급 위생도시답게 건물 대부분이 7~8년 이하여서 도시 전체가 매우 깨끗하게 보이고, 중국 다른 도시보다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다. 한국에서 가깝고 웨이하이 시장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을 방문하여 투자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기에 환경의 변화 또한 다른 도시

보다 빠르다. 아름다운 휴양도시로서 관광이 발달할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90년부터 한국 인천과 직항 해운항로를 개통한 후 계속 발전하여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 왕복하고 있다. 웨이하이는 양국이 수교한 1992년 8월 24일부터 1998년 8월 말까지 6년 간 다섯 차례나 中韓 경제 무역 상담회를 개최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인 투자기업이 600여 개 정도의 기업에 투자를 결정하였다. 웨이하이시 정부는 지금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을 1,814개 허가하였다. 이전에는 노동력이 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들어온 제조업체들이 많았으나, 최근엔 기계제조나 전자기술 방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웨이하이시가 한국인에게 이렇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제조 상품을 해외로 운반하기가 매우 편하고 납품날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다. 이곳의 물가는 베이징(北京)보다 약간 비싼 편이지만, 교통은 매우 편리하여 칭다오, 옌타이 비행장을 통해 한국에 쉽게 왕래할 수 있고, 공항과 기차역, 버스 등으로 국내 중요 도시는 매우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곳은 중국 동북3성에서 직장을 찾아 내려 온 조선족도 많다. 한국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한국 상품(식품, 옷, 공산품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자주 눈에 띄는 한국어 간판, 연변 지역과 같지는 않지만, 한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임은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경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실업자들도 많다.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후 성문화의 개방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어 가정의 중요성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에 와보지 않은 사람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이해가 덜 개방적인 것 같이 생각되나, 예상외의 빠른 속도로 정치와 기독교만을 제외한 다방면에서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 및 기독교 현황

웨이하이시에서는 도교의 본산지 답게 도교, 불교, 유교의 영향을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관광지조차도 대부분 도교의 유적이다. 기독교의 경우는 삼자교회가 웨이하이 시 후안추지구 안에 단 한 곳이 있다. 1949년 이전에는 웨이하이 기독교회에서 웨이하이 흥번학당, 병원 등을 운영했으나, 지금은 한 곳도 남아 있지 않다. 여러 곳에 예배처소가 있었지만, 공산해방(1949) 후 학교, 관공서로 사용되고 있다. 개혁개방 정

책 이후에야 종교정책의 변화로 교회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 이곳은 1994년 5월에 40여 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7~800여 명이 넘게 모이고 있다.

웨이하이시 삼자교회는 다른 지역처럼 예배당을 돌려받지 못했다. 예배당을 학교나,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자교회는 예배 참석 인원이 증가하면서 전세로 빌렸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예배당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시 정부 종교국으로부터 옛 예배당 대신 적당한 땅을 찾으면 허가해준다고 했으나, 시내 중심에서 가까운 곳에 적당한 자리를 구하지 못해 예배당을 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건축 비용이 많이 들 것이 뻔하지만 건축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다. 삼자교회에서는 1년에 겨울철 4주 동안 처소교회 지도자들을 집중으로 가르치고 있다. 삼자교회 안에는 조선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오후 2시에 있다.

한편, 천주교 예배당이 한 곳 있는데, 100여 년 전 영국 수녀가 건축하여 1949년 10월 이전까지 미사를 드렸으나, 지금은 없고 그 건물은 중국 국무원 종교국 웨이하이 훈련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산둥성 정부에 의해 1992년 문화재 중점보존 건물로 지정받았다. 영국 수녀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1898년 영국이 웨이하이를 식민지로 점령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도제목

1. 삼자교회 지도자들과 비공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2. 삼자교회의 훈련반이 활성화가 되고 체계화되어서 젊은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3.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가르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웨이하이 시 지구 250여 만 인구에게 복음이 역사하도록.
4. 웨이하이 시 지구를 뒤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어둠의 영에 대적하고, 이 땅을 복음의 물결로 덮을 수 있도록.
5. 웨이하이 시 지구의 선교를 위하여,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6. 웨이하이 시 지구의 복음화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세워주시도록.

새벽이슬 같은 중국인 유학생을 잡아라

석은혜



해외에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길 원하는 자들과 현재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미국 텍사스(Texas)주 달라스(Dallas)에서 만났다. 미국의 대사명센터(大使命中心), 중국복음회(中國福音會), 해외교원(海外校園) 잡지사, 중국대사명사역회(神州大使命事工會)가 연합하여 제3회 '중국인 유학생 훈련 캠프'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이 유학생 훈련 캠프의 목적은 해외에 유학 중인 중국 크리스천들을 사역자로 훈련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이 훈련을 받고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모임에 돌아가서 사역자로 활동하게 하고, 유학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가서는 중국 교회의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이 달라스 훈련 캠프에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등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번에 걸쳐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첫 번째 모임(98. 12. 25~30)의 참석 대상은 기독교인인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 이미 헌신했거나 헌신하길 원하는 자들로, 16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번째 모임(98. 12. 30~99. 1. 3)은 협력사역이나 전임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었는데,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 중 50여 명은 이미 첫 번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다.

참석자 200여 명 중 1/3은 석사·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었고, 1/3은 전문인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나머지 1/3은 목사나 전도사 혹은 신학생이었다.

이 캠프를 위해 강사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토마스 왕(王永信), 조나단 차오(趙天恩), 쑤원펑(蘇文峰) 목사를 비롯하여 해외 화교 교회 지도자, 중국 교회에서 이미 고난을 경험하고 이민 온 믿음의 선배들, 중국인으로 해외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된 사람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강의는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묵상(Q·T)과 함께 매일 아침을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세계선교와 중국을 위한 기도회, 저녁시간에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영적 훈련을 하였다.

첫 번째 모임의 오전 강의는 '영성훈련'에 관한 것으로 '전인적인 영성훈련', '기도와 영성훈련', '인격과 영성훈련' 등의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8개 조로 나누어서 워크숍을 가졌다. 주제는 설교법, 성경공부 방법, 해외유학생 사역, 전문인선교 사역, 기독교인의 가정과 결혼, 영적 전쟁, 헌신과 사역자로서의 성장, 교회개혁법, 인간관계훈련, 윤리학, 인터넷 사용법, 세계선교 경험담, 영적 치유, 찬양 인도하는 법, 제자 훈련 등등을 다루었다.

두 번째 모임의 오전 강의는 '조직신학'에 대한 강의로, 첫 번째 모임에 비해 약간 신학적인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중국 교회 역사, 개인전도법, 설교훈련, 기도훈련, 영적 전쟁, 전임사역 등의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고, 저녁에는 부흥회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훈련 캠프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참석자 200여 명 중 73여 명이 전임사역자로 헌신했다는 점이다. 그 중 27명은 자신들의 조국인 중국에 돌아가서 사역하겠다고 결단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그 자리에서 '중국선교헌신자' 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외에서의 모든 편리함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결단은 그야말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였다.

2000년부터는 이 대회를 2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개최하고, 홀수년에는 각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절대로 정치에 대한 것은 거론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이 해외로 유학할 수 있게 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덕분으로, 현재 50여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103개 국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미국에 10만여 명, 유럽에 10만여 명, 일본에 10만여 명, 호주 및 뉴질랜드에 5만여 명, 캐나다 2만여 명, 러시아에 5만여 명, 나머지는 기타 국가에서 유학하고 있다. 그들은 국비 장학생, 기업이 파견한 유학생, 자비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유학을 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을 쉽게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중 1/10에 해당하는 1만 명 정도가 기독교 신도이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 유학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로 '유학생 선교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 중에 해외에 유학을 갔다가 예수를 믿고, 헌신하여 현재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300~400명 정도가 된다. 이들이 앞으로 중국에 돌아가 신학자, 목회자, 신학 교수가 되어 중국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될 것이다. 북미(北美)에서만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모임이 200여 개, 중국 유학생을 위한 교회가 20여 곳, 헌신한 유학생 수는 300여 명이다. 전세계적으로 40여 개 국가에 중국 유학생을 위한 집회소가 있으며, 북미와 호주에서 중국 유학생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해외 중국인 유학생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으며, 한국 교회에게도 중국 유학생 선교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 이번 미국 달라스에서 이루어진 '중국 유학생 훈련 캠프'는 21세기 중국 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중국 유학생들 대부분이 중국을 떠나올 때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된 유학생들은 생각을 바꾸어 반드시 중국에 돌아가서 중국을 위해, 중국 교회를 위해 일하겠다고 결단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 선교'는 '중국 유학생 귀국 운동' 과도 같기에 중국 정부도 이 선교운동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해외 중국인 유학생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이 글은 미국 달라스에서 있었던 제3회 '중국 유학생 훈련 캠프'에 참가했던 중국 유학생을 만나 취재,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주
취재·정리: 석은혜/본지 편집장

"이곳에 나의 백성을 충만케 하라"

-가정교회 삼 남매의 교회 개척 이야기

왕쓰웨

쉬(徐) 형제의 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꼬방동네 같은 언덕 중턱에 있었다. 그는 신혼 3개월에 부인과 함께 두 평 반 정도의 작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다. 집이라곤 방 한 칸으로, 방에 들어가면 오른쪽 벽쪽에 침대 하나가 있고, 침대 밑에는 옷장이, 옆에는 책상이 각각 하나씩 있다. 방문과 마주하는 벽쪽에는 화로가 있는 화덕이 있고, 그 옆에는 철재제 받침대와 그 위에는 플라스틱 세숫대야가 있다. 쉬 형제는 내가 그 지역에서 지도자 훈련을 하는 일주일 동안 그의 신혼집을 나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자신과 부인은 동생이 살고 있는 아랫집에서 머물렀다. 사실 나는 길잡이인 리(李) 형제의 안내로 그 집에 와서, 쉬 형제와 그의 부인에게 신혼집을 나에게 내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미안해했지만, 그들은 웃으면서 "왕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누추한 집에 머물게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왕 선생님이 저희 집에 머무시는 것은 우리로서는 영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세요."라고 하였다. 쉬 형제는 내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세숫대야에 항상 깨끗한 물을 채워놓

고, 땅 바닥에는 물을 뿌려놓아 방의 건조함을 막았으며, 책상 위에 있는 초록색 보온병에는 따뜻한 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어 넣었다.

쉬 형제는 광부였다. 원래 G성(省) 남부사람인데, 몇 년 전에 이곳에 살고 있는 누나의 권유로 이사와 최근 이곳 아가씨와 결혼을 하였다. 그는 순진한 기독교인 광부였으며, 모태신앙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기독교인이었고, 그 지역의 가정교회의 지도자였다. 어렸을 때부터 쉬 형제는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을 배웠고, 그의 모습 속에는 타고난 순진성과 함께 겸손한 경건함이 있었다. 그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나 식사할 때, 주님과 사람들을 섬길 때 그의 겸손함은 더욱 돋보였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였다. 강의실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고, 자신은 작은 국수(麵條)와 찬 흰 빵(饅頭)을 먹고, 따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또 잔심부름은 다투어 먼저 하였다.

그가 나의 로마서 강의를 들을 때 그의 얼굴의 표

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정도와,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일을 갈망하는지 알 수 있었다. 기도할 때면 강의 때 들었던 말씀이나 생각나는 성경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였으며,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종종 하곤 했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나는 그의 경건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의 이런 모습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처음 나는 쉬 형제가 이곳 가정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그는 그냥 평범한 신도이고 실질적인 지도자는 그의 누나와 남동생이라는 것을 알았다.

쉬 형제의 누나인 쉬징메이(徐靜美)는 이 탄광촌의 복음 개척자였다.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따라 고향에서 이곳으로 이사오게 되었는데, 처음 이사왔을 때는 이곳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다. 예배를 드릴 곳이 없었고, 교제할 기독교인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곳에 이사온 것을 매우 후회했다. 삶이 힘들고 심적으로 약해질 때면, 그녀는 그녀의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집으로 돌아가 지내기도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징메이가 집에서 기도하는 중, 이 탄광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기도 후 집밖으로 나갔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가 없어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였고, 단

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만 기도하면서 길을 걸었다. 그 날 저녁 그녀는 또 기도하면서 “이곳에 나의 백성을 충만케 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눈물이 났고 하나님께 자기를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징 메이의 남편은 광부로 매일 아침 갱(坑)으로 들어가면 저녁때가 되어야 나왔다. 징메이는 낮에 집안일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웃과 자주 교제를 가졌고 이웃들도 그녀를 좋아했다. 어느 날 징메이는 가장 친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신기하게도 그는 쉽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징메이는 무척 놀라 저녁 때 집에 돌아온 남편에

게 이 일을 알렸더니

남편 역시 크게 기뻐하였다. 남편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감동과 음성이 진짜인 것 같이라며 격려해 주었다. 다음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웃 자매가 또 찾아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자, 징메이는 성경을 꺼내 그녀와 함께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 자매는 집으로 돌아가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가족 모두 믿겠다는 놀라운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비록 늦은 밤이긴 하지만 징메이에게 결신과 결신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일날 징메이는 이 탄광촌에 온 후 처음으로 그 자매의 가정과 그의 가정의 함께 예배를 드렸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징메이는 평평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고 했다.

징메이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그녀가 조용한 말씨에 온유한 성격이며, 겸손한 태도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천사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징메이는 나의 첫 강의를 들었지만 나는 그녀를 주목하지 못했다. 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리 형제도 지역에 도착하면 먼저 현지 지도자를 소개하는 관례를 행하지 않아, 나는 지도자가 사정이 있어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첫 날 강의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징메이는 내가 머물고 있는 방에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 “왕 선생님, 이 두 아들을 위해 안수기도해 주세요. 공부를 더 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는 그녀의 9살과 7살 된 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 주었고, 그녀는 “이곳이 불편하시더라도 용서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방을 나갔다.

다음날 나는 리 형제에게 이곳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그는 “어제 만나지 않았나요?”라고 했다. 나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하자, 그는 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자매가 이곳 가정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며 징메이를 가리켰다. 나는 왜 정식으로 소개해 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는 징메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며 완강하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는데, 나중에야 이것이 징메이의 겸손함과 나서지 않는 성격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을 알았다. 징메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설교하기보다 자신의 간증과 자신의 부족에 대한 고백을 앞세웠고, 강력한 카리스마보다는 온화한 포용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였다.

징메이 가족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가족과 예배를 드릴 때, 징메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이곳에 나의 백성을 충만케 하라”라는 음성을 나누게 되었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말에

공감하였으며 이 비전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이후에도 징메이는 이날 드린 첫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늘 잊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날 징메이의 남편과 이웃 남편은 갠에서, 징메이와 이웃 자매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두 번째 예배 때에는 징메이의 집 작은 방에 십여 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사람이 많아지자 징메이는 예배와 기도회뿐만 아니라 성경공부도 시작하였다. 날이 갈수록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모두 스스로 전도하여 사람을 데리고 왔다.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모임도 많이 열다 보니, 징메이는 도저히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의 고향에 이 일을 알렸고 어머니와 고향 교회에 도움을 청했다. 어머니와 고향 교회 사역자들이 와서 도와주었는데, 고향에도 사역할 일이 있어 계속 함께 하지 못하고 곧 돌아갔다. 고향의 사역자들이 돌아간 후,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 말씀에 은혜받은 사람이 더 많아져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났다. 이제 탄광촌의 모임장소도 십여 개로 늘어났고 기독교인도 500명 이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에 있는 징메이의 작은 남동생이 직업 때문에 징메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고, 징메이의 가정



장승원 그림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일도 왔다. 그러다가 그는 신도와 모임은 늘어나는데 말씀 사역자와 전임

사역자가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보고, 기도 가운데 누나 징메이의 비전에 동참하게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 다음은 훈련을 받는 문제인데 고향으로 돌아가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징메이는 인근 도시에 있는 가정교회를 찾아보았다. 이것이 징메이의 가정교회가 인근 도시의 가정교회와 첫 교류를 하게 된 계기였다. 인근 도시 가정교회 지도자를 만난 날에 징메이는 그의 교회의 시작과 현황과 문제점을 말하고 그의 남동생을 지금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자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도시 가정교회는 사람을 보내어 징메이 가정교회를 방문하였고, 주요 신도와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돌아갔다. 얼마 되지 않아 도시의 가정교회는 징메이의 남동생이 훈련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사역자들을 보내어 징메이의 가정교회를 지원하고 또 필요한 성경과 책자들도 공급하겠다고 했다.

징메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받은 비전을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감사했다. 징메이의 작은 동생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3개월 동안 집중신학 훈련과정을 마쳤다. 징메이의 교회는 그의 동생을 정식으로 전임 사역자로 인정하였고, 그는 이제 이 탄광촌의 전임 사역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징메이의 작은 남동생 쉬창(徐強)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었으며, 치리(治理)도 잘 하였다. 그가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배장소가 백여 개로 늘어났고, 신도들도 4천 명 이상으로 늘어나 모두들 놀랐다. 쉬창은 도시의 가정교회와 그와 함께 훈련을 받은 동기생들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협력체제를 맺었다. 사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도시 가정교회의 지도자인 리 형제가 쉬창에게 소개하여 연결된 것이다. 쉬창은 리 형제를 따랐고 당연히 그가 소개한 나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나는 이곳에 있는 동안 그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성경, 신학, 묵회, 은사 등 다양하게 나누었으며, 특히 성경에 대한 질문이 많

았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는 구절이 나오는 데 이 ‘세 더러운 영’이 사탄이면 사탄도 삼위일체인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또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공안당국의 핍박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신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예배장소가 날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최근 인근 도시 삼자교회에서 사람이 찾아와 삼자교회의 관리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다.

나는 이곳에 있는 동안 징메이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느끼게 되었다. 이 비전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다. 징메이는 사랑과 온유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치유하며, 싸매는 일을, 그의 큰 남동생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고, 막내 쉬창은 말씀과 묵양, 치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고 있다. 이들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오직 충성스럽게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걷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이들 삼 남매와 탄가루로 뒤덮인 길을 걸을 때, 나는 마치 영광의 행진을 하는 것처럼 기쁨이 가득함을 느꼈으며, 이들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음이 영광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존경하는 성도들이 함께 공중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니, 차바퀴에 나부끼는 탄가루가 나의 입 속으로 날아 들어와도 나는 입을 막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워하였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II)

김재호

〈선교사 아내의 회고〉

3일 만에 일단 남편을 풀어준 뒤, 일이 순조롭게 끝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9명의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한 '가택수색 영장'을 갖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남편에게 수색영장에 지장을 찍게 한 후, 한두 사람씩 분배해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조선족 경찰 둘이 있어서 한글로 된 노트 한 장, 한 장을 읽어 내려갔다. 그들은 장농, 부엌, 침대 밑, 화장실 심지어는 쌀자루까지 열어놓고 조사를 했다. 이제 눈앞이 캄캄할 뿐 희망이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5~6시간을 뒤지고 조사한 뒤 한글과 중국어로 된 일체의 종교서적, 주소록, 메모지,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을 여러 가방에 담아서 돌아갔다. 우리는 밥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채 공포와 허탈의 한숨을 짓고 있을 때, 그들은 2시간이 못되어 2차 수색을 왔다. 그리고 남았던 필름,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컴퓨터, 비디오, 녹음기 등 모든 기구재와 자료가 될 만한 물건들을 다 들고 나갔다. 우리는 자신들의 물건을 뺏기면서도 말한 마디 항변하지도 못한 채 우두커니 서서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들이 내일이면 또 오리란 예측 때문에 밤새도록 자료가 또 있나 정리하고 정리하여 조금이라도 자료가 될 만한 것은 모두 화장실에서 태웠다. 연기가 온 집안에 가

득했다. 겁에 질린 나는 밤새도록 선풍기를 돌렸다. 더 이상 태울 수 없는 것들은 물에 불려서 손으로 찢어서 변기통에 버리기를 몇 번이고 계속했다. 나는 그들이 또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었고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런 와중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3일을 금식하고 나니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일어날 기운도 없었다. 순간 나는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처럼 시장에 갔다. 그곳도 경찰이 따라 붙었다. 전화를 쓰려 해도 모두 감시의 눈길 뿐이었다. 이웃 사람들은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 소리가 나면 문을 열고 우리의 기동을 살피기가 예사였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대기가 일쑤였다. 집안에서는 도청이 될까봐 식구들끼리도 숨을 죽이고 큰 소리로 말한 마디를 못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이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믿음을 배우게 했다. 이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가고 스무 날이 가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남편은 날마다 경찰국에 가서 심

문을 받거나 그들의 호출을 기다리며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집주인은 매일 찾아와서 나가라고 성화인데 경찰에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고, 정부에서 허가한 합법적인 집을 알아보니 너무 비싸서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주인은 조카를 동원해서 물건을 끌

어내겠다고 협박을 몇 차례 하더니 결국 집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동원해서 방을 뜯기 시작했다. 임시로 짐을 작은 방에 몰아넣고,

학교의 기숙사 방을 수소문해서 잠시 거처를 옮겼다. 만약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알게 되면 염려하실까봐 중국을 떠나는 날까지 전화 한 통을 못 드렸다.

그 후로부터 나는 경찰의 심문을 당할까 두려워 집안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외부와 일체의 연락을 차단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매일 할 일 없이 밖을 맴돌다 저녁에 들어오곤 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공안국에 불려가서 혼자서 5시간의 심문을 받았다. 그 후에 또다시 추가 호출을 받고 공안국에 출두하곤 했다.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었던 사건을 한 달 스무 날을 끝낸 최후의 결정은 또다시 우리를 허무와 허탈에 빠지게 만들었다.

첫째, 김 선교사는 10일 이내 중국을 떠날 것. 둘째, 모든 자료와 기자재는 몰수. 셋째, 소정의 벌금을 낼 것. 넷째, 10년 이내 입국 금

지(중국 치안을 혼란케 한 죄) 등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내려졌다. 결국 우리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선교지, 중국 땅을 떠나야 했다. 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중국에 남아 또다시 외롭고 고독한 몇 개월을 견뎌야만 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떠나는 것이기에 일단 그곳을 떠났을 뿐이다.

어느 날 나는 『양화진』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 책은 나의 영혼을 사로

잡았다. 일찍이 한국을 사랑했

던, 그래서 가난과 질병, 우상이 가득하고 쇠국정책으로 문을 굳게 닫고 있던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위해, 여러 외국 선교사들이 그들의 청춘을 한국을 위해 바치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을까? 우리 민족이 이전에 받았던 복음의 빛을 한국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을 때 결코 이 민족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느 위치에서 있을까?

우리는 어둠이 지나면 다시 광명이 온다는 진리를 믿고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갖고, 두 번째 선교지에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생수처럼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면서...



장승원 그림

우리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사역자들 에게 주는 몇 가지 제언

1. 우리들이 조사 받는 동안 공안원들은 간간히 한국 사역자들의 상황을 물었다.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그들은 사역자들의 정확한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 때로는 성을 내고 물었다. 모른다고 대답하자 이름을 대면서 그래도 정말 모르겠느냐고 반문하였으며, 한국인이 한국인을 모른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반문해 왔다. 저들은 우리들의 상황을 파악했는지라도 정확한 근거와 사건이 가시화되어서 표출될 때까지는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 각자가 자신들의 거취를 조심해서 표출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2. 가능한 한 거주지와 중요한 자료를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하나의 지혜다. 저들은 집안의 모든 것을 몰수 조사한다. 심지어는 컴퓨터와 디스켓 등, 모든 것을 가져다가 전문가를 동원해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들도 일일이 검토하고 일단 종교활동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면 전부 몰수한다. 그 밖에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녹음기, 소형카세트, 라디오, 사진 필름, 중국어 기독교서적, 한글 기독교서적, 주소록, 편지 그리고 집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전화번호를 압수해 간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오랜 시간을 조사하며, 결국 중국인 형제들이 알고 있는 모든 거처의 자료와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자료와 중요한 문서는 가능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3. 저들의 조사는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

는다.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와서 간단한 책자를 들고 가면서 확인한 후에 금방 돌려주겠다고 안심을 시켰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음날 정식으로 공안국에서 (중국에서는 가택수색 영장을 공안국장이 발부) 발부한 가택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정식으로 가택수색을 했다. 9명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그 중 2명이 조선족이었다. 9명이 오후 내내 조사하고 갔을 때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고 방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밤에 또다시 찾아와서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성경 보관 창고를 조사할 때는 약 20여 명이 들이닥쳐서 역시 두 차례의 조사를 했다. 내가 공부하고 있던 00학교와 교수까지 철저히 조사했다. 사건이 나면 우선 위험한 자료들을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인정 어린 말에 동요되어 동정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건이 오늘 내일 금방 끝나는 수도 있다. 그러나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경우 한 달, 두 달 사건을 끄는 것이 예사다. 조금하게 생각하면 자신만 지칠 뿐이다. 우리의 사건은 7월에서 9월까지 계속 되었다. 그리고 저들은 조선족들을 경찰로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었다.

4. 사역자들의 동정이나 위로를 기대하지 말자.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공안원들을 통해서 받는 압력과 조사들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사건이 장기화 되면서 몇몇의 의식있는 분들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도우려고 했던 고마운 분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역자들로부터 당하는 냉대와,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된다는 등의 한국 사역자들의 질시, 외면, 냉대는 보다 큰 아픔이었다. 사건이 났을 때 동역자들의 동정을 기대한다면 큰 실망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한

국 사역자들의 자세요, 처세 방법이라면, 사역자들의 자세와 사역방법론 등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5. 저들은 조사 과정에서 다른 정보를 통한 보상이나 정황 참작, 가벼운 처벌, 책임전가 등의 방법으로 회유하게 되는데, 저들의 입에 붙은 달콤한 말에 입을 열어서는 안된다.

저들의 주고받는 말에 의하면 사건이 장기화되고 길어지면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이가 없다고 회유하지만, 그들은 이를 통해서 선교사의 자질을 평가하고 있었다.

6. 사건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중국인 형제들이 많이 연루되게 되고, 결국은 실망할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스승을 배반한 제자들이 있지 않았던가?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현지인 동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신의를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들은 평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사역에 연루시킨다면 저들의 선교사들에 대한 실망이, 중국 형제들의 복음의 이탈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7. 중국 사역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도 한국인이어서 남에게 뒤지지 않게 일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다. 그리고 누구 못지 않게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지나친 성과주의, 실적 등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장기전을 하는 자에게 알맞은 자세가 아니라는 반성을 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좀더 천천히, 알차게, 계획적으로, 조금씩 더 널리

내다보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8. 우리는 체포되었을 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중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최선의 노력과 기도를 드렸다. 제발 중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기도는 허사가 되고 말았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에야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우리는 중국을 떠나 안식년 동안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또다른 화교 선교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 두 번째 팀을 대만에 와서 대만 교회를 맡아 일하면서 또 다른 중국선교의 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중국에서 배울 수 없었던 중국어 신학 연수, 폭넓은 정보의 접촉 등 더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더 깊고 넓게 준비하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9. 우리 때문에 함께 구속되었던 중국인 형제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 나는 외국인이므로 그나마 몇 차례 얻어맞은 정도에 불과했지만 저들은 심한 매를 맞았다. 한 형제는 주먹에 맞아 이가 부러졌다고 하고, 또 어떤 형제는 전기 방망이에 얻어 맞았다는 사실들을 전해 듣고 매우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우리 사건으로 심문과 벌금 등으로 손해를 보고, 사회생활에서도 여러 모로 불이익을 당한 형제들에게 그저 죄스러운 마음 뿐이다.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중국 형제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재호/중국선교사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한 지식인의 고백

샤오 양(小羊)

사람마다 생명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생명의 의미를 아는 건 아니다. 사람마다 모두 살아간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두 아는 건 아니다. 인간은 진리를 찾기 이전엔,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이전엔 영원히 그 이치를 알 수 없다. 나의 경우를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엔 단지 허송세월을 보낸 것뿐이었으며,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

이성이 처음으로 신앙을 만나다

중국에서 '기독교' 하면 예의없는 사람은 당장 이렇게 말한다. "그건 미신이야, 정신을 의탁할 곳을 찾는 거야. 마치 불경 읽는 할머니 같아." 예의있는 사람, 특히 지식인들은 말하길 성경은 "일종의 문화입니다. 문화적 공헌이 적지 않죠. 성경은 지혜의 결정이며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인류의 낙후시대에 우주에 대한 무지와 공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엔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자연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건 서양인의 종교입니다. 중국에는 유교, 불교, 도교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같은 겁니다.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것이고 모두들 멍청하고 지식도 이성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 문제에 직면해서 왜 이해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부정해 버리는지 정말 당황스럽다. 사실 이런 사람들 중 절대다수는 성경에 쓰여진 것이 뭔지 전혀 모른다. 인류는 현재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으며 미래엔 심판이 도래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물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며,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시가 없다면 사람은 영원히 썩은 인간들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도대체 신은 있는가?

나의 칠 년 간의 신앙 경험을 돌이켜 보니 진리를 아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성이 없거나 쉽게 맹종

하는 사람은 아니다. 더욱이 우리는 무신론의 국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교만하고 마음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나 자신 이외에는 어느 것도 믿기 어려웠다. 나는 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대학 졸업 후엔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었다. 다년간의 논리적 훈련으로 인해 이성적 사고 문제에 능했다. 그래서 만



장승원 그림

약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믿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실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다. 증명이 된다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두뇌가 작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 중, 난 절대 망종이 아니었으며 이성이 결핍된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내 나이 5살 무렵, 동네의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다. 난 그 때 엄마에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후엔 뭘 묻혀?”라고 물었다. 사람은 왜 죽는 걸까, 죽은 후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와 무관해지는가? 사람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에 그날 밤 난 눈물이 펄펄 쏟아지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 문제는 꼭 유령같이 내 마음에 항상 떠돌았다. 대학에 다닐 땐 얼마나 많은 밤을 밤 하늘 별에 대고 물었던가? 인생의 의미는 대체 무얼까? 그 시절 중국엔 ‘인생의 의의’라는 주제가 한창 대두되었다. 학계, 신문계, 잡지엔 이런 주제가 항상 실렸다. 그러나 천여 년 전과 똑같이 어떤 이는 사람의 본성은 착한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고도 했다. 결국은 결론도 없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의문은 내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다.

톨스토이 작품이 내게 던진 것들

대학시절 문학에 대한 애호 때문에 강의 시간 외엔 명작 독서에 여념이 없었다. 유명한 작가가 썼다면 난 모두 읽고 싶었으며, 내 기억에 그 당시 내가 좋아했던 작품은 톨스토이의 작품과 인도 시인 타고르의 시집이었다. 독서 중 성경은 굉장한 책이며 서양의 여러 문화, 문학, 회화, 음악 등에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란 걸 알았다. 그 때는 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며 책에서 본 시골의 목사도 항상 바쁜 선량한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을 구하기에 항상 바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난 톨스토이의 책 중에서도 그 많은 종교 논술은 알듯 말듯 어려웠다. 『톨스토이전』을 읽고 난 후, 그가 문학 창작이 왕성한 시기에 복음서를 읽었기 때

문에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토지를 농노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도 직접 밭에 나가 일했으며, 종교 연구에 몰입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예수의 진리 외엔 다른 진리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보고 싶었으나 기회가 닿지 않았다.

난 창조자의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며 이 건 나의 고질적 고민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어떤 사람은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했다. 누구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몇 천 년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고, 유명 인사, 과학자, 대학자들도 믿었기에 난 무턱대고 부인할 수 만은 없었다. 더 큰 이유는 기왕 사람이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는 바에,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만물- 봄,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라-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일종의 위대한 지혜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으랴? 그 후에 난 성경 시편 19장(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을 읽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바로 신의 존재는 이렇게 간단하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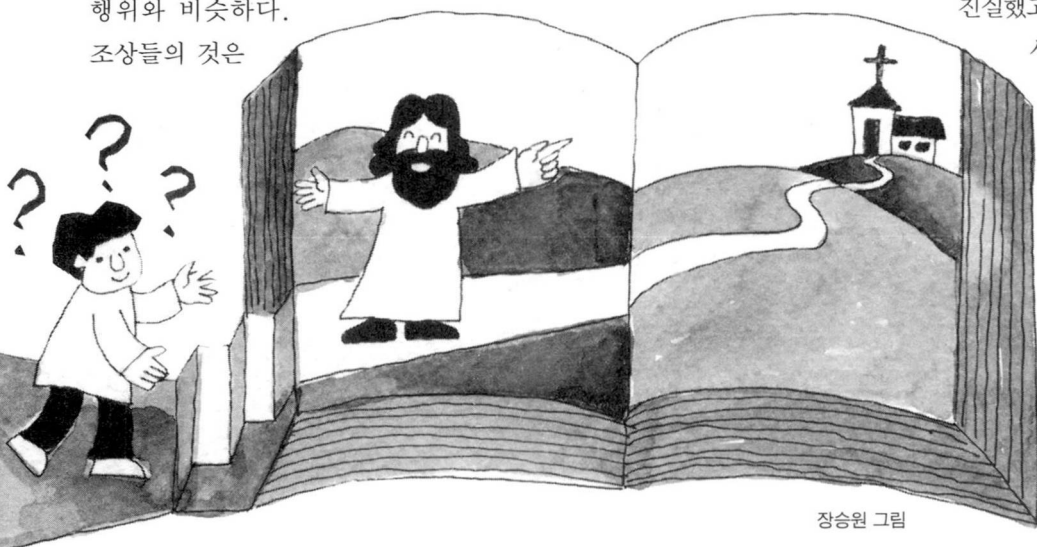
현대화는 중국을 구할 수 없다

졸업 후 이런 문제를 더이상 생각지 않게 되었다. 중국 사람들은 가난에 익숙해져 있지만 돈을 벌어 생활환경이 좀더 나아질 것을 바란다. 그동안 난 선원 생활을 하는 고향 사람에게 부탁해서 영문으로 된 성경을 구입했으나 알아볼 수가 없어서 읽지 않았다. 당시 중국은 새로운 역사 단계에 처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점차 붕괴되고 있었으며 경제 개방은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은 이전보다 나아졌고, 중국은 현대화 실현을 속도

를 빨리 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대화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자동차가 있고, 살기 좋은 집만 있으면 인간은 평안해지는가? 아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을 스트레스와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

전통 문화는 파괴되어 가고 있고, 도덕 윤리 개념은 변화를 맞고 있다. 소위 성인마저도 도덕적으로 부패해진다. 사람들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의식 형태 영역에서도 모순이 생겼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물질이 의식을 결정짓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사람들의 정신생활도 따라서 풍요로워진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이 왜 가장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들이 되었는가? 왜 마르크스 레닌 책을 숙독한 자들이 부패하는가? 중국은 현재 정신 문화가 허공에 뜬 사태에 처하게 됐다. 마치 거지가 조상의 유물을 다 팔아 넘기고 도처에서 구걸하는 행위와 비슷하다.

조상들의 것은



장승원 그림

맞지 않아서 서양의 것을 배워 사회주의를 이 땅에 들여왔으나 여전히 가난했다. 그래서 과학은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고 “4대 정책”(1960년 봄부터 전개한 농촌의 기계화, 수리화, 화학 비료화, 전기화 네 가지 정책)을 실시했다.

세계의 형세는 또 어떤가? 날마다 신문들이 사람들을 일깨운다. 인류는 현재 맹목적이고 제멋대로

굴고, 이성에 기대지만 이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전무후무한 교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 형세는 나날이 동요하고 있으며, 민족간의 모순은 점차 격화되고 전쟁의 불길은 끊이지 않고 인구는 폭증하고, 마약, 폭력, 음란물 등이 사람들을 근심스럽게 하고 있다. 질병, 홍작, 환경오염은 인류에게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다. 상업화는 인간을 명예와 이익을 좇게 만들고, 점점 더 이기적이고 냉담해지도록 만든다.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는 인류의 몇 천 년 동안의 문명이 도대체 세상에 무엇을 남겨 줬는지? 인생의 답안은 어디에 있는지? 세계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의 간증

내가 다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됐을 때 나의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는 기쁘게 내게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다. 친구의 태도는

진실했고 친구 아내 되는

사람의 마음은 더욱 뜨거웠다. 언제나 다급하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두 가족은 지금까지 관계가 좋다. 내

친구는 솔직하고 웃음이 많은 성격이어서, 전에는 사업상으로 늘 손님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곤 했다. 그의 아내도 싫은 내색 없이 기꺼이 손님들을 대접하곤 했다. 그래도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말다툼을 했다.

그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당시 난 거절할 수도, 받아들이지 수도 없었다. 난 예수에 대해서 정말 아

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란 정말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친구, 너 그렇게 급하게 굴지 마. 만약 네가 날 설득할 수 있으면 난 자연히 믿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해도 믿을 수가 없어”라고 혼자서 되뇌었다.

당시 난 성경이 없었다. 친구가 우연히 내게 신에 관한 소책자를 주어 읽었는데 읽고 난 후 기분이 유쾌했고 그 책을 읽은 후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 글을 쓴 작가들은 진심인 것 같았으며, 문제를 보는 눈이 예리하고 신기했으며 그들이 희망하는 바는 선량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마음속에 의문들은 여전히 끓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영혼은 있는가? 마귀는 있는가? 기독교와 그 밖의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예수의 존재는 확실한가? 정말 부활하셨을까? 성경은 분명 사람이 쓴 것인데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믿을 만한가? 허위로 쓴 것은 아닐까? 이런 문제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몇 번이고 난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했다. 다시는 생각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모르는 사이 어느새 또 내 마음에 의문이 일곤 했다.

이렇게 일 년여가 지났고 우리의 왕래는 적어졌다. 난 한편으로 다른 소책자를 구해 읽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친구 집에 가기가 싫었다. 그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매번 그와 만나면 그는 신앙 얘기를 꺼냈는데, 난 조금 거북스러웠다. 한참 동안은 친구도 인내심을 잃은 듯 나와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곧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가 마침 사상면에서 생활 면에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유희적인 생활에서 많이 멀어졌으며 부부 싸움도 적어졌다. 그는 좀더 많은 시간을 성경 읽는데 할애하고 싶어했으며, 이전의 그가 했던 많은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어서 하나님이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그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스승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성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진화론을 부정해야 한다.

진화론에 대해 의문이 있었기에 내겐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성경에서 ‘신이 만물을 창조하매 그 종류대로 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치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난 창세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설마 우주가 자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 말인가? 그러나 이 의문도 빨리 수정되었다. 과학자들도 우주는 기원이 있고, 대폭발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힘, 어떤 지혜가 질서정연한 우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지혜와 희로애락이 있는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성향은 우리 인간들의 이성이 다. 이성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을 때 영원히 반항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지위를 인정할 때 마치 존엄은 상실한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진실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 창조자에게 돌아갈 수 없을 때, 그것은 이미 자신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며, 방종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화합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말살한다. 친구는 나에게 대하여 급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우리 자네를 위해 기도밖에 할 게 없네”라고 절실하게 말했다.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다

비록 나는 하나님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성경 중에 몇 개의 경전에 매력을 느꼈다. 그 중 전도서와 아가서는 내가 즐겨보는 경전이다. 아가서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웠으며 순결했다. 전도서는 마치 도를 구하는 이가 자신의 경력을 얘기하는 것 같았다. 잠언은 지혜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복음서는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생겼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는 어떤 관계이며, 예수는 과연 신인가 하는 이런 의문들이었다. 이런 의문들을 품은 채 난 좀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는데 할애하기로 하고,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가 신이라면, 인간의 생사와 유관할 것이고, 만약 인간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무엇 믿을 수 있겠는가 생각했다. 나의 의문들의 해답은 최종적으로 신에게 쏠렸다. 그는 이

세상 일체의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는 우리의 이 세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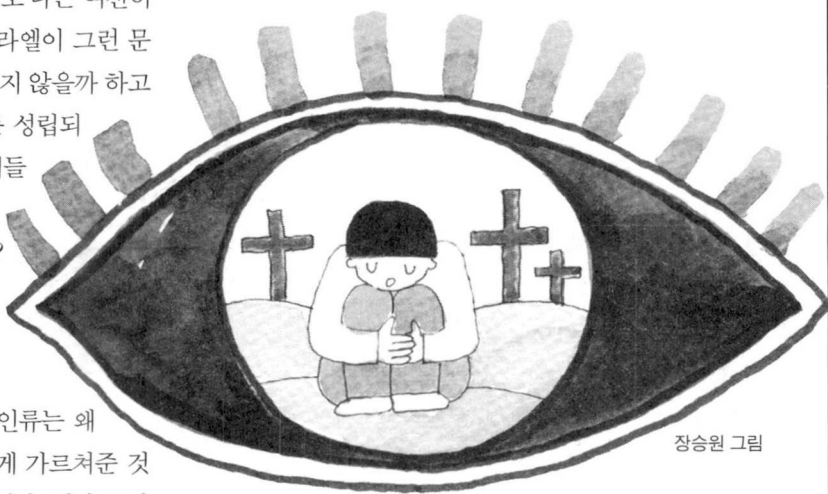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신을 알게 되다

나는 성경의 예언에 대해 요구하는 바가 까다롭다. 예언은 모호해서도 안 되고, 후세에 의해 위조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예언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명확한 영험이 있다면 사람의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요구에서 난 이스라엘의 예언과 관련된 성경, 유대인에 관한 소식을 조사, 고찰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3000년 전에 모세의 축복과 경고 중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민족의 분산, 광복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은 역사를 쓰는 것처럼 변경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선지서들이 모두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했으며, 영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치의 오차도 없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으며, 이스라엘이 그런 문화적 영향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내 이런 생각은 어쨌든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문화를 위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유랑을 떠나고, 피살당하겠는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다

사람이 만약 창조된 피조물이라면 인류는 왜 이렇게 부패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도 인류의 부패는 죄의 결과라는 것이다. 죄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죄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위배되면 곧 죄라고 하였다. 중국사람들이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인은 과실을 감추길 좋아하며, 중국의 문화 중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거짓말, 자만, 이기적인 모습 등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든 부정할 수 없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음을 보여준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졌다.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었다. 자연계에는 변화가 생겼다. 이것보다 더 좋은 해석은 없으리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원래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세상이었다. 그는 인간을 만물의 중간에 세웠다. 위로 그는 그와 교통할 수 있었고, 아래로는 그의 풍성한 베푸심을 누릴 수 있었으며 또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릴 때에는 위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나 죄가 이 모든 것을 파괴시켰다. 오늘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의 긴장, 불안은 죄의 결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은 하나님을 잃고 난 후 인간 본래의 위상을 애타게 찾으려 했기에 문화와 종교가 생겨난 것이다.



장승원 그림

오묘한 주 예수 앞에 엎드린다

이렇게 난 신앙문제에 좀 신중했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에 대한 나의 첫인상도 그러했다. 그분은 도덕적으로 고상하며 그의 교훈은 모두가 좋은 것이었지만, 난 그의 기적은 믿지 않았다. 역사상의 훌륭한 인물과 여러 종교들도 선행할 것을 권하지 않았던가? 만약 그렇다면 난 그를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의 말에는 인간의

한계성이 없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별로 신경쓰는 것 같지 않았지만, 심혈을 기울여 같고 닮은 것 같았다. 그의 생활에는 능력, 위엄, 권세가 있으며, 말을 할 때 한 번도 대충대충 하지 않았다. 또 죄악에 관해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했다.

모든 이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몽롱한 상태에서 다시 읽어갈 때, 난 마치 어떤 눈동자가 나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반성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의 일생 중에서 얼마나 사악한 생각을 많이 했으며, 나쁜 짓을 했던가? 나는 그에게서 일종의 지혜와 권능,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생명의 진화와 평형을 느꼈다. 그는 겸손하며 비겁하지 않으며, 말은 적되 심오하다. 그의 말에는 미래를 보는 투시력이 있다. 그는 일반적 의미의 사람이 아니며, 어떤 종교의 교주도 아니고, 우리와 멀리 떨어진 역사도 아니며, 공자, 맹자처럼 사람을 어찌할 도리 없게 하지도 않으며, 철학자처럼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으며, 또 불교처럼 세상과 떨어져 내면만을 들여다보게 하지도 않는다.

주님 부활의 진실

난 이전에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이유로 부정할 수가 없었다.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결함 때문이었다. 성경은 성실과 권위를 지니고 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말하길 “우리는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권능과 강림하실 것임은 너희에게 알렸다. 결코 멋대로 환심을 사기 위해 날조한 거짓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그의 위용을 봤음이라” 라고 했다. 난 이런 간증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내가 전면적으로 예수를 생각할 때, 구약에서 이미 여러 차례 예언을 했고, 또 예언대로 세상에 실현되었다. 그의 입술에서는 그렇게도 고상한 말씀이 나오며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그의 권능은 바다를 순탄케 할 수 있으며, 죽은 자를 부활시키며, 눈먼 자를 보게 만든다. 그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영원하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했으며, 이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고, 터럭만큼의 죄도 없다. 나는 그가 천지를 창조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모호함을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아버지 품의 독생자만이 그를 나타내 보이셨다. 난 전심으로 그를 찬양한다.

“주여, 당신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요. 또 내게 이미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에 저녁 안개 속의 비둘기같이 내게 편안한 안식처를 주셔서 내가 영생의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영국 선교사들

이삼열

개신교가 중국 선교를 시작한 이래,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침체 현상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다음은 <중화 기독교 연감(中華基督教年鑑)>에 발표된 당시 중국 교회의 교인 증가표이다.

(여기에 기재된 숫자는 개신교의 경우만을 말한 것이다.)

연도	선교연수	교인증가수
1807년	선교시작	교인 없음
1814년	7년	1명
1847년	40년	9명
1863년	56년	1,974명
1877년	70년	13,550명
1890년	83년	37,287명
1905년	98년	178,251명
1913년	106년	285,045명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반 세기 동안은 교인은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선교 시작 7년 만에 겨우 한 명의 교인이 생길 정도로 중국 선교의 진도는 매우 느렸다.

그러나 개신교 선교 56년 만에 9명에서 1,974명으로 획기적인 증가를 보인 이유는 중국과 영국 간에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남경조약과 더불어서 중국이 5개 항구를 개방한 데서 연유된 듯하다.

약 반 세기 동안 9명의 선교 실적은 선교에 대한 실의를 금치 못하게 하는 일이지만, 선교사와 후원 단체들은 더 큰 결실을 바라보고 반 세기를 참으며, 한 세기를 투자했다.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선교비가 투자되었는가는 물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 교회들은 현지의 선교사와 함께 이 어려움을 감내한 것이다.

18세기 유럽과 미국 전역에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 이 교회 부흥은 세계 선교를 촉구시켰으며, 금발과 파란 눈의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미지의 땅, 동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많은 열강의 나라 중에서 영국은 선교 사역이 가장 활발한 국가였다. 식민지 쟁탈이라는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은 도리어 선하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 당시 중국 복음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영국 선교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1. 영국 런던선교회

(London Missionary of Society)

18세기 세계 선교의 불을 힘입어, 1795년에 런던선교회(London Missionary of Society)가 조직되었다. 바로 이 런던선교회가 향후 12년만에 개신교 최초로 중국 선교의 길을 여는 데 역사적인 공헌을 하였다.

런던선교회 소

속의 모리슨

(Robert

Morrison)이

개신교 첫

선교사로

서 중국에

도착한 것

은 1807년 9

월 4일이었

다. 그는 런던

에서 여러 가지

선교사로서 갖추어



개신교 중국 첫 번째 목사 양발

야 할 훈련들을 받았으며, 1805년 런던 선교회에 입회 하였었다. 모리슨은 25세에 목사로 장립을 받았으며, 27세에 중국 선교를 위해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혼자서 개척해야 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으나, 모리슨은 가난과 배고픔도 참아가며 현지어 공부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생활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결국 선교사로서의 신변보장과 경제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동인도 회사에 통역관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모리슨은 동인도 회사 통역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성경 번역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들어온 지 3년만에 사도행전을 번역하였고, 4년만에 누가복음을, 그리고 6년만에 신약전서를 중국어로 번역 출판하였다. 그리고 12년 후인 1819년 11월, 마침내 신·구약전서 전부를 번역하여 신천성서(神天聖書)라고 명명하여 출판하였다.

또한 서방 세계에 중국을 알리기 위해 중국 서적을 영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였으며 사전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818년에는 밀네(William Milne) 선교사와 함께 말라카(Malacca)에 영화서원(英華書院)을 세워 15년 동안 40여 명의 지도자를 양성해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모리슨은 중국 개신교 첫 선교사답게 첫 중국인 목사를 세웠다. 당시 양발(梁發 1789~1855)은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모리슨이 번역한 성경의 인쇄를 양발에게 의뢰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것 같다. 양발은 1816년 말레이시아에서 밀네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1821년 모리슨에게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모리슨은 1834년 8월 1일에 하늘의 부르심으로 27년간의 그의 선교 사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실로 많은 일들을 했었다. 그의 이런 공헌들은 중국 교회는 물론 기독교 역사에 큰 의의를 주고 있다.

2. 대영침례회

대영침례회 선교사 마사만(Joshua Marshaman)은 어학의 수재였다. 그는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였으며, 1822년에는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였다. 마사만 선교사는 아편전쟁이 끝나고 남경조약이 체결된 후 대영침례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 Ningbo(寧波)에 도착하였다. 그는 Ningbo에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하다가 산둥성(山東省) 지부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하였다.

곧이어 대영침례회에서는 홀(Hall) 선교사와 크로커

(Kloekers) 선교사 두 명을 중국에 증파하였다. 그러나 이 선교사들은 사정에 부딪쳐 선교를 시작한 지 40년 만인 1870년 전원 귀국하고 말았다.

대영침례회에서는

그 해 티모시 리처

드(Timothy

Richard)를

중국 선교

사로 파송

하였다.

그는 그

해 산둥성

에 부임하

여 같이 파

송받은 파 의

사와 같이 산둥

북부 각지를 순회하

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대영침례회의 티모시 리처드 선교사

의약품도 공급해 주면서 열심히 선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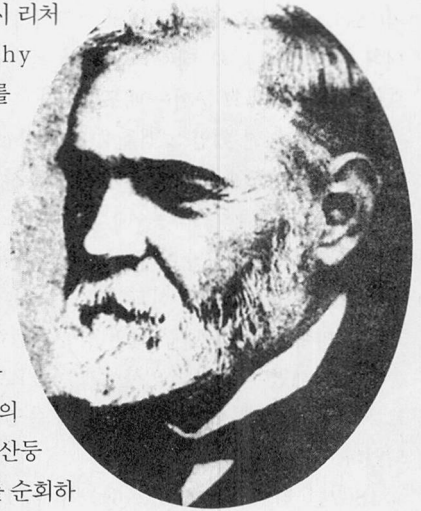
또한 그는 구제사업에도 힘을 썼는데, 그의 구제사업은 많은 구제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학문이 풍부하여 당시 유명한 중국인 학자들과 유명 인사들과의 교류도 가졌다. 그래서 당시 학계에서 이름있는 광학회(廣學會)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태서신사요람(泰西新史要覽), 자서정동(自西征東)의 명작을 번역 인쇄하였다. 1898년에는 광학회시사편집인(廣學會時事編輯人), 시사중간(時事叢刊), 양계초론저(梁啓超論著) 44편, 강유위론저(康有爲論著) 38편, 디모데론저(提摩太論著) 33편을 편집 출판하여 문학계에 큰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1916년, 그는 노병으로 귀국하였다가 중국에 다시 오지 못하고 74세를 일기로 소천하였다. 대영침례회에서는 그의 후임으로 저명한 인사 존 테일러(John Taylor)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의 사역을 잇게 하였다.

3. 대영장로회

대영장로회는 남경조약이 체결되자 곧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결의하고, 1847년 윌리엄 번즈(William Burns) 선교사와 제임스 양(James Yang) 선교사 두 명을 파송하였다. 이 두 선교사는 홍콩, 샤먼(廈門), 광둥



(廣東) 등지를 순회하며 열심히 선교하였다. 윌리엄 번즈 선교사는 「천로역정(天路歷程)」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배포하였다.

1806년 9월, 더글라스(Carstairs Douglas) 목사와 매켄지(Mackenzie) 목사 등, 두 명의 선교사가 대만에 파송되어 단수이(淡水)와 맹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1864년 제임스 맥스웰(James Maxwell) 의사는 선교사로 샤먼으로 파송하였다. 그는 샤먼에 도착하여 중국어를 습득하고, 다음해 5월에 천쯔루(陳子路), 황자즈(黃嘉智), 우용수이(吳永水) 등과 함께 대만 남부의 각지를 순회하면서 선교하기도 하였다. 제임스 선교사는 의사로서 먼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제임스의 의사에게 처음으로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가오장(高長)은 후에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한다.

1867년 리치(Hugh Ritchie) 목사, 1871년 캠펠(William Campell) 목사, 1874년 자이(嘉義) 목사 등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 대만으로 파송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하였다. 대만의 복음화는 바로 이들, 대영장로회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중국내지선교회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는 영국의 복음선교회에서 파송받아, 1854년 3월 1일 상하이(上海)에 도착하였다. 당시 상하이에는 청 정부군과 태평천국군이 대립하고 있었기에 어떠한 활동도 불가능하였으나, 그를 파송한 선교회는 실행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계획만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런던선교회 소속 윌리엄 록하르트(William Rockhart)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상하이에 정착할 수 있었다.

그 당시, 그는 목사도 아니었고 의사 면허증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지만,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였다. 어느 정도 언어에 익숙해지자 그는 배를 타고 양쯔강(揚子江) 입구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전도의 경험을 얻은 그는 중국인 속으로 뛰어들어가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855년부터 중국식 복장과 변발을 했다. 그러자 상하이에 주둔한 모든 선교사들이 이를 비난하였으며, 영국의 선교 후원자들도 그의 선교방법을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목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었기에 비난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본국의 후원

단체인 영국 복음선교회도 후원을 단절하고 말았다. 원조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자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1857년 5월 29일부로 영국의 중국 복음선교회를 사면하였다.

그는 생계가 막연하여졌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환경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양쯔강 연안과 시골로 다니며 복음 전파에 시간을 투자하였다. 후원자 없이 고생한 초기의 선교사역은 그의 독특한 중국 선교방법을 창출해 내는 과정이었으며, 독립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게 틀을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65년 그는 '중국의 영적 필요와 간구(China's Spiritual Need and Claims)'라는 호소문을 유럽 전역과 미주지역에 보냈다.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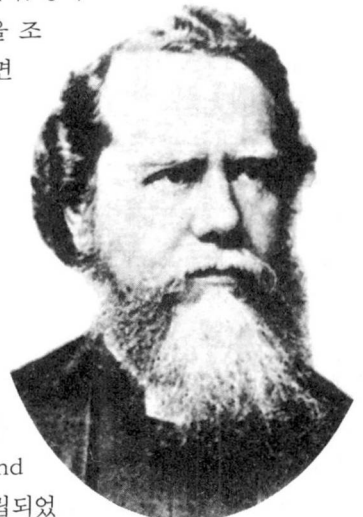
선교의 절박성을 조
리있게 호소하면
서 22명의 자비
량 선교사가 중
국에 와서 선
교사역에 종
사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
다. 이것이 계
기가 되어 <중
국 내지 선교회

(China Inland Mission)>가 설립되었

고 1천여 명의 선교사가 배출
되었다. 베이징조약에서 내지 선교를 허용하였기에 그 조건을 타고 내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는 한 지방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힘쓰기보다 많은 지방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하였다. 그의 복음 전파의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1856년 저장(浙江)성, 1867년 장쑤(江蘇)성, 1868년 장시(江西)성, 1869년 안후이(安徽)성, 1874년 후베이(湖北)성, 1877년 산시(山西)성, 1877년 쓰촨(四川)성, 1877년 꾸이저우(貴州)성, 1878년 간쑤(甘肅)성, 1879년 산시(陝西)성, 1879년 산둥(山東)성, 1881년 윈난(雲南)성, 1884년 허난(河南)성, 1901년 후난(湖南)성, 1908년 신장(新疆)성 등이다.

허드슨 테일러가 죽은 후에도 중국내지선교회는 계



중국내지회 창설자 허드슨 테일러

속 발전하였다. 그 당시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선교사의 50%에 해당하는 선교사들이 내지선교회 소속이었다고 하니, 중국내지선교회의 활동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선교방법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초교파적으로 받아들여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이었다. 이에 속한 선교사들은 후원 단체를 의지하고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에 임하였다. 그들은 희생적인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중국인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주고 받아주며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성공비결이었다.

5. 대영성서공회

대영성서공회(大英聖書公會)는 1822년부터 모리슨이 번역한 중국어 성서를 전부 인쇄 출판하였다. 밀네(Milne)목사와 메더스트(Medhurst) 목사 등의 성서 번역사업도 대영 성서공회가 전적으로 원조하여 주었으며, 중국 남부와 인도, 말레이시아, 월남 등에 거주하는 중국 화교들에게 중국어 성서를 무료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1842년 아편 전쟁 이후, 대영성서공회는 홍콩으로 활동의 중심지를 옮겼으며 태평천국의 혁명 때에는 홍수전을 전적으로 원조하여 수요에 따라 중국어 성서를 많이 보내주었다.

1860년 베이징조약에 의하여 외국인들이 내륙지방으로 자유롭게 여행하며 선교할 수 있게 되자, 상하이의 성서공회는 출판부를 개설하여 와일(Wylie) 목사에게 상하이 출판부장의 책임을 맡겨 본격적인 중국어 성서 반포사업을 전개하였다. 와일 목사는 대영성서공회를 대표하여 화북, 화남, 화중의 17개 성을 순회하면서 성서를 염가로 반포하였으며, 내지선교회와 협조하여 성서 반포사업은 중국 내에서 크게 성공하였다.

6. 대영교회

대영교회는 남경조약이 체결되자 재빠르게 1842년 조지 스미스(George Smith) 목사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그는 1844년 홍콩에 도착하였으나 2년 후 건강문제로 귀국하여 수양하였다. 1847년 그는 다시 대영교회의 홍콩 주교로 취임하였다. 그는 홍콩을 근거지로 삼고 13년 간 열심히 선교활동을 하다가 은퇴하였다.

1860년 베이징조약이 체결되어 중국 선교지가 광범

위하게 확대되자 대영교회는 토머스 맥클래츠(Thomas McClatch) 목사를 상하이로 파송하였다. 그는 1865년 상하이에 도착하여 성삼일교회를 설립하고 약 40년 간 정열을 다하여 목회하였다. 그의 저서로서는 「중국개벽설(中國開闢說, Chinese Cosmogony)」이 있다. 그는 중국의 「예기(禮記)」를 영역하여 중국을 서구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는 1885년 영국에서 서거하였다.

그 후 대영교회는 1868년 코볼드(Cobbold) 목사와 러셀(W. A. Russel) 목사 두 분의 선교사를 Ningbo(寧波)에 파송하였으며, 그 두 선교사는 그곳에서 대영교회를 개척하였다. 그 외에도 수명의 선교사가 중국에 파송되었다고 한다.

7. 중화성공회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중국 내에서 선교지가 확대되자 중화성공회에서도 중국 선교사업에 착수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스튜어트(J. A. Stewart) 선교사와 버든(J. S. Burden) 선교사가 베이징에 파송되었다. 그들은 1863년 산둥성과 산시성에 한재가 닥쳐 흉년이 들자 아사자(餓死者) 구제사업에 힘을 다하였다. 스콧 선교사는 2년 후 산시성(山西省), 산시성(陝西省), 간쑤성(甘肅省), 허난성(河南省) 등 5개 성을 통괄하는 주교직을 맡게 되었다.

8. 스코틀랜드장로회

스코틀랜드장로회에서는 존 로스(John Ross) 목사와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목사를 중국 북부지방에 파송하였다. 그들은 1872년 만주지방에 도착하여 선양(沈陽), 랴오닝(遼寧) 등지에 교회를 설립하고 학당과 신학원을 창성하여 인재 양성에 노력하였다. 그의 교육을 받은 자 가운데 전도사업에 헌신한 중국인이 수십 명이 넘는다고 한다. 선양 동관교회에는 존 로스 목사의 기념비가 세워졌었다.

존 로스 목사와 존 매킨타이어 목사는 동북부의 조선 인촌에 심방하여 75명에게 세례를 준 일이 있다. 이 두 선교사는 한국에서 순교한 토머스 목사의 피 값을 찾기 위하여 한국인 청년들에게 전도하였다. 서상륜과 같은 한문학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와 공동작업으로 신약성서를 한글로 번역 출판하였다. 이 때 번역된 신약전서가 한국 교회의 설립에 초석이 된 것이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삶을 드린 샬로트(로티) 딕스 문

루스 터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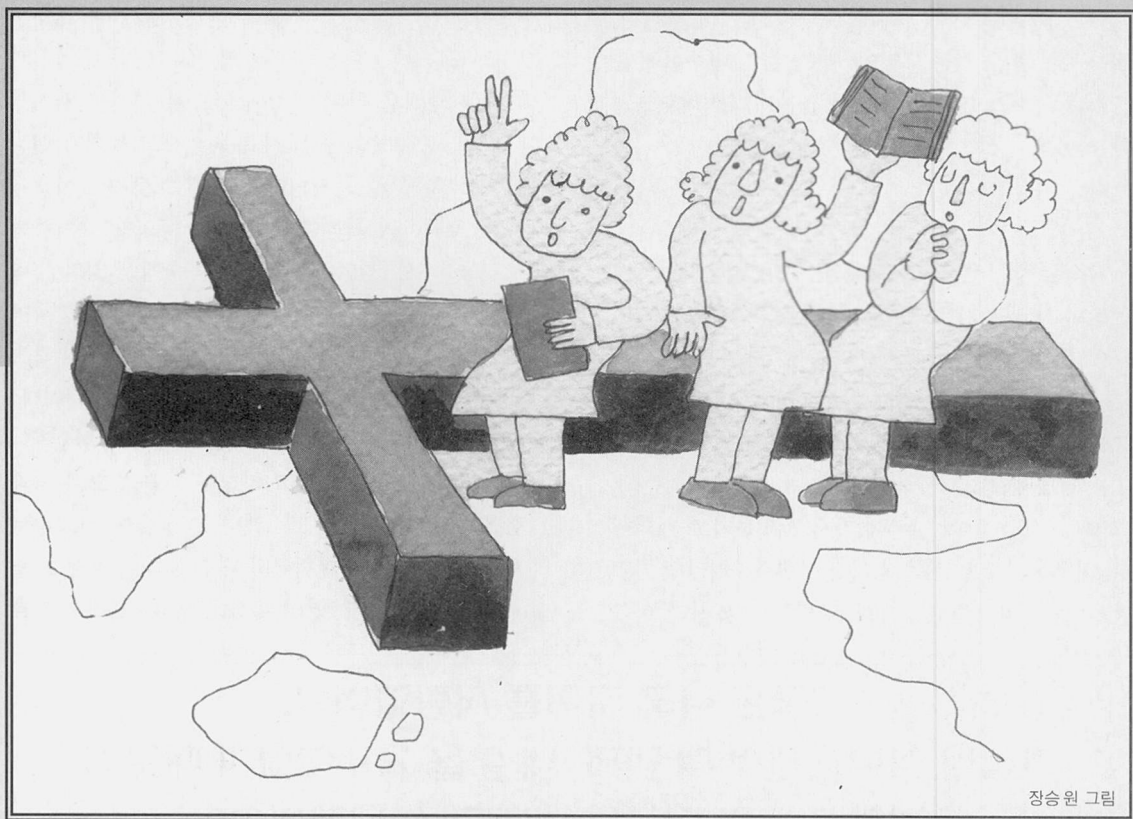


하나님의 소명, 모험적인 기질, 남녀평등 의식, 이런 것들이 독신 여성들을 선교 사역에 나서게 한 원인들이라면 샬로트(로티)딕스 문(Charlotte(Lottie) Diggs Moon)이야말로 이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춘 여성 선교사였다. 비록 그녀는 선교사로 헌신한 첫 번째의 여성은 아니었지만, 여성 선교사로서 큰 성공을 거둔 첫 번째 여성 선교사였다. 그녀가 선교에 끼

친 공적은 지대해서 오늘날에도 그녀는 여전히 침례교 선교의 “수호성인”이라고 불릴 정도이다.

로티 문은 1840년 버지니아 알베말 군(Albemarle County)에서 태어나 뷰몬트(Viewmont)에서 자라났다. 그녀에게는 7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홀로된 모친에 의해, 엄격한 신앙과 훈육으로 독립성을 지니도록 양육받았다. 가장 맏이인 토마스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으나 더욱 유명해진 이들은 여동생들이었다. 오리아나(Orianna) 역시 의사가 되어서(그녀는 남부에서 가장 명성을 얻은 여자 의사였다.)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 사이에서 사역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남군의 군의관으로 봉사하였다. 일곱 중 제일 막내인 에드모니아(Edmonia)는 남침례교가 파송했던 최초의 독신 여성 선교사 2인 중의 한 명이었다. 그러나 그 집안의 명예를 가장 빛낸 사람은 역시 로티였다.

로티 역시 수준 높은 교육과 교양을 갖추었다. 대학에 다닐 때 어머니의 엄격한 침례교식 양육에 반기를 들기도 했으나 캠퍼스를 휩쓴 부흥운동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나는 비판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



장승원 그림

해 보았지만 내 방으로 돌아와 저녁 내내 기도해야만 했다.”

그녀는 대학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다른 식구들은 “남군의 깃발 아래 싸우면서”, 스파이나 뛰어난 게릴라 활동으로 “빛나는 업적”을 이루고 있었다. 로티도 흥분하며 형제들을 따라나섰으나 그것은 헛된 일이었고, 그 일은 도리어 중국으로 파송되는 기회가 되었다.

동생의 뒤를 이어 중국으로...

전쟁이 끝난 후 로티는 교사가 되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기독교 전임 사역자가 되어 모험을 하고픈 마음이 더욱 강렬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여자와는 달리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에 별로 구애받지 않았다. 의사와 남군의 간부와 스파이 등으로 활동했던 식구들 중에서도 가장 역센 여자였던 그녀는, 여성

이 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다. 1872년에 여동생 에드모니아는 중국으로 떠났고 1873년에는 로티가 뒤를 이었다.

로티는 처음에 동생의 협력자로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하였다. 십대의 나이로 중국에 건너갔던 에드모니아는 텅저우(滕州)에서의 선교사 생활을 견뎌낼 수 없었다. 그녀는 육체적 질환으로 고생했을 뿐 아니라 한 동역자에 따르면 “색다르고 이상한 것”을 하여 다른 선교사들에게 부담스런 인물이었다고 한다. 결국 1877년, 중국에서 4년을 지내고 에드모니아는 고향 버지니아로 돌아갔다.

로티는 동생의 병간호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동생이 떠나버리자 이제 마음대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 도리어 침체기에 빠졌다. 그녀는 본국 선교부에 이런 편지를 써 보내

기까지 하였다. “저는 혼자 사는 것에 싫증납니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모임이나 사람들이 내주변에 없습니다. … 어느 때는 내가 그냥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 삶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로티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은 외로움뿐만이 아니었다. 남군의 군목이었던 옛 애인 크로포드 토이(Crawford Toy)는 종전 후 뷰몬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그 당시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에 있는 남침례교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결혼하여 일본에 가서 선교하자고 제의했다. 대부분의 외로운 독신 여성 선교사들이라면 이런 안을 선뜻 받아들였겠지만, 로티는 괴롭지만 이를

“여성들도 완전한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토이가 청혼을 하는 동안 중국에서 로티의 선교 사역은 괴롭고 힘들기만 했고, 선교사의 낭만 같은 것은 이미 사라져 버린 지 오래였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교양을 갖춘 남부의 미인인 그녀가 중국인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둔한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신앙을 가르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이것을 위해 조지아의 카터스빌에 있는 학교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포기했던 말인가? 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고작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란 공부하기 싫어하는 40여 명의 꼬마들을 가르치는 데 매여있는 것이다’라며 선교사역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으며, 한편 “왜 여성만 재능을 허비하고 하찮은 일을 함으로 낭패감을 맛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성들이 선교사로 오게 되면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원대한 포부를 펼쳐나가는 대신, 몇 명의 계집애들이나 모아서 가르

“물론 나도 그이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먼저 내 삶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토이는 독일 신학자들의 신신학의 영향을 받아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이미 남침례교 총회 내에서도 그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티는 이러한 그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또 진화론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읽은 결과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사상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청혼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수년 후, 그 당시 그를 진정 사랑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물론 나도 그이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먼저 내 삶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토이는 교수직에 계속 머물러 하버드대학교에서 히브리어와 셈어를 가르쳤고, 로티는 로티 자신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

치는 일에 얽매게 된다. 중국에 오는 여성 선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큰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여성들도 완전한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로티의 선교지에서의 남녀 차별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급진적인 태도임이 분명했으나, 이로 인해 한 차례 논란이 일게 된 것은 로티가 이를 사적인 편지에서 쓴 것이 아니라, 선교 잡지에 논문으로 게재하였기 때문이었다. 로티가 이 글을 써내자 즉각 반발이 있었는데, 특히 여성해방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더욱 그랬다.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이 로티의 동료였던 아더 스미스(Arthur Smith)부인이었다. 그녀는 중국에 온 회중교회 선교사 부인이었다. 스미스 부인은 로티가 그렇게 “분별력 없이, 온 선교지에서 뛰는 것”을 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며 여성 선교사의 적당한 역

할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티로서는 도저히 스미스 부인이 제시하는 여성 선교사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로티의 독립선언

그 당시 독신 여성이 선교사촌을 떠나 교외에 거주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중국인 촌락들을 여행하기 시작하였다. 1885년에 이르자 로티는 자신이 만약 평두(平度)로 옮겨간다면 더욱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자신만의 힘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다. 로티는 복음사역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픈 마음 이외에도 극도로 독단적인 선교회의 리더, 크로포드(T. P. Crawford)의 전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크로포드의 방침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로티는 교육사역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의 권위 아래에, 독신 여성 선교사들의 지위가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하였다. “단지 정의라는 측면 한 가지로만 따져 보아도 여성은 선교회 모임에서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역면에서도 동일한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로티는 평두로 떠나면서 본국의 선교회에 편지를 보내 크로포드와 그의 운영방침(학교의 폐쇄와 “선교사 사례비의 운용” 등을 포함하여)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게 봉급을 보내 주세요.”

이미 44세의 중년이었고 12년 동안이나 중국에서 일해 온 고참 선교사였던 로티의 그런 발언은 그 당시 다소 도전적인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만 여성 선교사가 취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이 너무 좁은 데 대해 항의했을 뿐이었다.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두로 옮겨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개척사역이란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다. 여자 혼자서 몸으로 그 열악한 중국에 적응

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았으며, 그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몇 명의 부인들만을 친구로 삼을 수 있었다. 여자 친구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려면 먼저 남편들을 개종시키야 했다.

로티가 처음으로 중국인 남자와 접촉할 기회가 생긴 것은 1887년, 근처 마을에 사는 3명의 남자가 평두에 있는 그녀의 집 대문을 두드렸을 때였다. 그들은 마을의 아낙네들 사이에서 은밀히 나돌던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는 좀더 자세히 듣기 위해 로티를 찾아온 것이다. 로티가 그들의 마을을 방문했을 때 발견한 그 같은 배움의 열의와 영적 열심은 이전에 중국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자극을 받아 그녀는 오랜 기간 예정했던 휴가를 취소하고 선교회 리더의 부인이었던 마르타 크로포드(Martha Crawford)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사역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은 충분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로티는 본국에 보낸 편지에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반발을 무릅쓰고 교회를 설립하여 1889년에는 안수받은 침례교 선교사를 모셔다 첫 번째 침례를 실시하였다.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20년 내에 되도록이면 외국 선교사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로티의 정책에 따라 리슈팅(Li Shou Ting)이라는 중국인 목사에게 의해 1,000명 이상이 침례를 받았으며 평두는 중국 전역에서 남침례교 최대의 선교중심지가 되었다.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로티의 저술

1890년부터 그녀가 임종한 1912년까지 로티는 중국의 두 지역에서 각각 살았다. 처음에는 시골에 살면서 복음사역을 하였고, 후에는 텅저우에 살면서 새로 오는 선교사들의 훈련 및 중국 여자들과의 상담 사역에 힘썼으며, 서양 책과 잡지들에 글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저서들은 남침례교의 선교사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녀 역시 미국에 휴가를 와서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남부의 많은 침례교 여성들의 마음을 움

직인 것은 설교가 아니라 그의 저술이었다.

로티의 저술들은 대부분 해외선교 사역에 대한 침례교 여성들의 더 많은 후원을 촉구하는 것이었지만, 때로는 남성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도 있었다. “남부의 100만 침례교 성도들이 중국 전역에 겨우 3명의 남성 선교사들만 보냈다는 사실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버지니아 주에만도 500명의 목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서 침례식을 거행하기 위해 장로교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러한 장면을 하늘에서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아마 모두 중국에 의아한 눈길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녀는 썼다. 그러나 만약 남성들이 해외 선교 사역에 가까이 헌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로티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남감리교의 예를 들었다. 중국에서 남감리교의 선교 사역이 거의 무너지려고 할 때 “감리교 여성들의 헌신”에 의해 선교 사역이 재개되었던 것이다. 만약 감리교 여성들이 무너질 뻔했던 해외선교 사역을 살려 놓았다면 침례교 여성들이 못할 바가 무엇인가?

선교 자금으로만 쓰여질 로티문 크리스마스 헌금

그녀는 여성들의 선교 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일 주일 간의 기도회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오로지 여성들에 의해 선교 자금으로만 쓰여질 재정을 위한 크리스마스 특별헌금을 기획하였으며, 남자 선교사들이 사직함에 따라 비게 된 자리를 맡기 위해서 “활달하고 건강한 여성들”을 모집하였다. 즉시 반응이 나타났는데, 마치 여성들만 선교에 관심이 있는 듯이 보일 정도였다. 첫 번째의 크리스마스 선교헌금은 1888년에 있었는데,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1천 달러나 많이 모금되어, 시작하는 2명의 선교사 대신 파송할 3명의 여성 선교사를 보내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한다. 로티는 신이 났다. “저는 열성적이고 경험 많은 여성 선교사들을 한 팀 조직하여 평두로부터 북쪽으로, 그리고 친키앙(Chinkiang)으로부터 남쪽으로의 선교 사역을 맡게 하고 그 둘을 연결하여… 여성을 위한 여성의 강렬한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크리스마스 선교 헌금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중국으로 가는 독신 여성 선교사들의 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의화단 사건(이 때문에 로티는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후, 20세기 초의 중국에서의 선교 사역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전염병과 천연두가 나돌았으며 기근이 뒤를 이었고, 1911년에는 지방의 반란이 일어나 텅저우 근방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로티는 구호단을 조직하고 미국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다. 로티는 개인 재산을 다 바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았으나 엄청난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은행에 조금 남아있던 마지막 돈까지 쓰고 로티는 절망하여 쓰러졌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했으며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의사를 보냈으나 의사가 가서 한 일이라고는 그녀가 영양실조로 죽게 될 것을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로티의 친구들은 그녀를 살릴 마음으로 간호원을 팔려 본국으로 후송하려 했으나 너무 늦었다. 그녀는 1912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72세 생일을 1주일 앞두고 일본 고베에 정박해 있던 배 위에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로티는 생전에 못했던 일을 사후에 하였다. 그 후로 계속 “로티 문 크리스마스 헌금”(Lottie Moon Christmas Offering)은 증가하였고 로티 문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다. 1925년에는 헌금 총액이 30만 달러가 넘었고, 최근에는 1년에 2,000만 달러가 로티 문의 이름으로 모금되어 남침례교 선교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 남침례교 여성들에게는 로티야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기독교 여성상과 남녀평등에 빛나는 본이 되었다. 그녀가 죽었을 때 《해외 선교사 저널(Foreign Missions Journal)》은 그녀를 가리켜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함으로써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중국을 떠들썩하게 한 어느 지식청년의 외침

장쑤(江迅)

30년 전 1천7백만 지식청년들은 배움의 기회를 잃고 농촌노동에 소집되었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사회 밑바닥 계층으로 자리잡고 있어 사회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 이들이 또한, 오늘 인권문제의 시각에서 과거 지식청년 운동의 허와 실을 되돌아보고 있다.

강렬한 색채와 복잡다단한 의미를 지닌 중국의 “지식청년들의 농촌이주 운동”이 시작된 지도 어언 30년이 지났다. 문화대혁명 후반기에 시골로 내려간 1천7백만 지식청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험난하고 힘든 운명을 겪었다. 지금까지 살아 있는 당시 지식청년들은 대학진학, 출국, 개인 사업 운영, 관직 임용자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이 실직과 실업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이들 자녀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불안정한 생활로 인한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다. 이들은 빈부 격차가 점차 심각해지는 오늘의 중국에서 사회불안정의 잠재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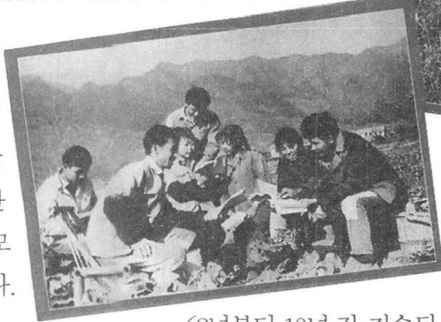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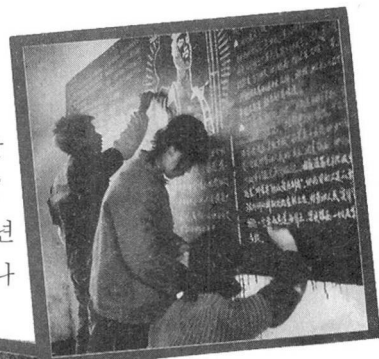
사회의 불공평함을 호소하는 두 세대, 20년 동안 지식청년들에 대해서는 단지 “산전수전 다 겪은 세대”라는 인식뿐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시작 된 지 30주년이 되는 98년 말, 사회 일각에서는 이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인권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들이 생존권, 교육을 받을 권리, 거주권, 직업선택의 권리 등을 박탈당한 데 대한 책임을 따져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수천만 농민들도 이 운동의 피해자이며, 지식청년들의 시골 행을 계획한 것도 농민들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식청년이라고 불리던 제 1세대 사람 중 많은 이들이 현재 사회로부터 도태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 절대다수는 일반 노동자였는데, 현재 어떤 이는 정리해고로, 어떤 이는 퇴직으로 어떤 이는 병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

태다. 이들과 그들 후대들은 사회의 불공평함에 대해 마음 가득한 불만을 품고 있다.

이 엄청난 사회운동은 이미 먼지 잔뜩 묻은 역사 유물처럼 사람들의 기억 한 귀퉁이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20년 전 중국의 11차 3중 전국 인민대표자대회 이후로 중국인들의 생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우파 반대', '문화대혁명', '6·4천안문 사태' 등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 중 '지식청년' 문제도 주요 논의대상이다. 이 운동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연출해 냈다. 이들 세대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계획경제의 사고방식, 농촌의 큰 숯밭식 보수체제와 생활방식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유경쟁 체제와 극렬한 충돌을 빚기도 한다. 이 세대 중 대다수 사람들은 과거 몇 십 년 동안 먹는 일과 주택, 병 치료, 자녀양육, 부모 봉양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시종일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나 기회, 개인의 능력 같은 것은 일찌감치 박탈당했던 것이다.

이들 수천만 지식청년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68년 12월 22일에 발표된 마오쩌둥의 발표문이었다. 이날 중공 중앙의 기관지 '인민일보' 머릿기사는 다음과 같은 마오쩌둥의 최고지시를 싣고 있다. "지식청년들은 농촌에 내려가 농민들로부터 재교육을 받으라. 도시의 당 간부나 기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자기 자녀들을 농촌으로 보내라. 이들이 소집되면 각지에 있는 농촌의 농부들은 이들을 마중 나가라".

마오쩌둥(毛澤東)은 오래 전부터 기존의 교육체제와 지식인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지식인들을 농촌으로 내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젊은이들은 미치광이 같은 정치이념과 헛된 환상을 품고 아무 것도 모르는 농촌으로 내려갔다.



68년부터 10년 간 지속된 '지식청년 시골 내려가기' 운동은 기세 등등한 강제 동원운동으로 변질되면서 1천7백여 만 청년들을 산이나 시골로 내려보냈는데, 이 운동은 제 1세대뿐 아니라 후세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인적손실을 끼치면서 제 1세대들의 청춘을 앗아갔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지식청년들이 도시로 되돌아와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도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이들의 방해공작에 부딪쳤고 치욕감과 속임수를 맛보았다. 북경의 군사평론가 저우정바오(周政保)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식청년이라는 이 무리들은 평생 정신적으로 유린당하

고 왜곡당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유린당하고 왜곡당했으면서도 이 사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고통은 보통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만나는 보통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중국현대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희생자들입니다”

인터넷에 험난했던 세월 다시 재연

인터넷상에서 마리는 ID를 가진 나이드 지식청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세대는 태어나서는 배를 굶고, 학교에 다니면서는 문화대혁명을 만나고, 졸업해서는 농촌으로 쫓겨났고, 도시로 돌아와서는 일자리를 잃었고, 애는 하나만 낳아야 했으며, 몇 대에 걸친 빛은 모두 자신들에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동남해라는 ID를 가진 또 다른 지식청년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들은 지식청년으로 두 개의 호칭으로 불렸다. 시골에 있을 때는 지식청년, 도시로 돌아와서는 떠돌이였다.”

배우지 못한 한을 다음 세대에서 이루고자

린쉐쥔(林學軍)은 베이징(北京)의 한 건축회사의 건축인부로 69년 헤이룽장(黑龍江)에서 가족을 길렀다. 금년 46세인 그는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반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이제 겨우 걸음을 걷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20년 전에 저는 천하장사였습니다. 먹기도 많이 먹고 힘도 남들보다 좋았었죠. 10kg 나가는 짐을 어깨에 가볍게 메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농촌으로 내려간 이유는 만일 내가 시골로 가면 집에 장장이 하나 줄어 남, 여동생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는 않습니다. 저는 그 힘든 과정들을 거친 후 자립능력을 길렀고 정신적으로도 훈련이 되어 진짜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다운 남자들은 점점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만일 제게 충군이 한 번만 더 주어진다면 저는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배우지 못한 게 제일 한입니다. 이 한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꿈을 제 자식들을 통해 이루고 싶습니다. 술을 팔든가, 피를 파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은 대학에 보내고 싶습니다.”

상하이(上海) 중산베이루(中山北路)에 있는 ‘영원한 북방황무지의 정’이라는 식당이 있다. 식당 대문에는 ‘흑룡강의 깊은 정’이라는 팻말이 걸려있고 문 옆의 유리케이스에는 월급봉투, 시골로 내려갈 때의 승차권, 변방통과증, 그리고 북방황무지에서 찾아온 마차용 마구들 지식청년들이 보내온 역사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당시 지식청년이었던 사람들은 떼거리로 식당에 몰려와 흙 침대 위에 둘러 앉아 동북요리와 술을 잔뜩 먹고 마시면서 당시를 회상하곤 하였습니다.

부사장 류젠정(劉建政)은 아주주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식당에는 지식청년들의 모임이 항상 열리고 있습니다. 식당을 개업한 지 2년여 동안 4,5천 명의 지식청년들이 이곳에 찾아와 과거를 회상하곤 하죠. 토요일, 일요일 저녁은 빈 자리가 하

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만일 전 중국에서 “농촌 내려가기 운동”의 전모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顧洪章(꾸홍장)이라고 누가 말했다. 5년 전 그는 내무부의 이주담당부서에 들어가 당시 시작단계이던 농촌이주 문제를 담당했다. 그 후 그는 94년까지 줄곧 국가 산하의 농촌이주 부서에서 일해 왔다. 살아 있는 문헌자료백과 라고 불리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화대혁명 전후로 농촌 이주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화대혁명 전에는 국가지도자들이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취업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죠.”

꾸(顧)씨는 이렇게 말했다. 55년 연말에 마오쩌둥은 한 문장을 통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농촌은 광활한 세계다. 농촌에서는 큰 꿈을 일구어 낼 수 있다.’ 이것이 마오쩌둥의 농촌이주운동에 대한 최초의 발언이었다. 그렇지만 농촌으로 내려가라고 한 것은 농촌의 필요성 때문이지 도시인구 취업문제 해결 때문은 아니었다. 62년이 되어서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농촌이주 작업이 실시되었으며, 문화대혁명 발발 5년 전까지 모두 129만 명이 농촌으로 이주했다. 꾸 씨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이 농촌이주 운동이 문화대혁명 10년 동안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마오쩌둥이 68년 12월 22일 발표한 그 말 한 마디가 많은 지식청년들의 농촌이주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것이 마오쩌둥의 2번째 호소문이었다. 68년 11월 학교에서는 68회 졸업생들이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66, 67회의 졸업생들 대부분이 직장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것은 당시 중국의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당시 문화대혁명 전에는 17년 간 받은 교육 전부가 부르조아 계급의 영향을 받아 모든 교육이 수정주의 교육이므로 반드시 농촌에 내려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농촌이주 운동이 애초에 의도했던 취지는 점차 변질되어 갔으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농촌에 내몰림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했다고 고씨는 말한다. 그 후 얼마 있다가 도시건설에 사람들이 필요해지자 농촌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도시나 공장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그러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지식청년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흘러갔다.

77년 8월 중공정권은 문화대혁명 종결을 선언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해 42일이 걸린 전국 지식청년 농촌이주 작업회의가 마무리됐다.

수천만 지식청년 중에서는 극소수지만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영화감독 장이모우(張藝謀)가 있다. 중국이 낳은 걸출한 제 5세대 영화감독 장이모우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영화인이다. 69년 시안(西安)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그가 농촌운동에 가담한 것은 19세 때, 그는 산시(陝西)성 첸셴(乾縣)에서 3년 동안 노동일을 했다. 장이모우 자신도 인정하듯이 그가 찍은 영화의 대부분 소재는 농촌에서 찾는다. 이것은 그가 황토고원 농촌의 생산조에 합류해 일했던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지식청년들이 농촌에 있으면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나이드 지식청년들의 결혼 문제였다. 국무원 지식청년 사무실은 77년 7개 성에 통계작업을 실시한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26세 이상의 미혼 지식청년이 59만 명, 만혼연령에 도달해 결혼하지 못한 지식청년들이 헤이룽장 한 성에서만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다른 성으로 배치한 70여만 지식청년들의 90% 이상이 이런 상황이었다.” 농촌이주 지식청년 중 여성 인권유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 아직도 원한관계 사건이 많이 남아 있다. 문화대혁명 기간동안 정부의 지식청년 배치비를 하나만으로 50여억 위안의 손실을 보았다. 농촌이주는 또한 문화대혁명이 가져온 인재유출을 가중시켰다. 베이징의 여류작가 장강강(張抗抗)도 당시 헤이룽장의 지식청년이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더 이상 지식청년과 같이 사람 속여먹는 단어 쓰지 마세요. 우리 세대 중 진짜 필요한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뇌리 속에 새겨진 지식이란 것은 인류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 아니라 계급투쟁이나, 지식무용론 같은 교조주의나 마오쩌둥 어록, 관에 박은 연극, 격한 비판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 세대가 늑대우유를 먹고 자란 세대요, 거기다 물에 말은 밥, 짬 김치 등 단백질 함량이 보잘 것 없는 음식을 섭취해 빈혈이 심한 세대라고 말했다.

30년 전에 벌어진 이 지식청년 운동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 여성잡지위원회 부주임위원이자 헤이룽장 여성문제학자 리진룽(李金蓉)은 아시아위클리 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식청년은 그 세대사람들에게는 섬짓한 운동이자 평범하기 그지없는 운동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이 운동에서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20세 되던 해 목단강 농업개발국 카이후 농장에서 농사일을 했다. 그녀가 첫날 하는일은 풀을 베어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이었다. “그런데 풀이 있는 곳이 집에서 5리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젊고 혈기도 넘쳐 풀 한 단을 단 번에 지고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못 느끼다가 점점 걸어가면서 무거워지더니 몸이 눌러 거의 땅과 평면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 때 그녀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것은 길은 한 걸음씩만 갈 수 있고 한 발자국만 뒤통자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녀는 1세대들의 영웅정신에 감동을 받는다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지,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 민주당인사 구속사건을 보며

1998년은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이 미국을 방문했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여 보다 친근해질 양국관계를 예상했다. 클린턴이 중국을 방문할 동안 중국은 〈公民權利와 政治權利 國際公約〉(인권조약)에 서명하였다. 이것으로서 일부에선 정권의 자주적인 혁신과 장쩌민 당 총서기의 개혁의지가 펼쳐질 것을 기대했다. 중국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후 야당결성의 움직임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최근 중국당국은 이들을 구속하고,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 상태이다. 미국과 홍콩의 언론에서는 인권탄압이라는 비판이 거세고,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근 각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민주인사 구속사건을 살펴보고 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상황을 엿보기로 하자.

민주당 결성의 움직임

중국 대륙 내에서 야당 결성의 움직임은 중국정부가 〈公民權利와 政治權利 國際公約〉(인권조약)을 체결한 이후 완화된 정치조류에 편승하여 일기 시작했다. 1998년 6월 15일, 일부 인사들은 중국발전연합회

(중발련,CDU)라는 이름으로 베이징(北京)의 건국호텔에서 회동을 가지기 시작하고, 10월 4일 그 조직을 정식으로 설립하였다. 중국 대륙에선 새로운 자극제로 작용하여 이 모임의 영향으로 “민주인사”라는 명칭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베이징 민정국(民政部)의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층에게 자신들이 중국사회의 발전에 촉진작용을 할 것임을 역설하며 합법적인 지위를 요구했다.

이어 10월 5일 베이징 교외에서 전국대회를 거행하였는데, 여기에서 쉬원리(徐文立, 민주 운동가), 서단장파(西單牆派)대표는 재야인사들이 민주화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이어 10월 10일에는 중국민주당북경천진지구당(中國民主黨北京天津地區黨)의 정식설립을 선포하였다. 이 당의 목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평화와 협상으로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 조직의 성립으로 중국대륙에선 재야인사들의 당 건립이 촉진되었다.

6월 25일 왕요우차이(王有才)가 절강에서 민주당을 조직하겠다고 선포한 이후, 거의 모든 성에 민주당 조직위원회가 생겨났다. 11월 9일 쉬원리 등이 〈中國民主黨北京天津地區黨〉의 설립을 공고문 형식으로 선포하며, ‘국민은 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의 조항에 따라 중국민주당 전국조직위원회를

민주당을 창당하려다가
구속된 반체제인사 쉬원리.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제한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허락했으나, 이 때는 이미 중국공산당이 허용한 규모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장쩌민은 12월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에서의 연설에서 어떠한 자유결사나 당 조직운동은 모두 사회의 안정을 깨는 요소임을 암시하고, 더 성장하기 전에 그 세력을 제거해야 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연설을 한 3일 후 베이징과 항저우(杭州) 법원에서는 쉬원리 13년, 왕요우차이 11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다음날인 12월 22일 우한(無漢)에선 친용민(秦永敏)에게 12년 형을 선고하였다.

사건발생의 원인과 결과

민주인사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原因

중국공산당이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안요소'를 잠재우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국제조약"에 서명을 했음에도 이 조약에서 명시한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고,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중국 내에 실업이 증가하고, 농촌개혁이 그 해결책을 잃어 대규모의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어 실업문제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주택, 교육 등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노동자, 농민에게 미쳐질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둘째, 반년 간 장쩌민의 "개인의외교" 정책은 공산당 내부에서도 반감이 형성되었다. 장쩌민 당 총서기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좌파 이데올로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2월 18일 인민대회당 연설에서 "서구의 방식"을 모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천안문 사건으로 장쩌민 총서기 자신이 중국 공산당의 수뇌로 등장할 수 있었지만, 〈6·4사태〉에서 배운 교훈은 진압을 통해서만 권력을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당시의 경험으로 장쩌민 총서기는 자신의 집권기간 동안의 정치범을 엄정히 다스리겠다는 생각이다. 자신의 정권안정을 위해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사건 처리의 결과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장쩌민의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해졌다. 미국은 이미 언론을 통해 인권탄압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고, 홍콩의 언론들도 이 문제를 통해 장쩌민 총서기의 정치노선이 독재, 전체적인 것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태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첫째, 베이징의 국제적인 신임이 실추되었다는 것

이다. 12월 21일 미 국무대변인은 이미 유감을 표하며 인사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었다. 베이징에선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이기에 영국, 독일에서도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였다.

둘째, 장쩌민의 정치개혁의지가 매우 약함을 드러냈다. 관리부패와 빈부격차로 발전의 속도가 더해진 요즘, 정치와 기업을 분리하지 않고, 당 정치 또한 옛 체제를 타파하지 못한 까닭에 민주화의 요구는 자연스런 것이다.

셋째, 이 민주화 운동이 중국 전역에 그 영향이 미쳐서 쉬원리, 왕요우차이, 친용민은 이미 중국 내에서 민주당의 창립자로 인식되었다. 앞으로 21세기에 중국도 양당 내지 다당제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예견하게 되었다.

또 하나 부정적인 결과는 대만에서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해 더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대만과의 통일을 더 앞당길 수 있는 관건일 수가 있다. 지금은 문화혁명 시기도 아니고, 6·4사태(천안문)시기도 아니기에 전세계에 이미 편만한 민주화의 조류는 중국에서도 예외를 둘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화 인사 구속의 내막

1998년 11월 30일 일본방문에서 귀국한 직후 당 내부에 두 건의 중요한 보고를 하였다. 하나는 국제정세에 대해, 하나는 국내정세에 관한 것인데, 국제정세에 관한 안건은 드러나지 않았다. 99년 한 해는 5·4운동 80주년이 되는 해이고, 중화인민 공화국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 마카오가 반환되는 해이다. 장쩌민 총서기의 정책을 평가하는 데, 관건이 되는 한 해인 것이다.

98년은 11기 3중 전회(개혁, 개방의 시점) 20주년으로 그 동안 개혁개방의 성과를 평가해보는 해였는데, 그 흐름 가운데 올해는 덩샤오핑(鄧小平) 사후 장쩌민 총서기의 정책능력이 평가받는 한 해일 것이다. 또한 올 한해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최근 실직자 시위나 항의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

는 국가안보부, 안전부, 민정부 등의 기관을 동원해 위에서 아래로 감시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또 국정의 안정을 위하여 치리국정임시영도소조(治理國情臨時領導小組)를 설립하여 정보문서를 감독 관리하고 있다. 조장이 장쩌민, 정치국장이 주룽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직은 국가의 정책을 옹호하고, 반대세력이나 해외적대세력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번 민주인사 구속사건을 조속히 종결한 것 또한 올 6월 정도까지 민주인사 구속문제를 판결짓지 못하고 끝 경우, 사회와 정치권이 중요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결론

중국정부가 취했던 하나의 통일된 정책은 바로 “안정”이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기득권자의 공통된 자세이겠지만,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 “공산당지도하”에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표어인 중국에 이제 비판세력이 출현할 움직임이 인 것이다. 이제까지는 덩샤오핑의 카리스마 아래에 별다른 불안요소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면, 장쩌민의 통치력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장쩌민의 불안이 있는데, 현대의 중국인은 이미 맹목적으로 정부에 순종하기보다 정부의 능력을 판단하고, 불만을 토로할 눈과 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장쩌민 당 총서기는 계속해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권을 안정을 위해서라면 미국의 비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강압정책을 쓰기도 할 것이다.

앞으로 장쩌민의 절대성에 도전하는 당내 외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지금까지처럼 일률적으로 탄압하고, 강경하게 나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爭命』 홍콩시사잡지, 1999.1.

『開放』 홍콩시사잡지, 1999.1.

영적씨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엡6:13,18)

당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대항해서 싸우라, 당신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로 씨름한다고 말할지라도 기도로 씨름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씨름하면 일생 동안 절름발이가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오시면 당신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억지로 당신을 향한 계획에서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에서 절름발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가지고 씨름하여 그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일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면 중요하고도 큰 일이다, 당신이 내게 당신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치 못하다면 나는 기도를 할지라도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면 나의 기도는 항상 승리한다, 기도는 온전함이 있을 때에만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질서와 그의 허용의지, 즉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 사이의 차이를 항상 구별하라, 하나님의 질서는 불변이다, 그러나 그의 허용의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당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의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소명에 진실히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허용의지는 곧 자기의 자녀들이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다, 게으르게 하나님 앞에서 웅크려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한 영광스러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 글은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출판한 오스월드 챔버스 저, 「주님은 나의 최고봉」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중국인을 한국에

유학생으로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저는 중국에 사업차 자주 드나들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중국에 자주 다니다 보니 많은 중국 사람을 알게 되었고, 점차 선교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젊은이들 중에 한국에 유학오길 원하는 몇 사람을 한국의 유명 대학이나 신학교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초청할 때 어떤 수속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속절차를 자세히 알려 주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A: 보내주신 엽서 잘 받았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니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국인을 유학생으로 초청, 수속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한국인은 중국으로, 중국인은 한국으로 유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으로 유학을 간 한국인은 대략 1만 5천여 명에 이르고, 한국으로 유학 온 중국인은 약 1천여 명이 됩니다.

한국으로 유학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장학생이나 교환유학생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자비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비로 오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조선족이 만약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려면 한국의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 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동포들의 한국어 연수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해마다 재중 동포들을 50여 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중국의 주중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찾아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어학연수 가능 여부를 알려 줍니다. 만약 합격이 되면, 비자까지 한국 대사관에서 해결해 줍니다. 이곳에 와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일반대학이나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한족(중국인)이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연세대어학당이나 이대어학당으로 올 수 있습니다. 먼저 유학 오려고 하는 학생의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신분증, 사진1장, 한국인이 쓴 신원공증서, 등록금(3개월에 100여만 원)을 준비하여 해당 어학당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어학당에서 입학허가서를 발급해 중국으로 보내줍니다. 그 학생에게 이미 여권이 있다면 주중 한국 대사관에 여권, 입학허가서, 재정보증(한국인)서를 가지고 가서 비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니다. 그러나 여권이 아직 없는 사람인 경우, 한국에서 보내준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자신이 살고있는 해당 호구의 공안국에 가서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어학연수인 경우 여권을 발급 받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미 언어 연수비를 지불했는데 여권이 나오지 않아 유학을 못 오게 될 경우, 등록금의 80%를 다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대학교나 대학원 혹은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올 경우에 조선족이든 한족이든 모두 어학연수와 비슷한 수속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유학하려고 하는 학교 측에서 입학허가서와 학비나 체재비를 지불할 능력을 입증해 줄 서류(장학증서나 재정보증서), 한국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여권과 함께 주중한국대사관에 가지고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여권이 없는 분이라면 위의 경우와 같이 해당 공안국에 가서 먼저 여권을 발급 받아야 됩니다.

만약 신학교에 유학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여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경우, 신학교의 입학허가서를 공안국에 가지고 가서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삼자교회 측 추천으로 유학을 보내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경우 심중팔구는 여권을 발급 받지 못할 것입니다. 꼭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 유학오길 원한다면 먼저 일반대학이나 대학원의 초청장으로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얻어서 들어와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시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이 이미 구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비자는 한국 대사관에서 수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신학교의 입학허가서인 경우 그것으로도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로는 여행비자, 방문비자, 학생비자, 직업비자 등등이 있으며, 여행비자나 방문비자를 가지고는 유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행비자나 방문비자를 가지고 들어와 학생비자로 바꾸려면 한국 법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중한국대사관에 가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년씩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에 다니는 한 계속해서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중국 젊은이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국 대학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아 중국으로 보내 주는 일을 도울 수 있으며, 그들의 재정보증인이 되어 주거나 재정보증인이 될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 학생이 중국 안에서 수속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중국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없는 부정부패와의 전쟁



중국에서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사회 깊숙히 뿌리박혀 있는 부정부패는 사회 곳곳에서 끓어가고 있다. 최근들어 중국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깊숙히 뿌리 박힌 부정부패가 하루 아침에 해결되긴 어려운 것이다. 중국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가 언제쯤 끝이 날 것인지...

기획/ 중국 소수 민족을 알자



중국선교는 그 자체의 중요성만큼이나 세계선교의 교두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 중심에 소수민족선교가 있다.

중국 내 55개의 소수민족은 주님께서 중국에 숨겨 놓은 가루 서 말 속의 누룩이다. 때가 되면 이 누룩은 부풀어 동남아의 불교권, 저 철옹성 같은 중앙아시아 회교권의 문빛장을 풀게 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의 소수민족을 알고 소수민족선교에 힘을 기울여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윈난성의 소수민족(VII) — 마오족(苗族)

허 중 선

마오넬날과 같은 날로 마오족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인구: 마오족은 중국 서남부 지역의 소수민족 가운데 비교적 인구가 많은 민족으로, 1990년 통계로 약 739만 명이다. 그 중 윈난성(云南省)에 약 92만(1996년 통계) 명이 살고 있다.

분포: 마오족의 분포도는 광범위하다. 그들은 주로 꾸이저우성(貴州省)에 전체 인구의 약 50%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외에 윈난성, 후난성(湖南省), 쓰촨성(四川省) 및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 하이난(海南)성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윈난성의 마오족은 성(省) 전체의 약 87개의 현(縣)과 시(市)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 약 70% 이상이 윈산좡족마오족(文山壯族苗族自治州), 홍허하니쭈이쭈(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에 살고 있다. 윈난 마오족의 분포상의 특

징을 보면, 대부분 흩어져 살고 있거나, 적은 단위로 모여 살고 있다. 윈난 마오족은 크게 '멍(蒙)' '아멍(阿蒙)'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아멍 사람들은 주로 윈난 동북쪽에 거주하고 있으며, 멍 사람들은 윈난 전체의 약 1백 개의 현에 고루 흩어져 살고 있다.

마오족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늘 여기 저기 이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른바 "산지의 이민", "유동하는 민족", "동방의 집시"라고도 부른다.

언어: 마오족의 언어는 한장어계 묘요어족 묘어지(漢藏語系苗語族苗語支)에 속하며, 크게 상시(湘西-후난 서부), 첸둥(黔東-꾸이저우 동부), 환첸뎬(川黔滇-쓰촨, 꾸이저우, 윈난) 등 3개의 방언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1) 상시 방언: 2개의 토어(土語)가 있으며, 주로

후난성, 후베이(湖北)성, 꾸이저우성, 광시좡쭈자치구 등지에서 약 77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2) **젠둥 방언**: 3개의 토어가 있으며, 주로 후난성, 꾸이저우성, 광시좡쭈자치구 등지에서 약 15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3) **촐첸뎐 방언**: 7개의 방언으로 나누어지며, 그 안에 3~4개의 토어가 있다. 주로 윈난성, 쓰촨성, 꾸이저우성, 광시좡쭈자치구 등지에서 약 177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각 방언 사이에는 차이가 심해,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윈난 마오족은 촐첸뎐 방언에 속해 있으며, 다시 크게 두개의 방언지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윈난성의 웨이신(威信), 이랑(彝良), 윈산(文山), 멩쯔(蒙自), 카이위엔(開遠), 진핑(金平), 께지우(個舊), 위엔양(元陽), 바오산(保山), 리장(麗江) 현 등지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약 73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용산(永善), 파관(大關), 샤오통(昭通), 우뎡(武定), 루핑(祿豐), 루취엔(祿勸), 주송(楚雄), 쿤밍(昆明), 취징(曲靖) 현 등지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약 16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전체 마오족 가운데 약 7만 명 정도만이 한어를 할 수 있다.

문자: 마오족은 본래 문자가 없다. 1904년 영국 선교사에 의해 꾸이저우 동남쪽과 서북의 웨이닝스먼간꺼(威寧石門坎各)에서 표음부호를 이용한 문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56년에 정부에 의해 상시, 촐둥, 촐첸뎐 지역의 3종 방언 문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1957년부터 공식적으로 마오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에 의해 1907~1915년 사이에는 10여 권의 쪽복음 성경 역본들이 출판되었고, 1917년에는 《신약성경》 역본이 출판되었다. 현재는 1988년 중국 정부에 의해 난징(南京)에서 출판된 신약 성경과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다.

민족역사: 마오족 이름의 유래는 고대 갑골문자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 마오족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며 형성된 정론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로는 중국 고대 전설 시대에 활동했던 “지우리(九黎)” 부락집단의 “산마오(三苗)”로 보고 있다. 그들은 당시 창장(長江) 중류의 “징진(荊楚)”에 거주하였고, 이후 위엔(沅江) 강을 따라 서쪽으로 옮겨 가다가 진한 시대 때에 “우시만(五溪蠻)”과 “첸중만(黔中蠻)”, 그리고 “무링만(武陵蠻)”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송나라 이후 “만(蠻)”자를 빼고 단지 “마오(苗)”라고 불려, 오늘날의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때 비로소 단일 민족으로 형성하게 되었다. 원, 명, 청나라에 이르러 이들은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꾸이저우 서남부와 윈난, 그리고 하이난(海南)과 월남, 라오스 등지에 정착하여 오늘의 마오족에 이르게 되었다. 마오족은 “무(牡)”, “멍(蒙)”, “모(摸)”, “모(毛)”, “맹(猛)” 또는 “까나오(嘎腦)”, “귀송(果雄)”, “파이소우(帶叟)”, “다지(答几)”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역사상 복장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들로 불리워 왔다. 예를 들면 윈난 지역의 마오족은 복장에 따라 “화마오(花苗)”, “바이마오(白苗)”, “청마오(靑苗)”, “홍마오(紅苗)”, “휘마오(綠苗)”, “한마오(漢苗)” 등으로 불리우며, 해방 이후, 통일되어 마오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마오족은 주로 서로 모여 살며, 시기에 따라 흩어지거나, 다른 민족이 마오족화 된 경우도 있다.

건축: 마오족은 일반적으로 30~50여 가구가 함께 모여 한 마을을 이루고 있다. 후난(湖南) 서부와 꾸이저우 동남부의 마오족은 일반적으로 산기슭이나 산허리에 살고 있으며, 꾸이저우 서북부와 윈난의 마오족은 대부분이 산 위에서 살고 있다.

윈난 마오족의 건축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예를 들면, 꾸이저우 동서부의 마오족이 사는 가옥을 보면, 단층과 2층이나 3층 두 종류가 있고, 가장 높은 층은 높이가 낮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대신, 곡식을 저장하거나

가축의 우리로 사용한다. 방안은 수상 가옥(나무로 받침대를 만들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나무 집)이다. 후난 서부와 꾸이저우 쑹타오(松桃) 마오족의 경우 가옥은 일반적으로 3개의 방이 있다. 가운데 방은 응접실로 사용하고 양쪽 방은 침실로 사용한다. 윈난의 경우 윈산(文山) 지역의 마오족은 대나무를 엮어서 벽을 쌓고 그 위에 흙을 칠하고 짚으로 지붕을 덮는다. 샤오통(昭通) 지역의 마오족 가옥은 매우 간단하여 “차차팡(叉叉房)”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여러 개의 마른 나무로 엮갈리게 천막을 치고, 띠로 지붕을 덮고, 4개의 벽을 나무 가지나 혹은 대나무를 엮어 그 위에 흙을 칠한다. 창문은 없으며, 실내에는 2개의 방이 있는데, 1개는 가축을 기르는 방이고 또 다른 방은 사람이 거주한다.

복장: 마오족 복장은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서 가장 화려한 복장 중의 하나이다. 남자의 경우, 짧은 상의와 긴 바지 혹은 큰 옷깃과 긴 적삼이 특징이며, 여자 복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마를 입거나 또는 바지를 입으며, 여러 모양의 악세사리를 걸친다. 마오족 복장은 일반적으로 화려한 옷차림과 평상복 그리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입는 옷 등 약 100여 종이 넘는 복장으로 구분된다.

역사적 조건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자연 환경과 생활 습관, 지계(支系)에 따라 각기 복장이 다르다. 주로 복장의 색깔, 식양과 무늬, 그리고 꽃을 수 놓은 위치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들을 가리켜 헤이마오(黑苗), 홍마오, 바이마오, 화마오, 칭마오 등으로 불리워 왔기 때문이다. 칭마오 여자들은 어떤 상의를 입든지 무조건 치마를 입으며, 푸른색을 좋아해 치마나 소매 끝에다 염색을 하거나 십자수를 놓는다. 화마오와 기본적으로 비슷하며, 단지 옷감의 색깔만 푸른색을 사용한다. 바이마오의 치마는 흰색이며 염색과 십자수를 놓지 않고 단지 상의에 홍색, 황색, 녹색 등의 가늘고 긴 형질을 사용해 그것을 몇 개의 형질에 끼운다. 옷깃은 접는 것이며, 머리에

는 망사로 된 수건을 쓴다. 그리고 천으로 다리에 감는다. 화마오 복장은 산뜻하고 아름답다. 그들은 여러 가지 색깔의 견사로 치마에 수를 놓는 것을 좋아한다. 이외에 홍마오 여자들은 홍색을 좋아하므로 홍색 실을 머리에 두른다. 일반적으로 7살이나 8살이 되면 십자수나 염색, 수에 놓는 것을 배운다.

이 밖에 마오족 여자들은 은장식의 악세사리를 좋아하는데, 그 종류만 20여 종이 넘는다. 은장식은 주로 팔찌, 목걸이, 반지, 부채, 빗, 꽃, 끈, 핀, 공작, 깃털, 방울 등이 있다. 여자들은 구정때나 민족절기 혹은 결혼 할 때 화려한 옷을 입으며, 머리와 팔, 목 그리고 가슴에다 은장식품을 단다. 머리 장식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나이와 결혼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음식: 음식 역시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꾸이저우 동남부와 후난 서부 그리고 하이난과 광시(廣西) 따마오산(大苗山) 지역은 기후가 따뜻하고 우량이 많아 벼농사 등 농작물이 자라는 데 적당하다. 그래서 이 일대의 마오족은 주로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옥수수나 밀, 콩 등을 부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윈난 동북부의 마오족들은 처음에는 평지에서 살았으나, 점차적으로 2,200m 이상의 한랭한 산지로 옮겨가, 거기에서 옥수수, 메밀, 감자와 귀리 그리고 잡곡 등과 같은 농사를 지어 지금은 이를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오족은 신맛이 나는 음식을 좋아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 먹는 음식 대부분이 고기요리 외에는 모두 신맛이 난다. 별미로는 주로 국으로 생선이나 채소 혹은 콩 등을 넣고 끓이는데 그 맛이 매우 뛰어나다. 이 밖에 시큼하게 발효시킨 야채와 절인 야채, 그리고 시고 매운 것, 소금에 절인 고추 등 역시 맛이 독특하다.

마오족은 다른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술을 좋아하는데, 술로는 단 술과 구운 술, 그리고 약술 등이 있다. 그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매우



은장식의 악
세사리를 중
아하는 마오
족 여자들

좋아하며, 집집마다 술을 담궈 놓고 손님이 오면 이를 대접한다. 술을 권할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군다.

결혼: 마오족의 가정제도는 일반적으로 3대(代)를 초과하지 않는다. 4~5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윈난 핑벤(屏邊) 마오족의 경우 20~30여 가구의 대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른이 집안의 일들을 주관하며, 함께 생산한 양식은 공동관리하고, 밥 짓는 것은 나누어서 한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전문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파는 사람이 있다. 모든 관리나 분배하는 것은 주로 여자 중에서 한 사람이 책임을 맡는다.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와 따로 살며,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산다.

마오족은 일반적으로 일부일처제이다.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형식과 연애 결혼하는 형식 등 두가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연애 결혼이 성행하고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꾸이저우 동남부 지역에서는 “요우팡(游方)”이라고 부르고, 후난 서부

나 꾸이저우 송타오 지역에서는 “촨구냥(串姑娘)”이라고 부른다. 또한 윈난 동북부 지역에서는 “간화산(趕花山)”이라 부르고, 윈난 난핑벤 지역에서는 “차이화산(踩花山)”이라고 부른다. 각 지역마다 지정된 날짜와 장소가 있다. 예를 들면 윈난 동북 지역의 “간화산”은 음력 5월 15일과 7월 중 돼지 띠 날에 행사를 갖는다. 그리고 웨이닝룽(威寧龍) 지역의 경우 유명한 “화산(花山)”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행사를 갖는다. 이밖에 자오통, 이니양(彝良), 웨이닝(威寧), 허장(赫章) 등 4개 현의 경우 역시 정한 기일이 되면 남녀 모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다.

이 때 남자들은 생황(취관 악기)을 불면서 춤과 일문일답식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나타내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한다. 만약 이 때 남녀가 서로 마음에 들면, 남자 쪽에서 중매인을 여자 집으로 보내거나 혹은 품행이나 태도가 단정한 사람을 찾아 함께 모이는 장소로 가서 여자를 데리고 남자 집으로 간다. 그 다음날에는 반드시 사람을 여자 쪽 집으로 보내 소식을 전해주고, 3일째



생활을 보면서 춤을 추고 있는 젊은 청년들.

되는 날은 술과 닭 두 마리를 가지고 여자쪽 집으로 가서 정식으로 청혼을 한다. 만약 이 때에 여자 쪽에서 반대하면, 일종의 약탈혼인을 하게 되는데, 마오족의 혼인 방법 중의 “약탈혼인(搶婚)”이 있다. 이는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여자 쪽 부모가 반대하거나 혹은 남자 쪽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혼인이 어려우면 쌍방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남자는 친구 몇 명과 약속하여 여자와 약속한 장소로 가서 여자를 약탈해 남자 쪽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3일 후에 중매인을 여자 쪽 집에 보내 결혼을 성사 시키는 방법이다.

윈난 핑벤 마오족은 대상을 찾는 “차이화산”을 음력 5월 2일부터 시작하여 5, 6일 간 행사를 갖는다. 이날이 되면, 청년 남녀가 대상을 찾기 위해 정해진 장소에 측량대를 세워 놓고 그 위에 홍색, 녹색 리본을 가로로 걸어놓고, 그 밑에는 술통을 놓는다. 여자들은 울긋불긋한 주름치마를 입고, 남자들은 홍녹색 리본을 단 금색 생활을 메고 측량대 밑에서 마음껏 춤을 춘다. 이 때 남녀는 많은 사람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인을 찾는다.

마오족의 혼인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첫째, 동성동본일 경우 결혼하지 못하고, 조상이 같은

사람인 경우 역시 사돈을 맺지 않는다. 둘째, 언니 자녀와도 결혼하지 못한다. 셋째, 다른 민족과도 결혼하지 않는다. 넷째, 같은 민족 안에서도 복장이 다르면 사돈을 맺는 경우가 매우 적다. 다섯째, 미신을 믿는 성질(신앙 형태)이 다르면 그 역시 사돈을 맺지 않는다. 과부는 재가할 수 있다. 만약 가족 중 형이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과부 형수가 다른 곳으로 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남편의 가족 중에 제일 웃어른 한테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장례: 마오족은 일반적으로 매장한다. 단 문둥병 환자일 경우 불로 태운다. 매장할 때 성년일 경우 삼나무로 관을 만들고, 미성년일 경우 목갑으로 관을 만든다. 장례 의식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윈난 진핑(金平)현 지역 일대의 마오족은 삼베로 죽은 사람을 싸서 실내에 달아 놓고 친척이 조문을 때 소와 돼지를 잡아 제물로 바치게 한다. 조문오는 사람은 닭이나 돼지 등의 제물을 가지고 오며, 그 마을에서 북 치는 사람과 생활을 부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장례를 주관하게 하여, 밤에 죽은 사람을 위해 생활을 분

다. 매장한 지 12일 후에는 첫 번째 재계(祭를 행하는 사람이 마음을 가다듬고 심신을 깨끗이 하여 음식이나 행동을 삼가며 부정을 피한다.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 집 한가운데에 세워두고, 북 치는 사람을 청해 생황을 불고 북을 치며, 돼지를 잡고 돈을 태운다. 재계하는 기간은 약 3~5일 정도이다. 재계가 끝나면 모든 장례절차는 마무리된다.

성년이 죽으면 동족이나 같은 마을의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돕는 전통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고, 관을 드는 일과 매장하는 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준다. 발인 할 때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데, 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이다. 이 때 관 앞에 햇불을 환하게 켜 놓아야 하는데, 만일 햇불이 환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길을 찾지 못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매장할 때 역시 무당을 불러 제사를 드린다. 무덤을 쌓는 의식은 한족과 차이가 거의 없다.

금기: 마오족은 생산 및 생활 중에 지키는 금기가 매우 많다. 예를 들면 봄에 첫 번째 번개 소리가 나면 3일 동안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거나, 양력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밭에다 거름을 주지 않는다. 집안에 아기를 낳은 산모가 있으면, 대문 위에다 풀로 만든 모자를 걸어놓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 만약 집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반드시 나올 때는 밭을 밟아야 하며, 한 컵의 냉수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의 젖이 말라버린다는 것이다. 또 길을 가다가 샘물이나 도랑물을 만났을 때 목이 마르다고 마음대로 마셔도 안 된다. 반드시 먼저 풀 줄기를 물 속에 집어넣고 물을 마셔야 한다. 이것은 물을 지배하는 용왕에게 통보한다는 일종의 표시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물을 마시면, 곧 바로 배가 아프다는 것이다.

주요절기: 마오족은 고유한 민족 전통의 절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과 장소, 시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약 1백여 종이 넘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 주로 꾸이저우와 광시에 거하는 마오족이 지키는 절기가 대부분이며, 윈난 마오족이 지키는 절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여기서는 주로 윈난 마오족이 지키는 절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차이화산제(踩花山節, 음력 1월 5일)

마오족의 전통적인 절기로서, 주로 윈난 핑뱌, 먼산, 마관(馬關), 홍허(紅河), 웨이산(魏山), 주송(楚雄) 지역에서 지켜지고 있다. 한 해의 새봄을 맞이하여 축하하며, 동시에 젊은 남녀의 자유약혼의 성격을 지닌 독특한 절기이다. 특히 젊은 남녀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날은 남녀가 서로 자유롭게 연애할 뿐만 아니라, 배후자를 결정하는 날이기도 하다. 당일이 되면 사람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꽃자루를 바로 세워 사방에 있는 마오족 친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을 빌며, 서로가 인사를 하며, 새로운 봄날을 축하한다. 이 때 젊은 여자들은 색깔이 산뜻하고 아름다운 주름치마를 입고, 손에는 우산모양의 꽃자루를 들고 경쾌하게 춤을 춘다. 남자들은 남색의 흙옷과 가슴 앞에 특별히 폭이 넓은 꽃을 두루고, 손에는 갈대로 만든 생황을 움켜쥐고, 한편으로 불면서 한편으로는 춤을 춘다. 서로가 춤을 추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이어서 사랑의 표시로 허리띠를 교환한다. 만약 이때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은 선물을 바로 돌려준다. 받은 선물은 결혼 허락이 있을 때까지 몸에 지니고 다닌다. 이 밖에 소싸움, 경마, 칼싸움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2. 즈메이지에(姊妹節, 음력 2월15일)

매년 꽃이 피는 새봄을 맞이하면서 마오족 사람들이 일종의 “츠즈메이판(吃姊妹飯)”을 먹으며 즐겁게 보내는 절기이다. 주로 윈난 추송 지역의 마오족들이 지키고 있으며, 찹쌀을 다섯 가지 색깔(청, 황, 적, 백, 흑색)과 여섯 가지 빛깔이 나도록 염색한 후, 불에 찐 다음 먹는다.

이 절기의 유래는 크게 3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한다.

전설에 의하면, 거이(革一)라는 이름을 가진 마오족 산간마을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생활은 비교적 풍부하고 넉넉할 뿐만 아니라, 젊은 처녀들 역시 아름답고, 옷맵시도 뛰어나 명실공히 유명한 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단점은 그 마을 주변은 지형이 험하고 위험하여 외부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음력 2월 15일을 절기로 정하여 외부에 알리기로 결정한다. 당일이 되어 젊은 처녀들은 각각의 집에서 찹쌀로 만든 “즈메이판(姊妹飯)”을 가지고 와 함께 먹으며, 소싸움, 닭싸움, 경마, 그리고 생황과 북을 치면서 즐거운 행사를 가졌다. 이 소식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자 과연 각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거이에 있는 마오족 처녀들은 젊은 청년들을 열렬하게 환영했고, 그들이 돌아갈 때 길에서 먹을 수 있도록 즈메이판을 싸주면서 애정의 표시를 하였다. 1년이 지난 후 젊은 청년들은 다시 거이 지역으로 와 지난해에 보여 주었던 애정에 감사를 표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이것이 결국 남녀간의 깊은 애정의 표현으로 이어져 이 지역의 젊은 처녀들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즈메이제” 당일에는 여자에게 자유권한이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간섭이나 비난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모들은 반드시 물질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날에 마을 사람들은 함께 논이나 밭에 모여 준비한 음식을 먹는데, 어떠한 장소이든 그 장소의 주인은 간섭할 수 없다. 젊은 남녀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여 밤을 보내는데, 젊은 처녀들은 긴 나무의자를 준비하여 그곳에 앉아 서로가 노래를 부르며 애정을 표현한다.

3. 루성제(蘆笙節, 음력 9월 27~29일)

윈난 핑벤과 우딩(武定) 지역에서 매년 음력 9월, 약 2~3일 동안 지키는 마오족의 전통적인

절기로서, 일명 “루성후이(蘆笙會)”라고도 부른다. 이 기간 중에 남자는 옷깃이 크고 짧은 옷에 긴 바지를 입고, 청색 천으로 몸을 감고, 허리에 큰 띠를, 손에는 대나무로 만든 생황을 들고 태평소와 북을 치며 행사장으로 향한다. 여자들은 각양각색의 수 놓은 무늬의 옷을 입고, 도안이 있는 치마와 머리에 청색의 띠로 둘둘 감는다. 그리고 허리에는 꽃으로 수놓은 띠를 두르고 번쩍번쩍 빛나는 은장식물을 가슴이나 허리에 차고, 서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절기를 지킨다.

루성(蘆笙, 생황)은 마오족이 좋아하는 악기로서, 전설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제갈공명이 윈난에 왔을 때 마오족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어 만들어 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 악기를 가르켜 일명 “콩밍미(孔明秘)”라고도 부른다. 루성은 일반적으로 6개 관으로 만들어 졌으며, 관마다 밖으로 구멍이 나 있다. 소리가 매우 경쾌하다.

4. 마오넨(苗年, 음력 10월 혹은 11월 중)

마오넨은 한족의 춘제(春節, 음력 설날)와 같이 마오족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전통적인 절기이다. 귀이저우 동남부 지역과 광시 마오산 지역의 마오족이 1년 중 가장 성대하게 지키고 있으며, 이 밖에 윈난의 마오족 역시 지키고 있다. 절기가 다가오면 집집마다 술과 고기, 생선, 두부 등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당일에 입을 새 옷도 준비한다. 당일 새벽이 되면, 사람들은 가장 맛있게 만든 음식을 화탕(火塘) 주변의 부뚜막에 진열해 놓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소의 코 부분에다 약간의 술을 발라준다. 이유는 일 년 동안 일해야 하는 소의 노동에 대한 위로의 표현이다. 절기 기간 중에 젊은 여자들은 수를 놓은 옷에다 복숭아 꽃으로 테두리를 하고 염색한 바지나 치마를 입고, 허리에 띠를, 귀에다 고리를, 그리고 팔찌와 은으로 만든 장식물을 몸에 달고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이 밖에 경마, 소싸움, 생황을 불며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오락과 체육활동을 한다. 젊은 남녀들의 배우자를 찾는 행사도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진다.



“즈메 이지에”에 청년들이 소녀들에게 “즈메 이판”을 받고 있다.

종교: 일반적으로 원난 마오족은 원시종교와 조상숭배의 신앙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밖에 천주교와 기독교 등도 믿고 있다.

역사적으로 마오족은 원시종교를 숭배해 왔다. 그들은 만물에 영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귀신이 주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신앙관의 영향으로 가뭄이나 장마를 만나게 되면 용신에게 비는데, 이는 용신이 비를 오게 하기도 하고 그치게도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뽕뽕하게 우거진 푸른 나무를 “룽수(龍樹)” 혹은 “선수(神樹)”라고 하여 그것을 숭배한다. 원난 마오족 지역의 사람들은 100여 종의 신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일반인은 귀신과 직접 말할 수 없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낼 때 본 민족의 “뚜안공(端公)”을 부른다. 두완공은 귀신과 왕래하며 옛날 말을 할 수 있고, 노래 및 민간의 한약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종종 제사를 드리거나 한약을 사용하고 있다.

원난 마오족의 제사 지내는 활동으로는 “지룽(祭龍)”, “싸오자이(掃寨)”, “지난텐공띠무(祭南

田公地母)”, “사징먼주(殺敬門豬)”, “샤오링(燒靈)” 등이 있다.

조상숭배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산화(1949년) 이전에는 원난 산지의 마오족들의 종교 의식 중에 영혼불멸은 매우 중요한 관념 중의 하나였다. 그들은 각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귀신으로 변해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힘을 소유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이 비록 죽었지만 살아 있는 것 같이 생각하여, 그 영혼이 굉장한 힘을 소유하고 있어 어둠이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 준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상숭배를 철저하게 섬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구정이나 혼례와 장례식 때에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주인이 상에 준비하여 둔 술과 고기를 조금 집어 땅에다 던지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야 비로소 음식을 먹는다.

선달 그림과 청명이나 7월 보름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날로서, 이 때 제사를 받는 조상은 조부모와 부모뿐만 아니라 본 가족 중에 죽은



마오족은 백색하
게 우거진 푸른 나
무를 통숭, 선수
라고 하며 숭배 하
고 있다.

모든 망령을 포함한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절기 때 가족 중에 어른이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조상의 이름을 불러, 모든 가족으로 하여금 듣게 한다. 이것은 조상의 근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전통 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

조상숭배의 형태는 지역상 약간의 형식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윈난 동북 지역에 사는 마오족은 “다라오니우(打老牛)”라고 부르고, 윈난 다른 지역에 사는 마오족은 “추링(除靈)” 등으로 부르는데, 그 의식이 성대해 현장이 장관이다.

기독교: 사회 발전에 따라 마오족의 종교 신앙 형태 역시 변화하여 지금은 원시종교나 조상숭배보다는 기독교(천주교 포함)가 이들의 생활에 더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일찍 복음을 받아들인 윈난의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현재 복음화율이 빨라,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윈난의 북부지역에는 약 60% 이상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

마오족 지역은 1883년 영국 선교사인 Thomed 에 의해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여, 1885년 윈난 북서쪽의 동환(東川)에 교

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이 이루어진다.

마오족은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윈난의 다른 소수민족과는 달리 음악적인 재능을 소유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리쭈족(栗粟族)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마오족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있다. 이들은 한 마디로 생활 그 자체가 노래이다. 늘 찬송 부르기를 좋아하고, 낮에 들에서 일할 때도 혼자 노래를 부르거나, 일과를 마친 후에도 교회에 모여 노래를 부르곤 한다. 예배시간에는 사회자가 첫 음만 잡아주어도 아무 반주 없이 4부로 부를 만큼 음악적인 소질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재능이 인정되어 지난 1998년에는 약 두 달 동안(10~11월) 마오족 성가대가 조직되어 중국 전역(쿤밍, 광저우, 상하이 등)을 순회공연하기도 했다.

이들은 1988년 공식적으로 출판된 마오족 문자 신약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구약이 번역되어 인쇄 중에 있어서, 1년 후에 신구약 합본이 출판될 경우,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민족언어로 된 찬송가도 사용하고 있다.

마오족의 특징은 성품 자체가 온순하고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대해 매우 우호적이다. 일찍 복음을 받아들여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넘치며, 복음 사역자에 대한 사모함이 많다. 이것이 마오족 사역에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산지나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지금 추송(楚雄)주의 추송, 루핑, 우딩, 루첸 등지의 마오족 지역에서 사역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사역으로는 제자양육, 성경보급, 교회건축 등이, 간접적으로는 의료, 교육, 농업 등의 방법으로 현지 교회들을 돕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마오족들이 사는 지역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그들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사업(의료, 교육, 농업 등) 접근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한국 사역자 가운데 이들을 향한 헌신된 동역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오족 지역으로 방문하려면,

* 한국에서 항공으로(홍콩, 베이징, 상하이)를 경유하여 쿤밍에 도착.

* 추송이쭈(楚雄彝族自治州)의 마오족을 방문하려면: 쿤밍에서 버스로 추송이나 루핑에 도착(약 3시간), 다시 마오족이 사는 지역으로 버스로 혹은 산지의 경우, 마차나 경운기 등으로 갈 수 있다.

* 쿤밍에서 버스로 위엔양(元陽), 멩쯔(蒙自), 핑벤에 도착(약 8~15시간), 다시 버스로 마오족 마을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

* 원산장쭈마오쭈(文山壯族苗族自治州)의 마오족을 방문하려면:

쿤밍에서 버스로 먼산에 도착(약 15시간), 다시 북쪽으로 버스로 이동해야 한다.

* 샤오통띠취(昭通地區)의 마오족을 방문하려면: 쿤밍에서 버스로 샤오통에 도착(약 15시간), 다시 북서쪽으로 이동, 마오족 마을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

이 밖에 취징(曲靖), 따리(大理), 리지양(麗江), 바오산(保山), 린창(臨滄)의 마오족을 방문하려면, 지역마다 다르나, 약 6~2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도제목

1. 점차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계속해서 마오족 가운데 복음사역이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2. 현재 마오족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적으로 마오족을 향한 헌신된 사역자가 없다. 이들을 위한 헌신된 사역자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3. 한어로 된 성경보다는 마오어로 된 성경을 더 많이 보는 편인데, 이를 위한 공급이 절대로 부족한 편이다. 마오족 성경 전달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4. 마오족 지역은 일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어 교육이나 문화, 의료부분에 있어서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복음사역과 더불어 교육, 음악, 의료사업 등 사회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사회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서적

1. 《云南苗族傳統文化的變遷》 云南人民出版社
2. 《云南少數民族風情錄》 廣東出版社
3. 《云南宗教概況》 云南大學出版社
4. 《云南省志》(卷五十九 - 少數民族語言文字志) 云南人民出版社
5. 《云南省志》(卷六十六 - 宗教志) 云南人民出版社
6. 《云南統計年鑒》(1997年) 中國統計出版社
7. 《云南樂器王國的傳說》 云南民族出版社
8. 《民族文化的纖手-苗族》 云南教育出版社
9. 《苗族史》 四川民族出版社
10. 《苗族簡史》 貴州民族出版社
11. 《苗族曆史與文化》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2. 《苗族研究(二)》 貴州民族出版社
13. 《苗族女性文化》 北京大學出版社
14. 《中國苗族風情》 貴州民族出版社
15. 《中國少數民族禁忌大觀》 廣西民族出版社
16. 《中國少數民族語言使用情化》 中國藏學出版社

예배시의 기도 (I)

主耶稣谢谢你每天爱我们，教导我们，并重听我们的祷告，
zhǔ yēsū xiè xiè nǐ měi tiān ài wǒ men jiào dǎo wǒ men bǐng chōng tīng wǒ men de dǎo gào

谢谢你的引导保守。
xiè xiè nǐ de yǐn dǎo bǎo shòu

主耶稣，愿你的爱照亮我们的生活，
zhǔ yē sū yuàn nǐ de ài zhào liáng wǒ men de shēng huó

使别人能在我们的言行中看到你自己给我们更多的爱，
shǐ bié rén néng zài wǒ men de yán xíng zhōng kàn dào nǐ zì jǐ gěi wǒ men gèng duō de ài

使我们能爱你和我们的邻居不只是在言语上，也在行为上。
shǐ wǒ men néng ài nǐ hé wǒ men de lín jū bù zhǐ shì zài yán yǔ shàng yě zài xíng wéi shàng

求主永远与我们同在，帮助我们靠着我们的信仰而活，
qiú zhǔ yǒng yuǎn yú wǒ men tóng zài bāng zhù wǒ men kào zhè wǒ men de xìn yǎng ér huó

使我的信仰与生活一起长进。奉耶稣基督的圣名祷告，阿们。
shǐ wǒ de xìn yǎng yú shēng huó yì qǐ zhǎng jìn fèng yēsū jī dū de shèng míng dǎo gào ā men

주 예수님, 주님이 매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생활에 비주어서 다른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셨음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말로써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길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따라

살고 나의 신앙과 생활이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创造主神

(창조의 주)

甲：你相信有神吗？
nǐ xiāngxìn yǒu shén ma

乙：我从小就受无神论和进话论
wǒ cóngxiǎo jiù shòu wú shén lùn hé jìn huà lùn
的教育，但有时候自己也想
de jiào yù dàn yǒu shí hòu zì jǐ yě xiǎng
是不是真有神呢？
shì bù shì zhēn yǒu shén ne

甲：我们的神是独一无二的真
wǒ men de shén shì dú yī wú èr de zhēn
神，起初神创造了天地。
shén qǐ chū shén chuàng zào le tiān dì

乙：神是怎样创造的？
shén shì zěnyàng chuàng zào de

甲：神是全能的，他用有权柄
shén shì quán néng de tā yòng yǒu quán bǐng
的话语从无造出了天地万物。
de huà yǒu cóng wú zào chū le tiān dì wàn wù

乙：怎能知道神创造天地是事
zěn néng zhī dào shén chuàng zào tiān dì shì shì
实呢？
shí ne

甲：因着信就能知道创造的奥
yīn zhe xìn jiù néng zhī dào chuàng zào de ào
秘。只有信使我们明白所
mì zhǐ yǒu xìn shǐ wǒ men míng bái suǒ
看见的诸世界，都是借这看
kàn jiàn de zhū shì jiè dōu shì jiè zhè kàn
不见的神的话语而创造的
bù jiàn de shén de huà yǔ ér chuàng zào de
事实。
shì shí

甲：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乙：어려서부터 무신론과 진화론 교육을 받았
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지
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甲：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乙：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甲：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천지만물을
지어내셨습니다.

乙：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
떻게 알 수 있습니까?

甲：믿음으로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모
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
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정정보도 : 지난 호에 실린 「선교중국어회화」에서 13번째 줄의 不法을 沒法로 정정합니다.

중국어 복음성가

无人能像祢

(주님과 같이)

Capo 1. G D/F# C/E G/D C G/B Am⁷ Am⁷/D D⁷



无人能像 祢 惟有祢能摸着 我灵深处
wú rén néng xiàng nǐ wéi yǒu nǐ néng mō zhe wǒ líng shēn chù
우런녕시앙 니 웨요니녕모저 워링션추

G D/F# Dm/F# C/E G/D Dsus⁴ G (D)Fime



我虽用尽一生来寻求 哦主 无人能像 祢
wǒ suī yòng jìn yī shēng lái xún qiú é zhǔ wú rén néng xiàng nǐ
워쑤용 진이성 라이쑤치우오주 우런녕시앙 니

Cmaj⁷ C/D G Em Am⁷ D/F# G G/B



祢 的怜悯 如江河 涌流 祢 的手充 满医治
nǐ de lián mǐn rú jiāng hé yǒng liú nǐ de shǒu chōng mǎn yī zhì
니 디렌민 루장허 용 리우 니 디쇼충 만이즈

Cmaj⁷ C/D G Em⁷ Am C/G D/F# C/E D



受苦者在 祢怀里 得安息 无人能像 祢
shòu kǔ zhě zài nǐ huái lǐ dé ān xī wú rén néng xiàng nǐ
쇼쿠저짜이니화리 더 안 시 우런녕 시앙 니

O.C. al Fine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밖에 없네 주 자비 강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 밖에 없네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

종교

‘중국’ 40여 년 만에 구세군 부활

중국 베이징(北京)에 40년 만에 구세군의 캐롤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AFP 등 외신들은 베이징의 대학가인 하이디엔취(海淀區)의 한 교회에서 홍콩의 36인조 구세군 밴드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성가곡을 연주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연에는 600여 명의 베이징 기독교인들이 몰려와 공연을 관람했다. 외신들은 이날 교회로 통하는 골목에 중국 정부관리로 보이는 2명 만 눈에 띄었을 뿐 경찰은 배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동아.99.12.25)

교황청 “중국당국, 지하포교활동 신부에 성고문 자행”

로마교황청은 지난 1월 5일, 중국 당국이 지하포교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신부에게 매춘부까지 동원해 ‘성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교황청 공식 선교통신사인 피데스는 리칭화 신부(31)가 중국에

서 금지대상인 지하 성당신부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30일 허베이(河北)성 관(關)현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리 신부는 로마교황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수용소에 보내져 재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99.1.5)

中, 美에 종교이용 내정간섭 경고

중국은 종교적 문제들을 구실로 내세워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에 경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예샤오원(葉小文) 국무원(중앙정부) 종교사무국장은 로버트 세이플 미국무부 국제종교자유 특사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종교분야에서 평등과 상호존중의 바탕위에서 교류를 증진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행위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권단체 ‘중국인권’ (HRIC)은 중국이 허난(河南)성에서 지난 해 10월말부

터 일제단속에 나서 140명의 개신교인들을 체포됐다고 발표하는 등 중국은 종교탄압과 관련, 외국으로부터 비판받아 왔다. (연합뉴스.99.1.11)

중국 개방정책 이후 성경 2천만 권 인쇄

중국이 개방개혁정책을 펴 공식적으로 성경인쇄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2천만 권의 성경을 인쇄했다.

중국 난징(南京)의 아이더(愛德) 인쇄소가 87년 성경을 제작, 배포하기 시작한 후로 성경 2천만 권 인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기독교협의회는 3월 16일 한국 미국 등 세계성서공회 관계자들과 기독교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더인쇄소에서 성경 2천만 권 제작기념식을 갖는다. 난징 아이더인쇄소는 한국 교회 등의 지원으로 총 7백만 달러가 투입돼 설립되었으며 3백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이 인쇄소는 연간 1백80만여 권의 중국어 성경을 제작, 보급해 왔다. (국민.99.1.19)

인니 유혈충돌로 화교 탈출러시

인도네시아 동부 말루쿠주(州)에서 회교도와 기독교도간의 충돌로 1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계 화교들과 기독교인들의 탈출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홍콩신문들에 따르면 화교들은 자녀들을 호주 등지의 새 학기에 맞춰 유학보내기 위해 하루에 수백명씩 자카르타 공항에 몰

려들고 있다. 자카르타 동부 2천백 km지점의 말루쿠주 암본섬에선 지난 1월 19일 한 회교도 이주자와 기독교도인 버스 운전사 간의 언쟁이 종교간 유혈분쟁으로 비화되어 암본, 사나나, 세람 3개섬에는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암본공항에는 민항기의 이착륙이 금지됐다.

(연합뉴스속보, 99.1.25)



정치 · 군사 · 외교

中, 新유로화 정책추진

중국은 오는 1월 유럽단일통화 '유로'가 출범해 전후 반세기의 달러화 일극구조가 흔들림으로써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독점적 지위에 맞서는 대항세력으로 부상하게 됐다고 내다봤다. 관영 신화통신은 "EU는 역내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동진(東進)정책을 통해 다극화 세계에서 미국에 맞먹는 중심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화, 98.12.28)

中, 증권법 첫 제정 내년 발효

중국은 지난 12월 29일, 사상 첫 증권법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 증권법은 총 12개 장, 2백1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식 발행 및 거래, 상장, 대금결제, 증권감독기구, 불법행위 처벌 규정 등 증권산업과 관련된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증권법에는 내국인 거래만 허용돼 있는 이른바 'A주식'의 외국인 거래 금지조항이 포함됐으며 증권회사들로 하여금 자체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 운영토록 하는 증권산업의 이원화 체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동아, 98.12.29)

"대만-북한 직항로 추진...비자개선도 협의"

타이완(台灣) 집권 국민당은 타이베이(台北)-평양간의 전세기 직항로 개설과 자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개선 문제 등을 북한과 협의중이라고 중국시보가 보도했다. 중국시보는 국민당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당영 사업관리위원회 관계자 말을 인용, 협상 타결시 당이 운영하는 위안둥 항공 공사가 평양에 독점 취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선, 99.1.4)

중국은 지금 '사정혈풍'

중국에 '사정혈풍(司正血風)'이 몰아치고 있다.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법자 대부분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금년 들어서만 벌써 3명의 고위 비리 공직자와 기업가가 사형 등의 엄벌에 처해질 운명에 봉착했다. 중국이 이

처럼 매서운 사정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 상황에서 만연해 있는 총체적 국가 부패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한해 내내 사정바람은 거세게 불 전망이다. (문화, 99.1.11)

주룽지, 해고 근로자 최저생활수준 보장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는 올해 사회 안정 유지책으로 수백만 해고 근로자들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한것으로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주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국영기업 해고 근로자 회의에서 해고 근로자의 기초 생계 보조금과 퇴직 근로자 연금이 '매달 제때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또 정부의 국영기업 개혁정책에 따라 모든 해고 근로자들은 '재취업 서비스 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과거 직장 고용자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99.1.15)

중국 정부, 자국민 일본 여행 해금

중국 정부는 자국 국민들의 일본 여행을 해금했음을 일본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가와사키 지로(川崎二郎) 日 운수상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일본 입국을 업무목적 외에는 불허해왔다. 양국 정부는 조만간 관광비자 발급을 위한 협의에 착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중국 국민들의 일본 관광여행이 자유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99.1.19)

北-中 국경 긴장고조...북한군,중민가 침입 식량약탈

금년들어 중국과 북한의 압록강 국경지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새벽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관덴(寬甸)현의 민가에 북한 압록강 경비대 소속 2명의 군인이 침입해 식량 등을 약탈해 간 사건이 발생했다. 또 1월 초에는 북한의 작주군 쪽에서 밀수품을 운반하던 북한인들이 압록강변에서 북한 경비병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또다른 소식통이 밝혔다. 한편 홍콩의 시사주간지 이주주간(亞洲週刊)은 최근호(1월11~17일자)에서 압록강유역에서의 어로분규로 양측이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동아.99.1.24)

'환경보호 전략채택' 中國 '올 오염방지 원년' 선언

"99년에는 3강(江) 3호(湖) 1해(海)의 오염지역을 중점목표로 삼는다." 중국정부가 세운 금년도 국토 오염 퇴치 전략을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 등 현지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제진화(解振華)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은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사흘간 진행된 환경보호 및 건설회의에서 "99년은 중국

환경보호의 관건적인 한 해로 오염을 퇴치하기 위한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국장은 특히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중부와 동부를 흐르는 화이허(淮河)와 북부의 하이허(海河) 및 동북부의 랴오허(遼河)등 3대 강의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조선.99.1.25)

中,軍전력 현대화 법령 공포

중국은 거대하지만 낙후된 군사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고 신화(新華)통신이 보도했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최근 육·해·공군 및 합동작전의 전투 규칙과 병참지원을 포괄하는 13개 군 작전명령에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 "새 군작전명령의 공포는 중국군이 현대식 첨단 기술로 특징되는 오늘날의 지역전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문화.99.1.25)

중국,『사유재산인정』개헌 확정

사유재산권 허용을 핵심으로 한 중국의 헌법개정안이 3월5일 열릴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 6조에 '공유제의 보호' 형식으로 명기된 사영경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헌법상 사유재산제의 허용을 명문화했다. 또 헌법서문에 덩샤오핑(鄧

小平)이론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사상과 함께 동렬에 놓아 덩 이론에 따른 경제발전 전략을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명기했다.
(동아.99.1.31)

경제

중국, 올해 7.5-8.0% 성장 전망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보다 약간 높은 7.5-8.0%로 예측했다고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가 보도했다. 중국증권보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국내총생산(GDP) 전망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는 중국 경제학자들이 전망한 7~8% 성장보다 약간 더 높게 잡은 예상치라고 밝혔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그러나 "중국은 경제발전에 있어 계속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99.1.15)

중국 변호사·회계사·스포츠스타 과세 강화

중국이 변호사, 회계사, 스포츠, 스타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국가세무총국 순웨이바오 부국장은 '올해는 고소득 계층임에도 소득원에 대한 감시 불충분으로 세금이 많이 누락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스포츠 스타 등 3개 업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의 일요판 '비즈니스 위클리'가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고소득자

에 대한 중과세에 나선 것은 실업자 증가와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선.99.1.18)



금융회, 투신업계 구조조정 논의
중국에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국제신탁투자 업계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전국금융회의를 개막했다. 관련 소식통들은 올해는 광둥(廣東)국제신탁투자공사(GITIC) 도산을 계기로 국제신탁투자공사(ITIC)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인민은행에 의해 곧 공개될 예정인 투신업계 구조조정은 중국에서 영업해온 240여 개 ITIC를 30~40개로 대폭 정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99.1.19)

“중국 금융부문에 위험요소 많아”

중국은 금융부문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이 이미 경제의 발전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중국경제시보’가 경고했다. 공장, 건설, 농업, 중국의 4대 국유 시중은행의 불량채권 비율은 지난 96년말 20% 였으나, 작년 말에는 더욱 늘어나 일부성(省)에서는 30%를 초과했으며 都農신용금고와 신탁투자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불량채권도 더욱 늘어났다.

(국민.99.1.20)

사회

‘중국’, ‘자녀 낳기’ 후유증…청소년 범죄 골머리

중국 북경일보가 올해초 청소년 범죄를 고발하는 시리즈 기사를 내보내자 각지에서 다양한 의견과 고민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중 10대 청소년이 보낸 편지는 수많은 부모를 충격속에 빠뜨렸다. 중국 사회는 지금 공부 잘하는 청소년 범죄와 비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폭증하는 청소년 범죄가 당국의 ‘한 자녀만 낳기’ 정책에서 비롯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동아.99.12.28)

미국유학 아시아계 부유층자녀 유괴성행

최근 대만출신 미국유학생 납치사건을 계기로 ‘낙하산 아이들’로 불리는 미국내 아시아계 부유층 자녀를 노린 유사 모방범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낙하산 아이들’이라는 말은 해외를 돌아다니며 사업하는 부유한 아시아계 부모들이 자녀를 막대한 유학자금과 함께 미국에 떨어뜨려 유학시킨다는 데서 유래했다. 미국 당국은 아시아와 미주 대륙을 활동무대로 한 아시아계 갱단이 이들을 표적으로 또다른 범죄를 계획중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밝히고 대책마련 들어갔다.

(중앙.99.1.7)

중국 남녀성비 ‘120대 100’

중국의 남녀 성비가 최근 120대 100을 기록, 남녀인구의 불균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의 주말경제판 비즈니스 위크 리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사회과학원의 조사 결과, 지난 95년 113.8대 100였던 남녀 성비가 최근 120대 100으로 남성수가 여성 수를 20%나 초과, 남초현상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남초현상은 중국 당국이 지난 80년대 초 인구억제책으로 도입한 ‘한자녀 정책’과 중국 사회의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이 결합돼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화.99.1.7)

중국 최초 에이즈클럽 발족

중국 최초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클럽이 최근 발족돼 전국의 에이즈 감염자들과 및 환자 가족들간 우호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계간지 발행과 인터넷 웹사이트 개설을 준비중에 있다. 지난 1월 6일 베이징 디탄(地壇)의원에서 비정부기구로 창립된 '붉은 리본의 집'이라는 이름의 에이즈클럽은 첫 회원으로 8명의 에이즈환자와 수명의 의료종사자들을 받아들였다고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문화.99.1.8)

‘중국’, 부패추방요구 시위중 주민-군 유혈충돌

중국 후난(湖南)성 성도 창사(長沙)시 인근에서 5천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지난 8일 5백여 인민해방군 및 1천여 경찰 병력과 충돌, 1명이 숨지고 1백여 명이 구급됐다고 홍콩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밝혔다. 창사시 인근 다오린 지방 정부 관리도 AFP통신과의 전화에서 수천명의 주민들이 세금 인화와 부패 추방을 요구하며 다오린 정부청사 앞에 집결, 청사 내로 진입하려다 경찰 및 해방군과 충돌했다고 확인했다.

(중앙.99.1.15)

중국 농촌주 주민시위 잇따라

중국 농촌지역에서 과도한 세금과 선거부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인권단체 및 중국 관영언론들이 밝혔다. 중국 농민일보는 산시(山西)성 지주우현

에서 농민 1만2천6백명이 농가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징수하려드는 관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홍콩에 본부를 둔 민주운동단체인 ‘중국인권민주운동 정보센터’(中國人權民運信息中心)도 지난 1월 11일 산시(陝西)성 내 레이베이 마을에서 주민 1천여 명이 선거부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경찰 1천명이 진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1명이 체포되는 등 이번주 들어 두차례나 시위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조선.99.1.16)

中 사실상 실업자 日인구 능가

중국의 올해 실업자수가 사실상 1억6천5백만 명 선에 달해 일본 전체 인구 1억2천6백만 명을 크게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홍콩의 ‘핑구오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올해 중국에는 1천40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지만 취업 수요는 3천만 명에 달해 1천600만 명의 실업자가 새로 발생하며, 1억3천만 명의 현재 농촌 잉여 인력에다 2천만 명의 현재 도시 실업자를 합쳐 사실상의 실업자가 1억6천500만 명 선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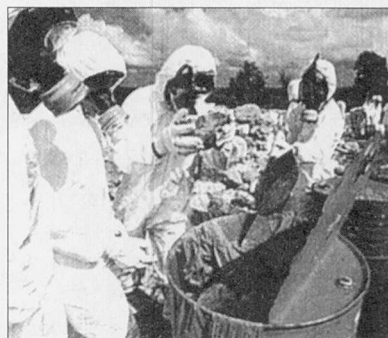
(연합뉴스.99.1.18)

中 양쯔강 ‘오염한계’ 넘었다

중국인의 ‘젓줄’ 이자 역사와 문화의 보고인 양쯔강이 수질오염으로 죽어가고 있다. 중국문화의 발상지 황허에서 하류의 물이 말라 흐름이 끊기는 단류가 나타나는 데 이어, 이번엔 양쯔강이 신음중인

것이다. 총연장 6,300km, 중국 내 수자원 총량의 36%를 자랑하는 양쯔강은 최근 대량으로 쏟아지는 공업폐수와 생활하수, 선박폐유와 각종 투기물로 심각하게 오염돼, 4억 인구의 식수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조선.99.1.18)



장쩌민, “사회불안정과의 전쟁” 선언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는 사회안정을 올해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불안정 요인”들을 뿌리뽑기 위해 사실상 전국 규모의 전쟁을 선언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베이징(北京)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베이징 당국은 ▲대규모 실업자들이 법과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 ▲민원을 야기할 파행적인 금융, 비즈니스 관행 ▲관리들의 학정에 의한 돌발사고를 3대 불안정요인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99.1.20)

中, 인터넷 범죄 비상

중국에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 공안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에선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만 해도 54만2천 대에 이르러 해킹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상하이(上海)에서 작년 4월 한 고교 졸업생이 증권투자로 돈을 잃은 친구를 돕는다는 미명아래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컴퓨터망에 침입, 내부 정보를 빼갔고 장시(江西)省 동부 지방에서는 휴대전화 컴퓨터망이 해커의 공격으로 이틀간 전화가 불통되기도 했다.

(국민.99.1.20)

中 대도시 대기오염 세계 최악

영국 BBC방송은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전 세계 대도시 대기오염 실태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10대 오염도시 중 인도의 라지코트를 제외 한 9곳이 중국에 몰려 있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는 중국 동부와 서북지역을 연결하는 간쑤(甘肅)성 성도 란저우(蘭州)로 밝혔다. 란저우에 이은 세계 10대 오염도시는 지린(吉林·지린성), 타이위엔(太原·산시성), 자오쥬(焦作·허난성), 라지코트(인도), 완셴(萬縣·쓰촨성), 우루무치(烏魯木齊·신장위구르자치구), 이창(宜昌·후베이성), 한중(漢中·산시성), 안양(安陽·허난성)으로 대부분 황하와 양쯔(揚子)강 주변에 몰려 있다. (동아.99.1.26)

한·중

한·중간 '열차페리' 빠르면 2002년 운행

대형 선박에 컨테이너를 적재한 화물열차를 실어 중국까지 운반한 뒤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하는 '열차페리'가 운항된다. 또 인천 국제공항, 부산·인천항,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등 주요 공항 항만 내륙화물기지 등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국제물류 센터로 육성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소와 중국철도연구소는 이미 열차페리 운송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우리의 인천항·평택항·군장항, 중국의 대련항·연대항·연운항 등에서 대상 항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앙.99.1.7)

부산역 앞 옛 청관골목 '상하이 거리'로 조성

부산지역 화교들의 상가가 밀집된 부산 초량동 부산역앞 옛 청관골목이 '상하이(上海) 거리'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홍성방·초량1동사무소간 길이 3백여m 면적 1만8천여평의 옛 청관골목을 상하이의 문 건설, 중국인 전용상가 및 편의시설 설치, 도로확장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야간조명등 설치 등을 통해 상하이거리로 만들기로 했다.

(국민 99.1.19)

포철 中합작공장 준공

포항제철은 중국 장쑤(江蘇)성 장자강(張家港)시에서 사장(沙江)그룹과 합작투자한 연산 12만5천t 규모의 중국 최대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포철과 중국 사장그룹이 80대 20의 비율로 총 1억4천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이 공장은 스테인리스 열연코일을 전량 포철로부터 공급받아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을 생산해 중국 내에 판매하게 된다.

(동아.99.1.22)

中 선양(瀋陽) 영사사무소 3월개설...韓-中 협의각서 교환

한국과 중국은 선양영사사무소 설치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3월 중 영사사무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권병현(權丙鉉) 주중대사와 우동허(武東和) 중국외교부장조리는 중국외교부에서 교환한 합의각서를 통해 △명칭을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주선양사무소'로 하고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3성을 영사활동 대상지역으로 하며 △사무소소재지인 랴오닝성 이외의 지역에 현지출장하여 수행하는 영사업무는 중국 측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동아.99.1.28)

새 일꾼을 찾습니다

'베이징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교사 모집

본 아카데미는 중국 중앙정부와 베이징(北京)의 교육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허가 받은 국제학교입니다. 각 과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이 설치됩니다.

금년 9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본 국제학교에서 신앙심 깊고 중국에 와서 봉사하기 원하시는 교사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미국에 위치한 국제 기독교학교협회 정식회원학교이며 미국 교육성으로부터 학업인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 및 특별활동 교육프로그램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국제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도 영어로 진행되며 전 세계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와서 봉사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 및 사역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인 교사를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혜: ① 정식교사 비자발급

② 주택 및 기본가구 제공

③ 기본 월급 제공(500불 이상)

자격: 교사 자격증이 있고 경험 있으신 분

연락처: International Academy of Beijing

P.O.Box 004, Qinghe, Beijing, P.R.China

100085

문의: Tel: 86-10-6297-0544(FAX)

86-139-116-1011(H.P)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와 훈련원 간사,
행정 간사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판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출판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 Tel. 533-5497 석은혜 선교사

선교사 훈련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훈련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 Tel. 535-4255 이성은 선교사

행정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행정실로 연락해 주세요.

문의: Tel. 592-0132 이넷시 간사



중국어 찬양 Tape이 나왔습니다.

ORTV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진 기획에서 발행하였습니다.

- ① 회념적시가 - 찬송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수 사랑하심은,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등) 총 17곡
- ② 찬미단가 - 경배와 찬양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목마른 사슴, 주는 토기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등) 총 18곡
- ③ 부위명천적주려 - 중국어 성경에 곡을 붙여 만든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오직 성령의 열매는 등) 총 13곡
- ④ 금아진정적자유 - 중국인이 작사작곡한 중국복음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줍니다 등) 총 13곡
- ⑤ 수몽향 - 성경의 이야기들이 중국어 낭송과 함께 노래로 불러집니다(천지창조이야기, 다윗이야기 등) 총 18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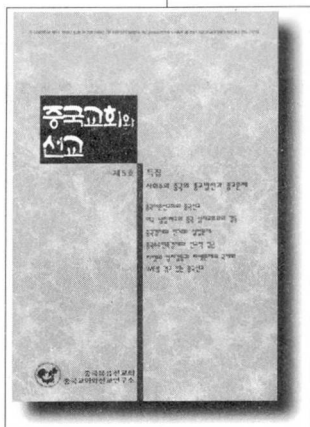
▶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중국어문선교회나 유명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제작: 금성레코드사. 가격: 개당 4,500원

▶ 다량을 원하시는 분은 진 기획으로 연락주시시오. Tel. 997-9291, 011-688-9992

중국 교회와 선교(제5호)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321면, 값 7,500원



현재 중국 사회와 중국기독교 현황의 제반 연구를 통해 중국선교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 연구잡지이다. 이번 5호는 「사회주의 중국의 종교발전과 종교문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특집은 총 6편의 글로 대부분 중국 대륙 내의 종교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글로 되어있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시기의 중국의 종교발전 현황과 추세와 특징, 그리고 종교의 제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원자오(韓文藻)의 공개 서한과 국가종교사무국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국복음선교회〉 대만본부의 미국인 팀예이츠 선교사가 논평한 글도 함께 실었다.

이번호의 중국 자료로는 〈중화복음회〉의 고백서와 지도자 섰펑의 진상 설명서를 독자들에게 공개했다. 또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광저우(廣州)시 종교사무조례〉와 1998년 5월 1일부터 실시된〈지린(吉林)성 종교사무조례〉도 입수하여 실었는데, 이들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중국교회와 선교》제5호의 모든 내용은 오늘날 중국 종교발전과 중국선교의 상황에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8-6867로.

현대선교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이동주 저, 374면, 값 11,000원



기독교 자체 내에서 성장하여 세계선교에 가장 크게 도전하고 있는 현대신학의 두 가지 물결은 종교다원주의와 세속주의로 분류된다. 1991년 초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한국 감리교회의 종교다원주의는, 유행성 독감같이 한때 반짝하다 지나가 버리는 유행신학이 아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 종교혼합주의, 종교종합주의 등의 모양으로 변모하면서 예수께서 재림할 때까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심부로 들어와서 왕노릇 할 사단의 세력으로까지 발전될 것으로 예견된다(살후 2:3~8).

그러므로 필자는 교회에서 자생한 종교다원주의와 세속주의의 정체를 밝히고 복음주의 신학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적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현대의 세속적이고 다원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서론 중에서

중국을 살면 싫는다

김동우 지음 · 234쪽 · 7,000원 · 도서출판 우석



이 책은 한의사이자 대학 교수인 필자가 교환 교수 자격으로 중국에서 1년 간 머물면서 알게 된 중국, 중국인의 새로운 모습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겪은,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로부터 요즘 중국 젊은이들의 연애관과 결혼관은 어떤지, 자본주의 물질이 밀려들기 시작한 중국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중국 사람들과 일을 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현대 중국을 신선한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21세기 중국은 무엇을 꿈꾸는가?

채현위 역음 · 김익겸 옮김 · 290쪽 · 8,500원 · 도서출판 지정



이 책은 중국의 21세기 미래 전략서로 국가 경영 전략 전반과 주변정세 분석에 기초한 중국의 전략을 다루고 있어 그 분야와 내용이 매우 넓고 체계적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상편 <최강의 경제력 구축>에서는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 성장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앞으로의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전망을 다루고 있다.

중편 <아사아 대통합>에서는 아시아 주변 정세와 각국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아시아의 일체화와 현대화에 중국이 핵심국가로 역할을 하게될 것임을 강하게 말하고 있다.

하편 <새로운 세계의 영도>에서는 세계 여러 강대국들의 발전 전망과 중국과의 관계설정 방향 등에 기초하여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장기 목표를 담고 있다.

새로운 한중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특히 주목되는 이슈들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과 전망, 한반도 정세와 통일, 대만 통일의 시한, 미국 및 일본 등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 아세안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대한 전략 등은 비단 중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같은 동북아에 위치한 우리에게도 지대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자신감을 크게 부각하고 있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 정세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중국의 미래상을 중국인의 시각으로 조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사 재미있게 들여다보기

역사수수끼 연구회 저 · 이재정 옮김 · 248쪽 · 7,000원 · 솔출판사



이 책은 중국 역사가 출발한 신화 시대부터 홍콩 반환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엮어 놓았다. 그러나 재미를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야사류의 중국사 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중국 역사에 숨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객관적인 역사와 연결지어 서술한 책이다.

신화, 전설의 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전환기에 나타난 시황제, 제갈공명, 양귀비, 징기스칸, 서태후와 같은 영웅적인 인물들을 다루고, 당시에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 5천 년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현재까지도 중국의 영향이 남아 있는 아시아의 문화나 풍습 등의 원조를 밝혀놓았을 뿐 아니라, 전족이나 환관과 같은 중국의 독자적인 풍습도 곁들여 있다. 수수끼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5천 년 중국사를 만들었음을 보여주지만, 단지 불확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인의 실제 모습과 역사를 곱씹만이 아닌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감추어진 이야기들임을 알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물론 중국사를 쉽게 알고 싶어 하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이 책은 세 시간만 읽어본다면, 역동적인 중국 역사의 단편을 통해 방대한 중국사를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선교 단체 정보

중국복음선교회 일반연구모임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에서는 중국에 관련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일반연구모임이 실시되고 있다.

주제: 대륙의 딸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중국복음선교회 중국선교연구소

문의: 중국선교연구소 (☎ 02)318-6867)

선교한국 제 18 기 선교학교

일시: 1999. 3. 13~5. 8 (9주간) 8:30 A.M. ~ 1:30 P.M.

장소: 사랑의교회 교육관 예정

(2호선 강남역, 도보로 10분)

참가비: 6만원 (교재비, 리트릿 비용포함)

지로 7616086

국민 760-21-0004-608 이대형

신청: 선교한국

(☎ 02)3482-2713/ FAX 02)3482-0661)

천리안, 유니텔 ID:MKOREA

3월 6일까지 마감(선착순 100명)

ARM 현장복음선교사 훈련 제5기 모집

훈련방법: 8주간 강의 카투만두에서 매주 월~금 까지

2주간 훈련: 오지 현장복음 및 컴퓨터 편집 사역

기간: 1999. 3. 15~5. 21(10주간)

모집인원: 9명 내외

훈련비용: US \$ 500(숙식 및 네팔 내 교통비 포함)

네팔 왕복 여행 불포함

대상: 세계 오지에 흩어져 있는 미전도종족 복음화

에 사명감을 부여받은 자로서 녹음선교 사로 헌신할 형제자매로 훈련 기간 중 Full time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자.

문의: 복음음반 선교회 한국지부

전화: 02)408-6959

월요 선교영어학교

훈련목표: 영어 훈련을 통해 유능한 선교후보생과 관심자 양성

기간: 99. 3. 8(월)~6. 14(월)/매주 월 10시~12시10분

문의: 99. 3. 4까지 등록마감(02-3471-9138)

일본선교훈련원

목적: 일본의 문화, 선교전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문인 사역자 양성과 지역선교전략, 문화의 이해 및 훈련을 위해 세워진 초교과 훈련기관이다.

일시: 99. 3. 22(월)~6. 29(화)

시간: 매주 월, 화 오후 7시

문의: 일본복음선교회(02-393-1772,3)

오엠 겨울 단기선교-튀니지 기도여행

세계 각지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튀니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의 문화와 삶을 경험하고, 현지인들을 만나 튀니지와 그 정부를 위해 현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시: 1차/99. 2. 20~3. 1, 2차/99. 3. 28~4. 5

문의: 99. 1. 15까지(02-3482-1436)

제5회 CIS교회지도자 초청훈련 신청안내

기간 : 99. 8. 26(목)~9. 17(23일간)

장소 : 한국중앙기도원/햇빛회관

훈련단계 : 합숙훈련/8. 26~9. 8(14일간)

견학 : 9. 9~9. 10(2일간)

목회견습 : 9. 11~9. 17(7일간)

초청인원 : 56명(신청접수 우선순)

참가자격 :

* CIS지역 국가 내 개신교회에서 담임선교사가 인정하는 설교통역자, 전도사, 신학생 및 평신도지도자

* 연령 : 만 19세~만 59세의 남녀(국적, 인종은 관계없음)

* 전에 초청훈련 받은 자는 제외함

문의처 : 소련선교회(02-563-0133, 567-4874)

'99 봄 내적 치유학교

일시 : 99. 3. 29(월 P.M7시)~4. 3(토 A.M7시)

장소 : 여전도 회관

강사 : 크리스 헤리슨 목사

대상 : 모든 직장인 및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심있는 분

인원 : 112명

회비 : 120,000원

마감 : 석착순 마감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기타소지품, 세면도구

(비누, 치약, 타올 제외)

주최 :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문의처 :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사무실(02-871-7351~3)

EAM 소속 선교사 예비 지원자 모집

목적 : 본 회 선교사 후보로 예비 지원하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본회의 사역철학과 사역방법에 동의하고 앞으로 현지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동역할 수 있는 본회의 정식 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기간 : 99. 2월부터 12월말까지(1년 간)

목표인원 : 20명 이상 예비 지원자, 5명 정식 지원자

대상 :

1. 중국선교에 헌신한 신대원생
2. 중국선교에 헌신한 교회(청년회)의 회원
3. 중국선교에 헌신한 일반인과 대학생

방법 : 본 회의 비치 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예비 지원자들은 본 선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문의처 : 동아시아선교회(02-878-3750/3751(FAX))

신대원 중국선교 헌신자 모임을 시작합니다

대상 :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신대원 재학생 및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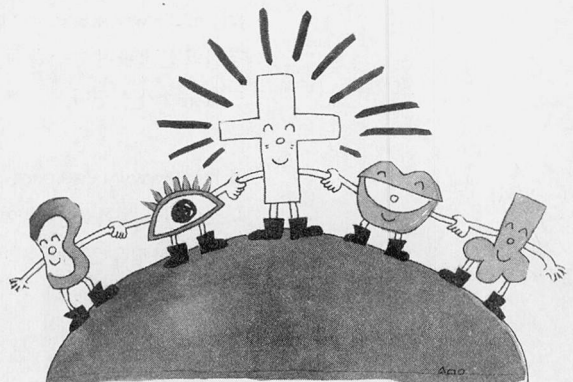
일시 : 첫 모임- 99. 2. 11

정기모임 :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저녁 6시

내용 :

1. 각 신대원의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
2. 본 회 이사님들과 각 신대원의 관련 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의나 설교를 부탁드린다.
3. 일년에 두 차례 이상 전체모임을 가지며 본 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소정의 혜택
4. 신대원들을 위한 단기선교 여행을 준비, 현지에서 본 회의 사역에 대한 견학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5. 본 회 선교사 예비 지원자로 지원할 수 있다.

문의처 : 동아시아선교회(02-878-3750)



선교관련 사이트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선교전략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유용한 사이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선교관련 사이트

사이트	내용
http://www.brigada.org	국가별 기도제목 등과 간결한 내용소개
http://www.christiandailynews.org	선교관련 소식
http://www.gospelcom.net	선교관련 뉴스청취
http://www.newsroom.org	카톨릭 포함한 광범위한 기독교 뉴스 수록
http://www.religiontoday.com	종교관련 소식이 수록됨

※ <http://www.brigada.org>를 열어보면 다른 선교단체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어, 많은 정보를 손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경우 혼동을 줄 수도 있다.

☞ <http://www.brigada.org>

'미전도 종족과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와 같은 것들이 주로 실린다. 짧은 소식들이 각 종족별로 국가별로 기도제목과 함께 소개된다. 이 기도제목들을 보면 간결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어 손쉽게 다른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http://www.christiandailynews.org>

missions, revivals, Features, World news 4가지로 구성되어 선교관련 소식들을 비교적 길게 전한다. 또 [view Archives]에는 지난 소식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다.

☞ <http://www.gospelcom.net>

당일의 선교관련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해 놓았다. 세계의 기독교 상황에 대해 하루 5개 정도의 뉴스가 실린다.

☞ <http://www.newsroom.org>

무료이지만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독교 관련 뉴스를 업데이트한다. 카톨릭을 포함해 세계의 기독교 뉴스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신청하면 이메일에 전송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영어 소수민족 관련 사이트

사이트	내용
http://www.calebproject.org	세계선교 소식과 함께 각 지역족속에 대한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http://www.brigada.org	뉴스와 함께 미전도종족의 상황과 소식을 나눈다.
http://www.ad2000.org	2000년까지 세계 복음화를 모토로 미전도 중심의 소식과 선교전략을 나눈다.
http://www.uscwm.org	미국선교센터의 사이트
http://www.bethany.com	종족 프로파일이 수록되어 국가별, 종족별 기도제목과 지도를 볼 수 있다.
http://www.sim.org	세계의 선교소식을 나누고 있다.

소수민족 관련 한국어 사이트

사이트	단체명
http://www.aap.or.kr	미전도 입양본부의 사이트
http://www.jcwm.org	기독교 선교회 사이트
http://www.intercoop.org	인터콥 사이트
http://www.ktm.kaist.ac.kr	한국과학기술대학 사이트
http://www.kcm.co.kr	인터넷 선교학회의 사이트

중국선교관련 영어 사이트

사이트	내용
http://www.forerunner.com	사역자들의 글과 중국교회 상황 등이 실림
http://www.acu.edu	신학대의 사이트로서 중국선교의 내용을 볼 수 있다.
http://www.iteams.org	international Teams의 사이트지역별, 주제별 선교에 대한소식을 볼 수 있다.

중국선교 관련 중국어 사이트

사이트 및 이메일 주소	내용소개
http://www.twccm.org.tw	[海外宣教]라는 잡지의 사이트
http://www.gccusa.org	[大使命]이라는 유학생 전문잡지의 사이트
http://www.gointl.org	[華傳路] 화교선교잡지의 사이트
http://www.tjc.org.tw	[聖靈] 대만잡지의 사이트
http://www.ccea.org.tw	[中國과 福音] 중국복음회 대만본부의 사이트
http://www.ccintl.com	[복음중추협회]의 사이트
http://www.cccowe.org	[세계화인복음사공연락중심]
http://www.christian.org.hk	基督徒網站
http://www.ccim.org	중국인터넷 선교회 사이트
http://www.blessed.org	福音的橋梁

※인터넷에서 중국어를 보려면 internet microsoft의 도움말을 클릭하여 제품 업데이트를 선택한다. 초기화면을 보면 간체/번체 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소요시간 40분.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선교도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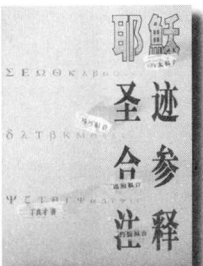
兒童讚美
찬양집. CD, Tape
6,000원/14,000원/8,000원



아동찬미
찬양집. CD, Tape
6,000원/14,000원/8,000원



私禱日新: 매일 기도
1500원



예수님의 이적 주해
5,000원

중국선교 소책자 시리즈

1. 만남 (중국성도 간증 소책자)/中國語文宣教會 번역, 무료
2. 전도중국어/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역 (Tape: 1,000원) 2,000원

중국어 도서 및 Tape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1,000원) 2,000원
2. 經文背誦: (Tape: 1,000원) 1,500원
3. 神愛世人: (Tape: 1,000원) 2,000원
4. 我的第一本聖經: (Tape: 1,000원) 2,500원
5. 中韓: 주제 별 성경암송 카드 (60구절: 네비게이트 출판사) 1,000원
6. 私禱日新: 매일 기도 1,500원
7. 新歌頌揚 合訂本 (가스필집/Tape): 10,000원/10,000원
8. 信仰讀本: (영문판해 설판/한글해설판) 5,000원/5,000원 (Tape 2개: 2,000원)
9. 聖經一注釋本: 주석본(간체자) 35,000원
10. 聖經眞理百果: 성부, 성자, 성령과 교회, 천사, 경건생활 등을 다룸. 3,000원
11. 慕迪神學手冊: 무디신학핸드북 6,000원
12. 簡易神學: 신학의 요점을 작은 책자 형식으로 구성 3,000원
13. 面對自我: (교사용/학생용)
-제자심화훈련,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 5,000원/5,000원
14. 선교사중국어 교본: 8,000원
15. 讚美歌: (찬송가) 오선과 중국 식표기 2가지가 있다. 5,000원
16. 讚美主: 「찬미 1500」에 있는 찬양. 한국어와 중국어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5,000원
17. 神同在(GOD WITH US):
찬양집/9,000원, 비디오/17,500원, CD/14,000원, Tape/8,000원
18. 전하세 예수: 찬양집/12,500원, CD/13,000원, Tape/7,500원
-하스데반 목사님이 인도한 대만 찬양집회 실황.
19. 頌讚, 尊貴, 榮耀: CD/14,000원, Tape /8,000원
20. 奉主耶穌的名: (찬양테이프) 3,000원

어린이찬양과 교재

1. 奇妙的故事: 신기한 이야기
-어린이용 성경으로 성경 속의 기적들이 그림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3,000원
2. 睡夢鄉: Tape와 책이 각각 3개씩 들어 있음. 1set 28,500원
3. 兒童讚美: 찬양집 6,000원, CD/14,000원, Tape/8,000원

구입방법: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으며,
지방인 경우에는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 하게 됩니다.

복음증주협회(CCL) 소책자 소개

每日與主同行: 매일 주님과 함께

- 일년 365일을 성경통독과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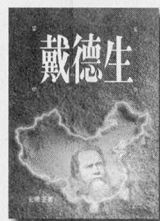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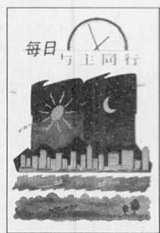
戴德生: 허드슨테일러의 생애 3,000원

你為何要信: 당신은 왜 믿어야 하는가? - 기독교의 과학성을 입증한 책. 3,000원

真理的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스토트(J.R.W. Stott) 저/ 시에즈웨이(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간체자(簡體字)판
존 스토티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총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 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하여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문서선교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문서선교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면,

중국어문선교회 문서선교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 소책자와 양육 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강하림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535-4255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아십니까?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 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금하계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교육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 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교육기간

6개월(매년 3월, 9월 개강 /주 5일 훈련)

교육내용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국문화 및 선교연구 세미나,
중국어 공동훈련, 현지 언어연수 및 답사

교육대상

중국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 훈련 후 선교지에 곧 나가려는 분에게 우선권이 있음.
참가인원 및 선발기준은 본 훈련원의 선발기준에 의함.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02) 535-4255, 594-8038

FAX: 02) 599-2786

중국선교훈련원은 선교인어 훈련과 중국문화 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훈련원은 초교파적, 복음적 단체로 1989년 10월 30일에 창립된 중국어문선교회(대표:박성주 장로)의 부설기관입니다.

2000년도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 학생모집

● 초대익 글

이 시대에 한국이 중국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르익어 많은 헌신자들이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채 사역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중국복음선교회에서는 중국선교사역전문가에 의한 실제적인 중국선교사훈련을 통해 중국선교사로서의 영성과 인격의 형성, 중국어 구사와 설교, 중국실제사역의 이해, 중국현장 적응능력 등을 적절하게 갖춘 전문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중국선교사훈련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중국영혼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평생 헌신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을 중국선교사훈련의 장에 초대합니다.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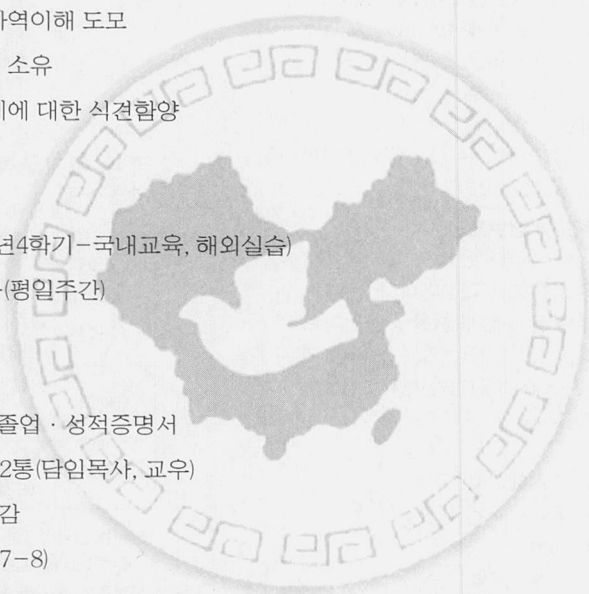
1. 중국선교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교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2.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3. 전문대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2년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4년이상 근무한 자

● 훈련 및 교육내용

영성 및 인격훈련/ 선교사로서의 인격형성 및 영성, 경건의 훈련
공동체훈련/ 공동체 삶속에서의 개인성장 훈련
은사 및 사역의 개발/ 개인의 은사 및 사역의 개발
사역실습/ 현장 적응능력 향상과 실제사역의 실시
중국어/ 기초부터 자유로운 언어 구사수준까지 설교능력배양
중국선교 사역학/ 전문적인 중국선교 지식과 사역이해 도모
중국학/ 개괄적인 중국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의 소유
일반선교 사역학/ 폭 넓은 세계선교와 선교문제에 대한 식견함양

● 일정

1. 훈련 및 교육기간 : 2000. 3. 2~2002. 2. 28(2년4학기)-국내교육, 해외실습)
2. 일 시 : 매주 화~금 오전 9시~오후 4시30분(평일주간)
3. 교육장소 : 본원강의실
4. 전형방법 : 서류/필기/면접시험
5. 제출서류 : 본원지원서/신앙고백서/최종학교졸업·성적증명서
/사진 2매(3*4)/ 추천평가서 2통(담임목사, 교우)
6. 원서교부 및 접수 : 연중교부/1999. 11. 30 마감
7. 시험일자 : 논술(1999. 12. 6), 면접(1999. 12. 7-8)
8. 합격자발표 : 1999. 12. 21
9. 개강일자 : 2000. 2. 29



중국선교 전문지

중국을 주께로

1999년 3.4월호 (통권56호)

발행처/ 시립(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 박성주

발행, 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 김중하, 김피득, 마민호

왕쓰웨, 지인성, 한수아(가나다 순)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 최귀례, 박숙, 박정희, 전하영

편집디자인/ 박정영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9년 2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 02) 264-5354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 0344)906-9191~4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30,0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답동 44-24 원지당 약국 3층

전화: 032) 762-0748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시지요

☆ 인터넷 홈페이지

www.Dadream.co.kr/~sinim

☆ E-mail

sinim@chollian.net

☆ PC 통신 천리안

sinim

편집후기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봄은 오게 마련, 따사로운 봄볕에 어둡고 차가웠던 마음을 녹이면서 속히 한국 경제에도 봄이 오길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다름심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 욕심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게 허락하신 이 ‘경제한파’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순결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는 ‘중국의 변화를 읽자’는 주제로 특집을 다루었습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소수민족, 교회, 지식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변화를 읽고, 중국상황에 맞는 선교전략을 세워 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특집이 중국선교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계속 변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더 알찬 내용과 멋진 편집디자인을 하기 위해 우리 편집진은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꽃향기에 실어 보냅니다.



장승원 그림

국의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30,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42,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7,40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30,000원, 우편료 23,400원, 합계 53,40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31,200원, 합계 61,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02-592-0132, 0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중은행 99번 창구/ 지로번호 760236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008-01-0454-178(예금주: 박성주)

독자카드 1999년 3·4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한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

1.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십시오.

☐ 신규구독 ☐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1년 30,000원(6권) ☐ 2년 60,000원(12권) ☐ 3년 90,000원(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이름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우 -) (통 반) 출석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통 반)			

전화신청 및 문의 02) 533-5497, 02) 592-0132

“중국을 주께로” 중보기도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중국 선교의 문이 왜 열리지 않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로써 모든 닫힌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선교의 모든 문들은 닫힌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크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누가 이 세대에 기도의 큰 용사로, 이 영광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제,

『중국을 주께로』 중보기도회가 98년 4월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중국을 위해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동역의 장이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중국을 섬기실 분들을 초청합니다.

시간: 매주 월요일 (저녁 6:30)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훈련원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우137-069

Tel. 02) 592-0132, 594-8038



장승원 그림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파서 자살하려고 했습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만게 됐지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천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답니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함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320-0283, 0290)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정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